

최종보고서

2009-05-05-00

태권도 예식개발 연구

2009. 12



제 출 문

국기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태권도 예식개발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9. 12

책임연구원 심 승 구

참 여 연 구 진

책임연구원 : 심승구 (한국체육대학교)

연구원 : 송형석 (계 명 대 학 교)

박필제 (가천의과대학교)

권준원 (동아방송대학교)

원 일 (한국예술종합학교)

박가영(한국궁중문화연구원)

보조연구원 : 김민옥 (한국외국어대학교)

김중수 (한국체육대학교)

최여미 (한국체육대학교)

자문위원 : 이 봉 (국 기 원)

오대영 (국 기 원)

이고범 (국 기 원)

이규형 (계 명 대 학 교)

류호윤 (대한태권도협회)

이진수 (한 양 대 학 교)

이진원 (한국예술종합학교)

이형록 ((주) 한울)

김민자 (서 울 대 학 교)

윤여빈 (경 기 문 화 재 단)

연구지원 : 최상환 (국 기 원)

최치선 (국 기 원)

개 요

1) 사업명

태권도 예식개발 기본계획 연구

2) 사업목적

세계적 위상에 맞는 태권도 표준 예식 체계 개발

3) 연구기간

2009년 09월~2009년 12월(4개월)

4) 연구일정보고

○ TF 회의 (6회)

1차회의 : 9월 16일 (수), 국기원

2차회의 : 10월 9일 (수) 서울역회의실

3차회의 : 10월 30일 (금), 서울역회의실

4차회의 : 11월 13일 (금), 국기원

5차회의 : 11월 27일 (금), 국기원

6차회의 : 12월 1일 (화), 올림픽 파크텔

○ 연구책임자 및 국기원 연구소장회의 (2회)

1차회의 : 9월 23일 (수), 국기원

2차회의 : 10월 19일 (월), 한국무예연구소

○ 현장조사 (4회)

1차조사 : 3급 국내사범지도자 평가 및 수료식 (10월 16일 (금), 국기원)

2차조사 : 1,2급 국내사범지도자 평가 및 수료식 (11월 4일 (수), 국기원)

3차조사 : 국기원 방문 현황 (11월 9일 (월), 국기원)

4차조사 : 고단자 승단심사 (12월 5일 (금), 국기원)

○ 자문회의 (2회)

1차회의 : 11월 13일 (금), 국기원

2차회의 : 11월 27일 (금), 국기원

○ 내부 연구진 회의 (24회)

1차~24차회의 : 9월 18일(금)~12월 15일(화), 한국무예연구소

목 차

I. 서론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범위	3
3. 연구방향 및 방법	5
II. 태권도예식의 개념과 의의	8
1. 태권도예식의 개념과 범주	8
2. 태권도예식 개발의 방향	9
3. 태권도예식 개발의 의의	10
III. 태권도 예식개발의 현황 분석	12
1. 태권도예식의 현황 분석	12
1) 국기원 태권도예식의 현황 분석	12
2) 설문지 분석	54
2. 국내외 태권도 관련 예식의 현황 분석	61
1) 스포츠와 무예이벤트의 의례	61
2) 국내외 태권도의 예식 현황	62
3) 해외무술예식 사례조사	66
4) 태권도 관련 예식 현황 분석	70
IV. 태권도예식의 이론적 고찰	76
1. 태권도예식의 근거규정	76
2. 태권도 예식의 예제적 원리와 특징	77
3. 태권도예식의 근거와 활용 원리	79
1) 태권도 예식을 위한 근거자료	79
2) 전통의례의 근거와 활용 원리	81
3) 전통의례의 원리를 활용한 태권도 예식의 방안	86
V. 태권도 예식의 개발방향	89
1. 예식	89
1) 심사예식	90
2) 입문예식	97
3) 수여예식	103

2. 복식	104
1) 태권도 예복 기초자료 조사	104
2) 태권도 예복에 대한 태권도인들의 요구분석	109
3) 태권도 예복 디자인 컨셉	113
4) 태권도 예복 디자인 시안	117
5) 태권도 예복 디자인에 대한 논의사항	122
3. 공간	125
1) 디자인 컨셉	125
2) 전체적인 공간 구성	126
3) 경기장 바닥 개선	130
4) 경기장 천장 개선	132
5) 귀빈석 공간 개선	134
4. 음악	136
1) 태권도 예식의 음악	136
2) 태권도 예식 음악의 개발방향	137
5. 이벤트	140
1) 태권도예식과 이벤트	140
2) 태권도예식 이벤트 컨셉 및 방향성 제시	142
VI. 태권도예식의 과제와 향후 추진계획	147
1. 태권도 예식개발의 한계	147
2. 태권도 예식개발의 과제와 제언	149
VII. 태권도예식의 개발사례	153
1. 심사예식(고단자승단심사)	153
2. 입문예식(사범지도자연수)	156
3. 수여예식	158
VIII. 부록	162
1. 관련규정	162
2. 설문지분석	168
1) 1급 사범지도자 이론시험 응시자(27명)의 주요 의견	168
2) 2급 사범지도자 이론시험 응시자(77명)의 주요 의견	172
3. 참고문헌	185
1) 단행본	185

2) 논문	188
3) 웹사이트 주소	195
4) 비디오 자료	197
5) 해외 동영상 자료	198

I. 서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는 오늘날 세계적인 무예스포츠로 발전한 태권도의 위상에 걸 맞는 태권도 표준 예식 개발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다. 태권도는 불과 50년 만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10대 문화의 하나로 선정되는 것은 물론이요, 올림픽 정식종목에 채택됨으로써 일약 세계적인 무예 스포츠로서의 명성과 사랑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세계적인 위업의 달성에도 불구하고, 태권도는 그 위상에 걸 맞는 역할과 함께 해결해야 할 여러 과제를 안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시급한 과제는 태권도의 정체성 확립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일이라고 판단된다.

태권도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은 곧 태권도의 뿌리를 튼튼히 하는 길이요 동시에 구심력을 확보하는 토대다. 구심력을 든든히 세우는 일이야말로 태권도의 원심력을 끊임없이 확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무엇보다 태권도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역사 정립을 비롯한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학문적 접근과 함께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국가적 차원에서 태권도공원을 조성하는 사업도 태권도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된다. 태권도의 정체성은 크게 무예적 요소, 스포츠적 요소, 문화적 요소로 구성된다. 무예적 요소란 곧 일격필살의 무술인 동시에 자아완성의 가치를 실현하는 심신수련의 정체성을 말한다. 스포츠적 요소란 경쟁 또는 인간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경기 내지 기술적 정체성을 말한다. 문화적 요소란 태권도가 한국이라는 공간아래 한국인의 삶 속에 잉태되어 나온 유·무형의 결정체로서 문화적 정체성을 말한다. 특히 문화적 정체성은 태권도를 수련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정신, 자세, 예절, 도복, 도장 등을 가리킨다. 태권도는 이처럼 역사적 산물인 동시에 문화적 산물이다.

국기원은 태권도의 산실이자 세계태권도의 메카다. 따라서 국기원은 태권도 정체성을 담보하는 유일무이한 기관이자 공간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실제로 국기원의 핵심 기능은 역사 정신의 정립, 기술 개발과 함께 승품·단 심사와 사범, 국내외 지도자 양성 등이 주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하지만, 각종 심사예식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별다른 예식규정이나 예식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채 행사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예의를 중시하는 태권도의 기본정신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이는 곧 국기원의 권위와 위상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은 물론 태권도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국기원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심사규정의 정비와 함께 예식 개발을 위한 움직임이 있어 왔다. 하지만, 그 직접적인 제기는 국기원이 2009년에 심사규정을 개정할 때 심사예식을 거론하면서 부터이다. 2009년 2월에 만들어진 심사규정 제8조

심사시행 ⑧항에 따르면, “승품·단 심사에 따른 심사예식을 준수하여 시행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심사규정의 제정은 심사예식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를 근거로 2009년 9월에 본 연구가 착수되게 된 것이다.

태권도 예식이란 태권도를 수련해 나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거쳐야 하는 통과 의례로서, 태권도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상징 요소이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태권도 예식 개발은 단순한 의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무도스포츠로 발전한 태권도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필연적이고도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 같은 관점에서 볼 때, 태권도 예식 개발을 위한 출발은 때늦은 감이 있지만, 참으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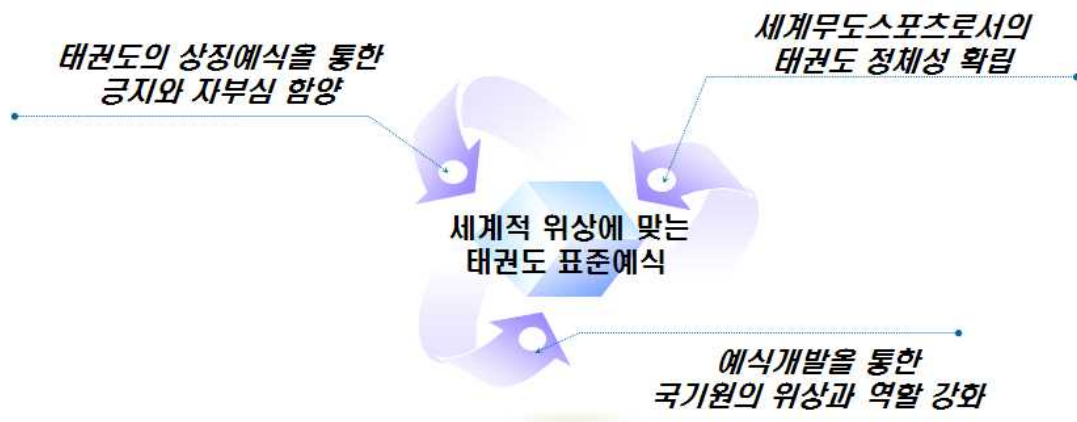


그림 1 태권도 예식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위의 <그림 1>과 같이 태권도 예식이란 태권도를 수련해 나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거쳐야 하는 통과 의례로서, 태권도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상징 요소이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태권도 예식 개발은 단순한 행사의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태권도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태권도 예식 개발은 기본적으로 세계적 위상에 걸 맞는 표준예식의 개발을 목표로 삼는다. 이 같은 목표아래 태권도 예식 개발은 크게 세 가지의 목적을 갖는다.

첫째, 세계무예스포츠로서의 태권도 정체성을 확립한다는 목적을 갖는다.

둘째, 태권도의 상징예식을 통한 태권도인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함양한다는 목적을 갖는다.

셋째 태권도 예식개발은 세계태권도 산실인 국기원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한다는 목적을 갖는다.

결국 태권도 예식개발은 태권도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근간이 되는 동시에 21세기 세계태권도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태반이자 구심점이 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2. 연구범위

본 연구는 태권도 예식 개발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다. 다만, 연구기간이 2009년 9월부터 동년 12월까지 불과 4개월이란 매우 짧은 시간 내에서 진행된다. 또한 예산의 여건에 맞춰 최소의 전문가로 연구진을 구성하였다. 아울러 세계적인 태권도 예식개발을 목표로 삼으면서도 현실여건상 부득이 해외 현지조사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수집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과제를 수행했음을 미리 밝혀둔다.



그림 2 태권도 예식의 연구범위

<그림 2>와 같이 태권도 예식의 연구범위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하여 살펴 볼 수 있다.

우선, 본고에서는 태권도 예식 개발을 위한 1차 작업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태권도 예식개발을 위한 현황 분석을 통한 예식 개발의 컨셉과 개발방향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러한 연구는 향후 이어지게 될 태권도 예식의 시안 마련이라는 2차 사업을 위한 기본 설계의 의미를 갖는다.

둘째, 본고에서는 태권도 예식 개발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되,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태권도 예식의 현황분석을 비롯하여 예식, 복식, 음악, 공간, 이벤트 등 6개 분야에 한정하였다. 향후 태권도 예식 개발은 이 분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하는 작업 이외에도 새로운 분야의 추가가 요구된다.

셋째, 태권도 예식을 개발하되 국기원에서 추진하는 예식에 한정하였다. 현재 국기원에서 진행하는 태권도 심사는 국기원을 비롯한 각 시도 및 지자체 단위의 단체에서 주관하여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모두 담기에는 시간과 여건상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기원에서 주관하는 태권도 심사에 한정하되, 향후 입문예식과 수

여예식의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표 1 태권도 예식 개발의 연구대상

구분 행사	대상	주관기관	성격	개발방향
승품·단 심사	6, 7, 8, 9단	국기원	고단자심사	심사예식
사범지도자연수	1, 2, 3급	국기원	사범입문	입문예식
수여식	9단	국기원	최고명예	수여예식

<표 1>과 같이, 현행 국기원에서 시행하는 각종 심사와 연수, 그리고 수여식은 나름대로 태권도 예식 개발을 위한 전제가 되고 있다. 다만, 지금까지 이러한 행사들이 태권도의 예식으로 시행되기 보다는 하나의 행사로 시행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후술 하다시피, 태권도 예식 개발은 바로 이러한 행사를 예식으로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방향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기원에서 주관하는 6~9단의 승단심사를 심사예식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때 6, 7, 8, 9단의 승단은 태권도 인에게는 최고의 승단과정이자 절차로서 이를 권위있고 품격있는 심사예식으로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다음으로는 현재 국기원에서 주관하는 1, 2, 3급 사범지도자연수 후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에 이를 입문예식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6단에서 9단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사범지도자 연수과정에서는 연수 결과에 따라 사범지도자로 입문하게 된다. 다만, 현재의 사범지도자 연수의 결과로는 사범지도자 자격증을 받는 것이 아닌 만큼, 자격증을 받은 후의 예식을 별도로 입문예식으로 개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현재 1년에 4차례 국기원장실에서 시행하는 9단 수여식을 확대·발전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본고에서는 태권도 심사예식 이외에 수여예식과 입문예식 개발을 위한 기본 계획의 방향성을 수립하는 것을 연구범위로 삼는다. 태권도 예식 개발은 태권도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체계적이고도 종합적으로 접근해야할 만큼, 차분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태권도예식 개발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 제정과 매뉴얼, 그리고 공간, 복식, 음악, 이벤트 디자인 시안 등은 추후 2차 개발 작업을 통하여 제시하게 될 것이다.

3. 연구방향 및 방법

태권도 예식이란 태권도 입문예식, 심사예식, 수여예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현재 국기원에서 마련한 예식 규정은 심사예식에 한정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심사예식에 초점을 맞추되, 향후 입문예식과 수여예식의 개발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태권도 예식은 태권도 역사 정립을 비롯하여 태권도 정신, 철학, 기술 등 정체성 확립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 같은 연구를 토대로 태권도 예식의 절차와 동선, 그리고 예법과 예절 규범 등의 정비가 뒤따라야 한다. 그 후에 태권도 복식과 음악, 공간, 이벤트 등의 다양한 분야가 연구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의 선행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그렇다고 그러한 선결 과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예식개발을 무작정 기다린다는 것은 요원한 일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태권도 예식과 관련된 예식, 복식, 음악, 공간, 이벤트 분야를 중심으로 먼저 전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삼는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태권도 예식 개발을 위한 기본 계획을 세우기 위해 크게 6가지 분야로 구분하여 연구방향 및 방법을 세우고자 하였다. 태권도 예식 개발을 위한 기본 계획을 세우기 위해 크게 6가지 분야로 구분하여 연구방향 및 방법을 세우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태권도 예식개발 연구책임을 맡은 심승구 교수는 TF팀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표 2 태권도 예식 개발 TF팀

구분	성명	소속/지위	역할
책임 연구원	심승구	한국체육대학교 교양학부교수 한국무예연구소장	예식 및 총괄
공동 연구원	권준원	동아방송대학교 연예산업과 교수	이벤트
	박가영	전 호남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교수	복식
	박필제	가천의과대학교 산업디자인과 교수	디자인
	송형석	계명대학교 태권도학과 교수	현황 분석
	원일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음악과 교수	음악
보조 연구원	김민옥	한국외국어대 문화콘텐츠학과 박사수료	연구지원
	김중수	한국체육대학교 체육학과 석사	조사/교열
	이상훈	한국외국어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석사	조사/교열
	최여미	한국체육대학교 체육학과 석사	행정/편집



그림 3 태권도 예식의 연구 분야

우선, 태권도 예식 개발을 위해서는 먼저 국내외 태권도 예식의 현황에 따른 예식의 개발 방향을 세우는 일이다. 둘째는 태권도 예식을 위한 복식과 관련한 현황조사와 태권도 예복제작의 방향을 세우는 일이다. 셋째는 태권도 예식을 위한 음악과 관련한 현황조사와 태권도 음악개발의 방향을 세우는 일이다. 넷째는 태권도 예식의 공간인 국기원 경기장 공간의 현황조사와 함께 공간의 개선방향을 세우는 일이다. 다섯째는 태권도 예식의 이벤트와 관련한 현황조사와 태권도 이벤트 개발의 방향을 세우는 일이다.



그림 4 태권도 예식의 연구 방법

<그림 4>와 같이, 태권도 예식의 연구방법은 크게 5가지로 구분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태권도 정체성에 맞는 의전기반을 구축한다. 한국의 무예요, 한국의 스포츠이자, 한국의 문화로서 태권도가 갖는 정체성을 예식에 반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한국의 새로운 예식문화를 제시하는 한편, 글로벌 예식문화로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태권도 예식, 복식, 음악, 디자인, 이벤트, 예식과 관련한 국내외 사례조사 등에 대한 현황분석을 기초로 한다. 다만, 국외 조사의 경우에는 해외조사의 불가능으로 인해

부득이 국내에서 조사할 수 있는 웹사이트와 비디오 등에 의거하여 진행한다.

셋째, 태권도 예식의 품위와 상징성 및 실용성에 기반한 실행계획을 구축한다. 예식은 단순히 행사의식을 만드는데 있지 않고, 현장에서 활용성을 본질로 한다. 따라서 태권도 예식이 현장에 접목되었을 때 격조와 품위를 갖추면서도 상징성과 실용성을 아우르고자 한다.

넷째, 태권도 관련 전문가는 물론 개발방향에 대한 예식을 비롯하여 복식, 음악, 디자인, 이벤트, 사례조사 등에 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심도있는 토론과 자문을 통해 태권도 예식 개발의 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다섯째,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예식의 기본방안 및 실행파일을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만, 현실적인 여건상 본 연구에서는 실행파일의 작성에 앞서 예식의 기본 방안과 컨셉 디자인을 제시하는 것에 그치고자 한다. 이러한 내용은 추후 실행파일을 만드는데 이론적 기초가 될 뿐 아니라 전체적인 윤곽을 이해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구 분	2009년							
	9월		10월		11월		12월	
1. 연구진 구성								
2. 기초조사/요구분석								
3. 연구범위/방법설정								
4. 현지조사 및 방문							5(토)	
5. 데이터 분석								
6. 개념정리/의전체계 수립								
7. 예식/ 음악/복식/디자인 컨셉 및 제안								
8. 토론회 (1차 개발)							4(금)	
9. 최종 프리젠테이션							16(금)	
10. 결과보고서								30(수)

그림 5 연구일정표 (2009년 9월~12월)

위의 표와 같이, 본 연구는 연구기간이 모두 4개월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철저한 일정관리 속에서 연구결과를 얻어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위해 모두 4개월간에 걸쳐 수행하되, 연구진 구성, 기초조사 및 요구분석, 연구범위 및 방법 설정, 현지조사 및 방문, 데이터 분석, 개념정리와 의전체계 수립, 예식/음악/복식/공간/이벤트 컨셉 제안, 전문가 자문 및 토론회, 최종 프p젠테이션의 내용으로 연구절차를 구분하였다. 이를 위해 6차례에 걸친 태권도 예식개발 TF팀 회의, 4차례의 국기원 현장조사, 2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치도록 하였다.

II. 태권도예식의 개념과 의의

1. 태권도예식의 개념과 범주

태권도는 한국의 무예이자 세계적인 스포츠다. 특히 태권도의 수련을 통해 심신을 연마하여 자아완성의 경지인 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 수련과정에서 철저한 예(禮)를 필요로 한다. 예를 통해서만이 수련의 과정이 바른 길로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태권도는 흔히 ‘예시예종(禮始禮終)’이라는 개념에서 알 수 있듯이, 예로써 시작하여 예로써 마무리하는 수련문화를 갖추고 있다. 태권도에서의 예란 이처럼 태권도 수련과정의 전 과정을 포괄하는 동시에 도에 이르는 실천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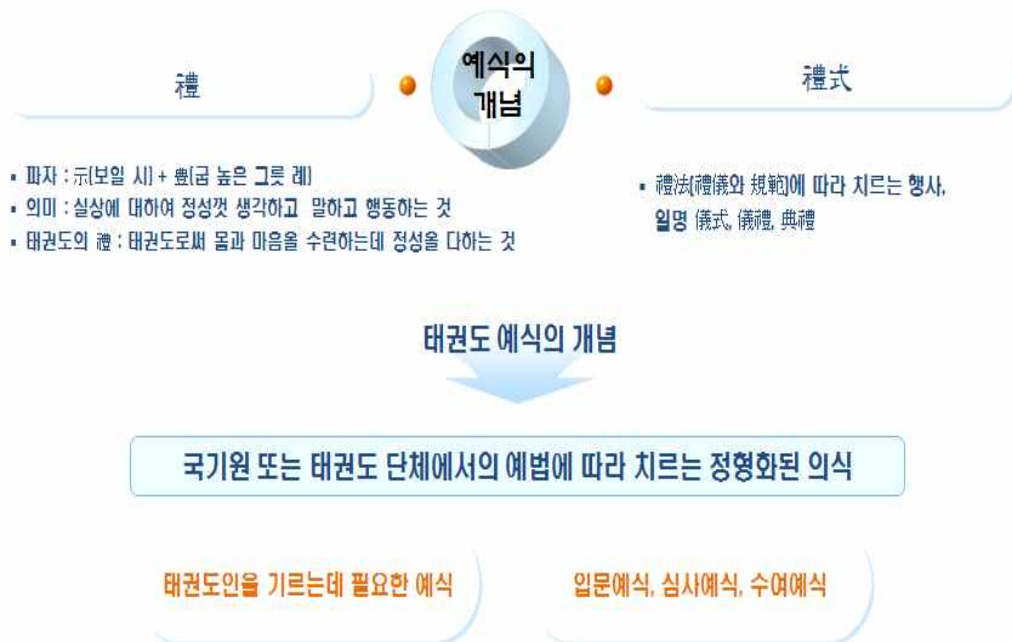


그림 5 태권도 예식의 개념

원래 예(禮)란 본래 보일 시(示)와 높은 그릇 레(豊)로 이루어진 글자다. 따라서 예의 의미란 곧 실상에 대하여 정성껏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 볼 때, 태권도의 예란 곧 태권도로써 몸과 마음을 수련하는데 정성을 다하는 마음 자세와 말, 그리고 행동양식을 말한다. 태권도의 예식은 바로 그러한 예 또는 예법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의식이다. 이때 예법은 예의로써 지켜야 할 규범을 뜻하며, 오늘날은 예식 규정으로 정해진다.

태권도 예식이란 국기원 또는 관련 단체에서 예법에 따라 시행하는 정형화된 의식이다. 다시 말하면 태권도 예식은 국기원에서 정한 예식 규정에 따라 치르는 의전행사를 뜻한다. 태권도인을 길러내는데 필요한 예식인 동시에 태권도의 수련과정에서 반드시 만나는

의식이 곧 태권도 예식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태권도는 무예를 통하여 몸과 마음을 닦는 방법이자 길이다. 누구나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하면 수련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계속되는 통과의례를 거치게 된다. 여기서 경험하는 통과의례가 바로 태권도 예식이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태권도 예식은 기본적으로 태권도를 배우는 과정에서 입문절차와 심사절차를 비롯한 다양한 의식절차 내지 행사를 경험한다.

결국 태권도 예식은 태권도를 수련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입문절차, 승품단을 비롯한 각종 심사절차, 그리고 수련의 결과로 얻어지는 각종 수여절차 등을 포괄한다. 그러므로 태권도 예식이란 곧 '태권도를 수련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입문 예식, 심사 예식, 수여 예식 등을 포괄하는 의식체계' 라고 말할 수 있다.

2. 태권도예식 개발의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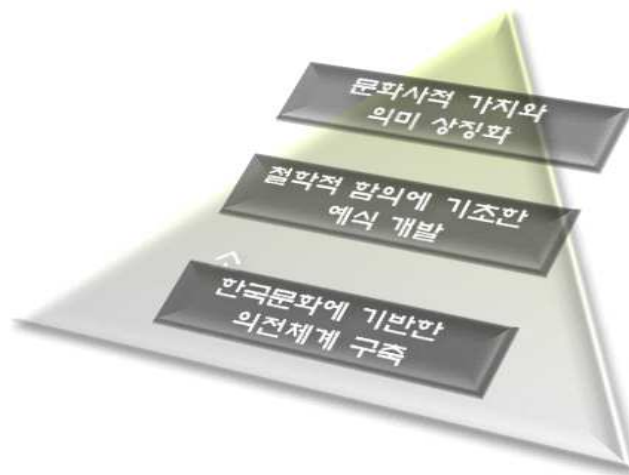


그림 6 태권도 예식개발의 연구방향

<그림 6>과 같이, 태권도 예식 개발과 관련한 연구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첫째 한국문화에 기반한 태권도 예식체계를 구축한다. 이점은 기본적으로 태권도가 한국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전통문화 가운데 무예 문화에 토대하면서도 동시에 세계 문화의 보편적 가치를 아우르는 예식을 지향하고자 한다.

둘째, 철학적 함의에 기초한 예식개발이다. 이는 태권도 예식개발이 분명한 철학적 기초위에서 방향, 공간, 용어, 예법, 절차, 행위 등을 구조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태

권도의 정신과 철학을 담은 예식을 개발함으로써, 향후 태권도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데 기반을 삼고자 한다.

셋째, 현재 태권도가 갖는 문명사적 가치와 의미를 담은 상징화이다. 태권도는 단순한 한국의 무예이자 스포츠를 넘어 인류 전체의 몸 기르기 문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보편적 가치와 이상을 한국적 개성에 접목시켜 예식을 개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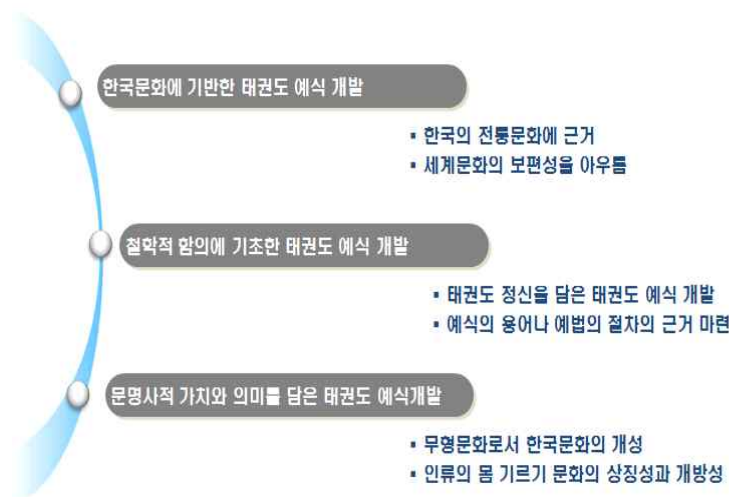


그림 7 태권도 예식 개발의 개념

결국 태권도는 한국 무술의 꽃으로서 한국문화의 개성을 담지한 대표적인 무형문화로서 인류의 몸 기르기 문화를 선도하는데 중요한 견인차가 되고 있다. 이때 몸 기르기는 심신 수련을 통해 얻어지는 자아완성의 과정이다. 태권도 예식은 그 출발점이자 그 과정이요, 마지막 최종점을 담아내는 그릇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3. 태권도예식 개발의 의의

그동안 국기원에서 태권도 심사, 연수, 단증 수여행사는 있었지만, 제대로 갖추어진 태권도 예식은 없었다. 실제로 통일된 태권도 예식이 마련되지 않아 태권도인의 공동체 의식이나 일체감을 조성하는데 어려움이 뒤따랐다. 그런 상황 속에서 태권도 예식 개발의 의의를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몇 가지로 구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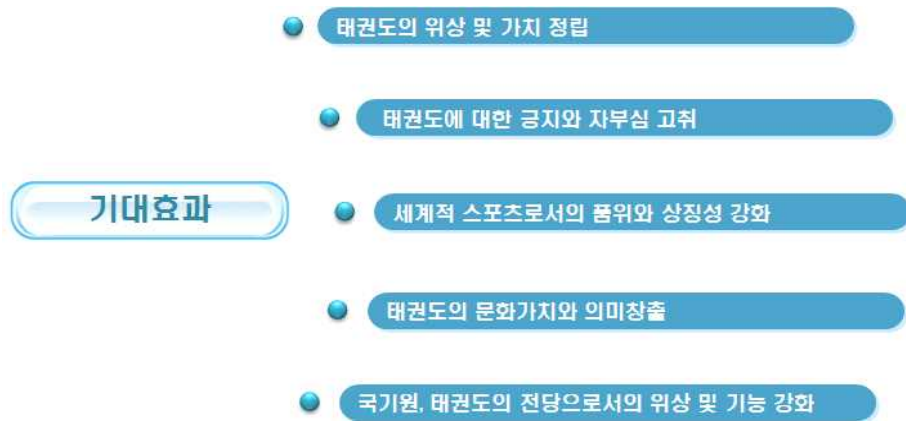


그림 10 태권도 개발의 의의 및 기대효과

첫째, 세계스포츠로서의 태권도 정체성 확립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올림픽 종목인 태권도가 그 위상에 걸 맞는 예식의 확보는 향후 태권도의 가치와 의미를 더욱 확장시켜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둘째, 태권도 예식 개발은 세계태권도의 산실인 국기원의 위상과 역할을 크게 강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태권도 예식의 개발은 국기원이 향후 태권도 공동체를 형성하는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셋째, 태권도의 상징예식을 통한 태권도인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나아가 국민들에게도 한국의 대표 브랜드인 태권도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태권도의 재인식에도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한다.

넷째, 태권도 예식을 통하여 심사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은 물론 승품·단 심사의 권위가 확보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는 동시에 태권도의 단증이나 자격증의 권위를 세우는데 일정하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태권도 예식을 마련하되 향후 통일된 심사, 입문, 수여 예식을 통하여 태권도인들의 단합과 일체감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리라고 생각한다.

여섯째, 품격있는 예식문화의 체험을 통하여 태권도인의 예절교육의 함양은 물론 성숙한 태권도인으로서의 자세를 갖추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일곱째, 태권도 예식을 통하여 참여자는 물론 가족들이 참여한 가운데 태권도인들의 축제로 승화시킬 수 있다.

여덟째, 태권도 예식의 정례화 내지 상설화를 통해 국내외 관광객이 국기원을 방문하여 태권도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결국 태권도 예식 개발은 태권도의 정체성 확립은 물론 태권도의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제고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이는 21세기 태권도가 새롭게 비상하는 든든한 기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III. 태권도 예식개발의 현황 분석

1. 태권도예식의 현황 분석

1) 국기원 태권도예식의 현황 분석

가. 고단자 승단심사(6, 7단)

가) 개요

- 심사시기 : 년 4회 (3, 6, 9, 12월)
- 심사장소 : 국기원 경기장
- 심사내용 : 실기 - 품새, 겨루기, 격파 / 이론 - 논문
- 주관부서 : 사무처 전산팀
- 참여인원 및 역할
 - 응심자 - 192명 (6단 : 127명, 7단 : 65명 / '09 3차 기준)
 - 심사위원 - 13명 (품새 5명, 겨루기 5명, 격파 3명)
 - 진행요원 - 15명 (논문접수 2명, 대조 2명, 품새 3명, 겨루기 3명, 격파 5명)
 - 국기원 임원 - 6명 (원장, 부원장, 총무이사, 사무처장, 연수처장)
 - 감독관 - 3명 (6~9단 심사장 순환감독)
 - 심사위원 의전팀 - 5명 (심사위원 안내 3명, 심사위원 영접 2명)
 - 의무원 - 1명
 - 기타 - 격파물 대여업체 직원 2명



그림 11 고단자 승단심사(6, 7단) 배치도



그림 12 고단자 승단심사 경기장 모습

나) 배치

(1) 사물배치

(가) 개회식 사물배치

구분	개수	내용	위치
마이크 및 스탠드	2세트	단상용 1세트, 사회자용 1세트	단상용 : 단상 위 배치 사회자용 : 단상 중심으로 북쪽 배치
단상	1개		경기장 가운데 겨루기 심사장 밖 상단 위치
스피커	20개	동6개, 서6개, 남4개, 북4개	스피커 1개는 귀빈석 내 오른쪽 모서리 쪽 부착 나머지 스피커는 기둥 벽 상단 부착
태극기	1개		동쪽 현관 위 벽면에 배치

(나) 심사 사물 배치

구분	개수	내용	위치
마이크 및 스탠드	1세트	단상용 1세트	단상 위 배치
단상	1개		겨루기경기장 밖 상단 서쪽 벽면에 배치
테이블 및 의자	18세트	심사위원용 13세트, 서류대조 2세트, 격파물 조립대 2세트, 의무용 1세트	심사위원용 : 품새심사장 밖 상단에 5석 배치 겨루기심사장 밖 상단에 5석 배치 격파심사장 밖 상단에 3석 배치 서류대조석 : 품새 심사장 밖 하단 북쪽에 배치 격파물조립대 : 격파심사장 밖 하단 북쪽에 배치 의무석 : 격파심사장 밖 상단 벽면 쪽에 배치
테이블 덮개	13장	심사위원석 용 13장	심사위원용 테이블 위에 배치
보호장비	10세트	호구, 머리보호대, 샷보호대	겨루기경기장 밖 하단에 배치
수험표	192개	응시생 수에 따름	서류대조석 위에 위치
격파물	30개	벽돌 10개 송판 20개	격파경기장 밖 하단에 배치
심사위원 채점표 및 필기도구	13세트		심사위원용 테이블 위에 배치

(2) 참여자 위치

(가) 개회식 배치



그림 13 국기원장 인사말



그림 14 개회식 모습

구분	방향	내용
응시생	남→북	경기장에 6단→7단→8단→9단 형태로 남녀구분없이 배열
원장		단상 바로 뒤에 위치
심사위원 및 임원	원장→남	부원장 등 임원, 심사위원이 일렬로 배치
진행요원	원장→북	진행요원이 일렬로 배치
직원	남→북	특별한 순서 없이 주요인사 및 관계자 뒤에 일렬로 배치

(나) 심사 배치



그림 15 6, 7단 승단심사 심사위원 배치



그림 16 6, 7단 품새 심사



그림 17 6, 7단 겨루기 심사



그림 18 6, 7단 격파 심사

구분	분류	내용	
응시생	심사 전 대기	경기장 뒤편 서류대조석 앞에 정렬	
	품새심사 대기	6열 중대로 품새심사장 뒤편에 대기	
	겨루기심사 대기	2명 1조로 6열 중대로 겨루기심사장 뒤편에 대기	
	격파심사 대기	격파심사장 뒤편에서 대기하다가 한 줄로 경기장 북쪽 외곽으로 이동하여 대기	
진행요원	서류대조	2명이 서류대조석에 대기	
	품새심사	입·퇴장담당	1명이 경기장 밖 하단에 대기
		품새진행담당	1명이 경기장 남쪽 외곽 중단에 대기
		대기자 안내담당	1명이 대기자 사이에 대기
	겨루기심사	입·퇴장담당	1명이 경기장 밖 하단에 대기
		겨루기 진행담당	1명이 겨루기심사경기장 내 하단에 심사위원석을 향해 위치
		대기자안내와 보호대관리담당	1명이 대기자들 옆에서 대기
	격파심사	손격파 진행담당	2명이 격파심사장 밖 북쪽에 대기
		발격파 진행담당	1명이 격파심사장 밖 북쪽에 대기
		대기자 안내담당	1명이 격파심사장 내 하단에 대기
		대기자 안내담당	1명이 격파심사장 밖 하단에 대기
심사위원	품새	품새심사장 밖 상단에 5명 배치	
	겨루기	겨루기심사장 밖 상단에 5명 배치	
	격파	격파심사장 밖 상단에 3명 배치	
의무원		격파심사장 밖 상단 벽면 쪽에 배치	
기타		격파물 대여업체 직원 2명이 격파심사장 밖 하단 북쪽에 배치	

다) 절차

(1) 품새교육



그림 19 6, 7단 품새교육

순서	시간	내용	비고	문제점
논문접수	~08:00	응시자들이 국기원에 도착하면 북쪽현관에 논문 접수		
환복	~08:00	도복을 강의실이나 주차장에서 환복	여자탈의실은 항상 개방되어 있어서 이용가능하나, 남자 탈의실은 개방하지 않음	
응시생 집결	~08:00	6, 7단 응시자 경기장 입장		
품새교육 실시	08:00 ~09:50	품새교육강사가 입장하여 품새교육 실시		
위촉장 수여식	09:30 ~09:50	한편, 제2강의실에서 심사위원 위촉장 수여식 및 고단자 심사 응시자 현황보고 실시		

(2) 개회식



그림 20 개회식 모습

순서	시간	내용	비고	문제점
응시생 집결	09:50 ~10:00	6, 7단 응시생 경기장 정렬	좌→우 방향으로 6단→7단→8단→9단 순서로 정렬한다.	
관계자 입장	09:50 ~10:00	안내방송 후 진행요원, 국기원 직원, 심사위원 경기장으로 입장	심사위원 : 남동출입구 직원 : 북서출입구	
내빈 및 주요인사	09:50 ~10:00	예식 준비 완료 후 원장과 부원장 등 주요인사 입장	원장이 행사에 참여할 경우에는 남	

입장			서출입구를 통해 입장하나, 원장이 불참할 경우 부원장 등은 다른 출입구를 통해 입장함. 남서출입구는 원장이 경기장에 입장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상시 폐쇄되어 있음.	
개회식	개회선언	10:00 ~10:15	“지금으로부터 0000년도 0차 고단자 심사대회 개최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		“국민의례가 있습니다. 내빈께서는 국기를 향해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응심자뒤로돌아” → “국기에 대하여 경례” → “바로” → “응심자뒤로돌아”	
	인사말		“다음은 000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습니다.” “차렷!경례!” (9단대표)	
	주지사향		“다음은 기술전문위원회 임춘길 의장께서 심사에 대한 주지사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차렷!경례!” (9단대표)	
	내빈 및 심사위원과 진행요원 소개		“다음은 금번심사를 위해 참석하신 심사평가위원님의 소개가 있습니다. 소개는 특별한 순서 없이 소개됨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원장, 총무이사, 심사위원...사무처장, 연수처장, 심사진행요원)	
	폐회안내		“이것으로 0000년 0차 고단자 심사 개최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각 단별 지정 품새 추첨 예정이니 각 단 대표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인사 퇴장		10:15 ~10:20	내빈 및 주요인사는 입장했던 출입구로 퇴장, 진행요원과 심사위원은 담당 위치로 돌아가 자리함.	

(3) 심사



그림 21 겨루기 심사 모습



그림 22 손격파 심사 모습

순서	시간	내용	비고	문제점
품새선정	10:15 ~10:20	각 단 대표가 추천하며 나머지 응 시자는 제자리 앉아 대기		
심사안내	10:15 ~10:20	심사시작 및 공지사항 안내		
신원확인	10:20~	응시생은 서류대조석으로 이동하 여 신원확인	신분증 제출	
품새심사		번호 순서대로 품새심사장 밖 하 단에서 대기하다가 5~6명씩 입장	· 품새심사는 6단 →7단 순서로 진행 · 1조당 3분 소요	
겨루기심사		① 품새심사를 마치고 퇴장하여 겨루기 심사장 대기석으로 이동 ② 준비된 보호대 착용 ③ 겨루기 심사 순서 대기 ④ 2명씩 겨루기심사장에 입장 ⑤ 겨루기심사를 마치고 퇴장 후 보호대 제거	· 보호대 : 청색/적색 · 1조당 1분 소요	
격파심사		① 격파심사장으로 이동하여 대기 ② 2인씩 입장하여 손격파 실시 ③ 2인씩 발격파 실시	· 손격파 (손날, 손등) · 발격파 (옆차기, 뒷차기) · 1인당 30초~1분 소요	
해산	~12:20	격파가 모두 끝나면 서류대조석에 서 신분증을 찾아서 해산	모든 실기심사는 약 12:10에 종료	

나. 고단자 승단심사(8, 9단)

가) 개요

- 심사시기 : 년 4회 (3, 6, 9, 12월)
- 심사장소 : 국기원 경기장
- 심사내용 : 실기 - 품새 / 이론 - 논문, 면접
- 주관부서 : 전산팀
- 참여인원 및 역할
 - 응심자 - 35명 (8단 : 26명, 9단 : 6명 / '09 3차 기준)
 - 심사위원 - 6명 (품새 5명, 면접 1명)
 - 진행요원 - 6명 (논문접수 2명, 대조 2명, 품새 1명, 면접실 인솔 1명)
 - 국기원 임원 - 6명 (원장, 부원장, 총무이사, 사무처장, 연수처장)
 - 감독관 - 3명 (6~9단 심사장 순환감독)
 - 심사위원 의전팀 - 5명 (심사위원 안내 3명, 심사위원 영접 2명)
 - 의무원 - 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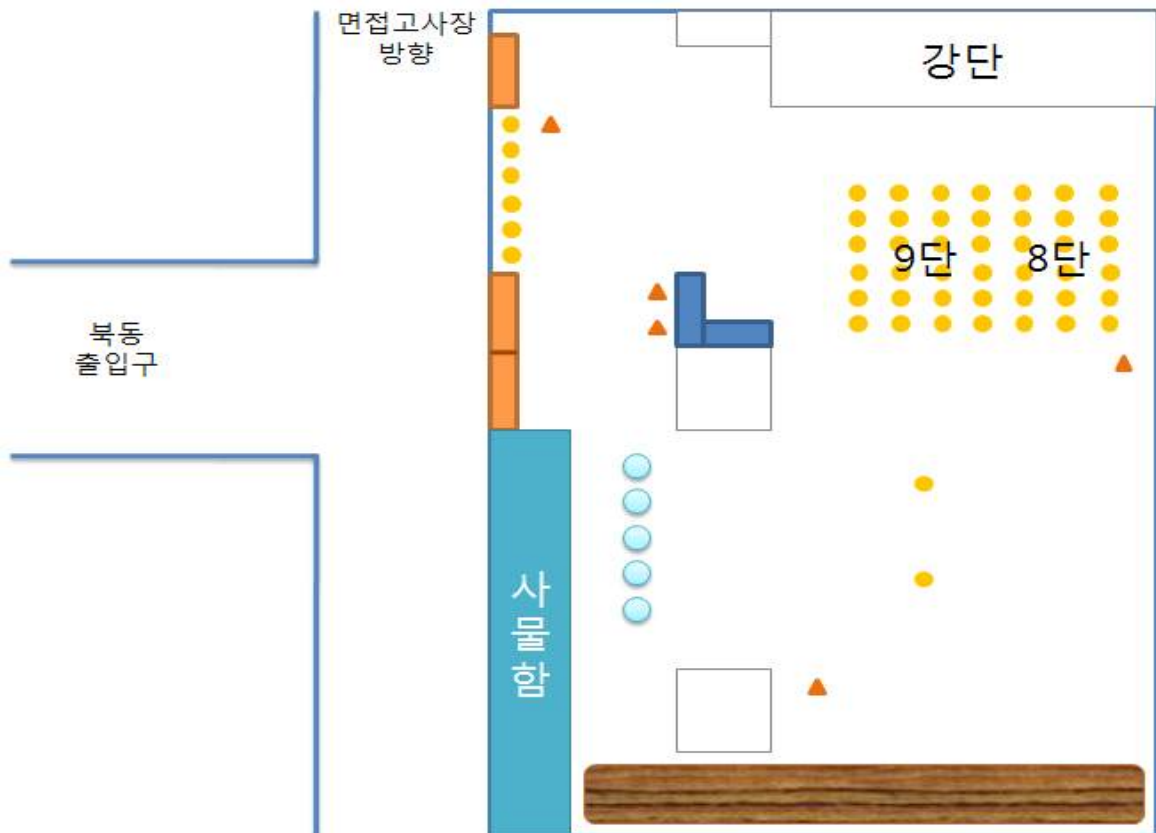


그림 23 고단자 승단심사(8, 9단) 배치도



그림 24 고단자 승단심사(8, 9단) 모습

나) 배치

(1) 사물 배치

(가) 개회식 사물 배치

구분	개수	내용	위치
마이크 및 스탠드	2세트	단상용 1세트, 사회자용 1세트	단상용 : 단상 위 배치 사회자용 : 단상 중심으로 북쪽 배치
단상	1개		경기장 가운데 겨루기 심사장 밖 상단 위치
스피커	4개	오른쪽2개, 왼쪽2개	스피커 2개는 제1강의실 내 오른쪽 벽면에 부착, 나머지 2개는 제1강의실 내 왼쪽 벽면에 부착
태극기	1개		동쪽현관 위 벽면에 배치

(나) 심사 사물 배치

구분	개수	내용	위치
테이블 및 의자	8세트	심사위원용 5세트, 서류대조석 2세트 의무용 1세트	심사위원용 : 제1강의실 내 5석 배치 서류대조석 : 제1강의실 내 출입구쪽 기둥면에 배치 의무석 : 경기장 격파심사장 밖 상단 벽면 쪽에 배치
수험표	35개	응시생 수에 따름	서류대조석 위에 위치
심사위원 채점표 및 필기도구	6세트		5세트(품새) : 제1경기장 내 심사위원석 위에 배치 1세트(면접) : 부원장실 내 배치

(2) 참여자 위치

(가) 개회식 배치



그림 25 개회식 모습(1)



그림 26 개회식 모습(2)

구분	방향	내용
응시생	남→북	경기장에 6단→7단→8단→9단 형태로 남녀구분없이 배열
원장		단상 바로 뒤에 위치
심사위원 및 임원	원장→남	부원장 등 임원, 심사위원이 일렬로 배치
진행요원	원장→북	진행요원이 일렬로 배치
직원	남→북	특별한 순서 없이 주요인사 및 관계자 뒤에 일렬로 배치

(나) 심사 배치

구분	분류	내용
응시생	품새심사 대기	제1강의실 내에 8, 9단 응시생들이 품새심사 대기
진행요원	서류대조	2명이 제1강의실 내에 대기
	품새심사	1명이 제1강의실 내에 대기
	면접장 인솔	1명이 제1강의실에 대기
	면접심사	면접심사장인 부원장실 앞에서 대기
심사위원	품새	5명은 제1경기장내 심사석에 위치
	면접	부원장은 부원장실에서 대기
의무원		격파심사장 밖 상단 벽면 쪽에 배치

다) 절차

(1) 품새교육



그림 27 8, 9단 품새교육

순서	시간	내용	비고	문제점
논문접수	~08:00	응시자들이 국기원에 도착하면 북쪽현관에 논문 접수		
환복	~08:00	도복을 강의실이나 주차장에서 환복	여자탈의실은 항상 개방되어 있어서 이용가능하나, 남자 탈의실은 개방하지 않음	
응시생 집결	~08:00	8, 9단 응시자 제1강의실 입장		
품새교육	08:00	품새교육강사가 입장하여 품새교		

실시	~09:50	육 실시		
위촉장 수여식	09:30 ~09:50	한편, 제2강의실에서 심사위원 위촉장 수여식 및 고단자 심사 응심자 현황보고 실시		

(2) 개회식

순서	시간	내용	비고	문제점
응시생 집결	09:50 ~10:00	8,9단 응시생 경기장 정렬	좌→우 방향으로 6단→7단→8단→9단 순서로 정렬한다.	
관계자 입장	09:50 ~10:00	안내방송 후 진행요원, 국기원 직원, 심사위원 경기장으로 입장	심사위원 : 남동출입구 직원 : 북서출입구	
내빈 및 주요인사 입장	09:50 ~10:00	예식 준비 완료 후 원장과 부원장 등 주요인사 입장	원장이 행사에 참여할 경우에는 남서출입구를 통해 입장하나, 원장이 불참할 경우 부원장 등은 다른 출입구를 통해 입장함. 남서출입구는 원장이 경기장에 입장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상시 폐쇄되어 있음.	
개회식	개회 선언	10:00 ~10:15	“지금으로부터 0000년도 0차 고단자 심사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 의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내빈께서는 국기를 향해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응심자뒤로돌아” → “국기에 대하여 경례” → “바로” → “응심자뒤로돌아”	
	인사말		“다음은 000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차렷!경례!” (9단대표)	
	주지사향		“다음은 기술전문위원회 임춘길 의장께서 심사에 대한 주지사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차렷!경례!” (9단대표)	
	내빈 및 심사위원과 진행요원		“다음은 금번심사를 위해 참석하신 심사평가위원님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소개는 특별한	

	소개		순서 없이 소개됨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원장, 총무이사, 심사위원... 사무처장, 연수처장, 심사진행요원)		
	폐회 안내		“이것으로 0000년 0차 고단자 심사 개최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각 단별 지정 품새 추첨 예정이니 각 단 대표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인사 퇴장		10:15 ~10:20	내빈 및 주요인사는 입장했던 출입구로 퇴장, 진행요원과 심사위원은 담당 위치로 돌아가 자리함.		

(3) 심사



그림 28 8, 9단 심사위원



그림 29 8, 9단 서류대조



그림 30 8, 9단 면접심사 대기



그림 31 8, 9단 면접심사 모습

순서	시간	내용	비고	문제점
품새 선정	10:15 ~10:20	각 단 대표가 추천하며 나머지 응시자는 제자리 앉아 대기		
심사 안내		심사시작 및 공지사항 안내		
제1강의실로 이동		8, 9단 응시생 제1강의실로 이동	심사위원과 진행요원은 미리 입장하여 대기	
신원확인		응시생은 제1강의실 내 서류대조석에서 신원확인	신분증 제출	
품새심사	10:20~	2~3명씩 품새심사 참여	· 품새심사는 8단 → 9단 순서로 진행 · 1조당 5분 소요 · 응시생 인원예 따라 조 편성 인원이 달라짐	
심사 후 대기		품새심사를 마치고 자리에 돌아와 대기		
면접고사장으로 이동		심사 후 대기인원이 5~6명이 되면, 인솔자의 안내에 따라 부원장실(면접고사장)으로 이동		
면접심사		5~6명이 면접고사장으로 한 번에 입장하여 면접심사에 참여	· 1조당 10~15분 소요	
해산	~11:35	면접심사를 마치면 서류대조석에서 신분증을 찾아서 해산	면접을 포함한 모든 심사는 약 11:35에 종료	

다. 제 1·2급 사범지도자 연수

가) 개요

국내 1·2급 사범 지도자 연수는 1년에 1회로, 2009년에는 응심자 총 113명을 대상으로 11월 2일 월요일부터 4일 수요일까지 3일간 진행되었다. 1·2급 사범지도자 연수는 2급 사범은 6단 이상, 1급 사범은 8단 이상의 단증을 소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국내 사범은 크게 3급 사범지도자와 1·2급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국기원에 연수 및 심사, 수료 절차는 동일하게 진행된다. 다만, 1·2급 사범지도자는 고단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3급 사범지도자 심사 및 수료예식보다는 응심자의 권위를 고려한 형태로 진행되었다.

• 명 칭 : 제 155기 태권도 3급 사범지도자 연수과정

• 시 기 : 2009. 11. 2 ~ 11. 4 (3일간)

• 과 정 :

입소 - 11월 2일 08:00

연수 - 11월 2일 ~ 11월 4일

심사 · 수료식 - 11월 4일 14:30 ~ 17:00

수여 - 별도의 수여예식 없음, 1·2급 사범지도자 자격증은 각 시도협회에서 신분확인 후 나누어 줌



그림 32 제1, 2급 사범지도자 품새심사 배치도

대상 구분	대상 명칭	항목	내용			비고
사범지도자 연수	1·2급	연수 기간	년1회 3일(1일 8시간)간 실시			
		연수 장소	국기원 경기장(품새) 및 제1강의실(필기)			
		연수 과정	- 첫째날 : 1) ~ 6) - 둘째날 : 2) ~ 6) - 셋째날 : 2) ~ 4) & 15:10부터 실기심사 실시 후 수료식 1) 08:30~09:00 : 인원점검 및 스트레칭 2) 09:00~10:20 : 1~2교시 3) 10:40~12:00 : 3~4교시 4) 13:30~14:50 : 5~6교시 5) 15:10~16:30 : 7~8교시 6) 16:30~ : 전달 및 자율학습			
		지참물	규정된 도복, 띠, 태권도화, 필기도구			
		심사 내용	실기:품새/이론:필기고사			
		주관 부서	지도자 연수원			
		참여인원 및 역할	연수생	113명	1급 : 28명 2급 : 85명 ('09 기준)	
			심사 위원	3명	품새 3명	
			진행 요원	6명	필기고사장 2곳에 각 2명/사회자(품 새 교육강사)1명/ 구령자1명	
			국기원 임원	2명	부원장1명/연수원 팀장1명	
			감독관	2명	연수원처장1명/연 수원차장1명	

나) 배치

(1) 사물 배치

(가) 개강식 사물 배치

구분	개수	내용	위치
마이크 및 스탠드	2세트	단상용 1세트, 사회자용 1세트	단상용 : 단상 위 배치 사회자용 : 단상 중심으로 북쪽 배치
의자	7개	국기원 임직원용	단상을 중심으로 남쪽으로 떨어져 배치
단상	1개		경기장 가운데 심사장 밖 상단 위치
스피커	20개	동6개,서6개,남 4개,북4개	스피커 1개는 귀빈석 내 오른쪽 모서리 쪽 부착 나머지 스피커는 기둥 벽 상단 부착
태극기	1개		동쪽 현관 위 벽면에 배치

(나) 심사 사물 배치

구분	개수	내용	위치
테이블 및 의자	5세트	심사위원용 3세트, 감독관용 2세트	심사위원용 : 경기장 품새심사장 밖 상단에 3석 배치 감독관용 : 심사위원석을 기준으로 서남쪽에 배치
마이크 및 스탠드	1세트	구령자용 1세트	구령자용 : 품새경기장 북서쪽 모서리에 배치
테이블 덮개	3장	심사위원석 3장	경기장 내 심사위원석 위에 배치
심사위원 채점표 및 필기도구	3세트		경기장 내 심사위원석 위에 배치

(다) 수료식 사물 배치



그림 33 수료식 사물 배치 모습

구분	개수	내용	위치
마이크 및 스탠드	2세트	단상용 1세트, 사회자용 1세트	단상용 : 단상 위 배치 사회자용 : 단상 중심으로 북쪽 배치
의자	7개	국기원 임직원용	단상을 중심으로 남쪽으로 떨어져 배치
단상	1개		경기장 가운데 겨루기 심사장 밖 상단 위치
상장대	1개		단상과 사회자석 사이에 위치
수료증	113장	연수생 수에 따름	상장대 위에 위치
부상	2개 ('09 기준)	수혜자 수에 따름	상장대 위에 위치
스피커	20개	동6개,서6개, 남4개,북4개	스피커 1개는 귀빈석 내 오른쪽 모서리 쪽 부착 나머지 스피커는 기동 벽 상단 부착
태극기	1개		동쪽현관 위 벽면에 배치

(2) 참여자 위치

(가) 개강식 배치

구분	방향	내용
응시생	남→북	경기장에 단이나 남녀구분없이 정렬
부원장		단상 바로 뒤에 배치
심사위원 및	부원장→남	연수원처장→심사위원→연수원차장→연수원팀장 순으로 배치된 의자

임원		에 대기
사회자		단상 중심으로 북쪽에 배치

(나) 심사 배치



그림 34 1, 2급 사범지도자 심사장 배치

구분	분류	내용
응시생	심사 전 대기(전원)	남쪽 경기장에서 북쪽을 바라보며 정렬
	품새심사대기	12열 중대로 남쪽 경기장에 대기하다가 순서에 따라 6명씩 경기장 서쪽 외곽에서 사전준비하며 대기
진행요원	경기장	품새교육강사 1명이 품새심사장 밖 상단 남서쪽에 배치 구령자 1명이 품새경기장 북서쪽 모서리에 위치
	강의실	강의실마다 2명씩 배치
심사위원	품새	품새심사석에 3명 배치
감독관	경기장	2명이 심사위원석을 기준으로 서남쪽에 배치

(다) 수료식 배치



그림 35 1, 2급 사범지도자 수료식 배치

구분	방향	내용
응시생	남→북	경기장에 단이나 남녀구분없이 정렬
부원장		단상 바로 뒤에 배치
심사위원 및 임원	부원장→남	연수원처장→심사위원→연수원차장→연수원팀장 순으로 배치된 의자에 대기
사회자		단상 중심으로 북쪽에 배치

다) 절차

(1) 개강식

순서	시간	내용	비고	문제점
연수생 집결	~08:30	연수생 경기장 집결		
환복	08:30	담당자가 입장하여 수험표		

			배분 후 강의실과 탈의실에서 도복으로 환복		
연수생 집결 및 스트레칭		~09:00	경기장에 연수생이 집결하여 스트레칭 실시		
오리엔테이션			오리엔테이션 실시 후 20열 중대로 대기		
임직원입장		09:00 ~10:00	연수원처장 이하 임원이 입장	남동출입구	
부원장 입장			예식의 모든 준비 완료 후 부원장 입장	남동출입구	
개강식	개식선언	10:00 ~10:15	“지금부터 제0기 1급 및 00기 2급 사범지도자 연수과정 개강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임직원(내빈)께서는 일어서 국기를 향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뒤로 돌아!→국기에 대하여 경례!→바로, 뒤로 돌아! “임직원(내빈)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소개		“다음은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국기원 임직원(내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답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원부원장 송봉섭님, 연수원처장 오대영님, 연수원차장 이종관님, 연수원팀장 김순이님”		
	개식사		“다음은 송봉섭 부원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전체 차렷!→경례!→열중쉬어!		
	폐식선언		“이상으로 제5기 1급 및 17기 2급 사범지도자 연수과정 개강식을 마치겠습니다. 임직원(내빈)여러분께		

			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차렷!→경례!		
주요인사 퇴장	10:15~		임직원은 들어왔던 출입구로 퇴장 진행요원과 심사위원은 담당 위치로 돌아가 자리한다.		
연수생 퇴장	10:15~		연수생은 경기장에서 퇴장하여 대기하다가 10:40까지 강의실로 입장		

(2) 심사

(가) 필기시험



그림 36 필기시험 모습

순서	시간	내용	비고	문제점
응시생대기	14:00~	강의를 마친 응시생이 강의실에 대기		
진행요원 입장		강의실에 진행요원 입장		
인사		진행요원과 응시생들이 인사함		
심사안내		진행요원이 지시사항 전달		
필기시험		필기시험 실시		

심사위원 퇴장	~15:00	시험 종료 후 진행요원이 퇴장하고 응시생이 퇴장		
---------	--------	----------------------------	--	--

(나) 실기심사



그림 37 품새심사 대기 모습

순서	시간	내용	비고	문제점
응시생 집결	~15:00	연수생이 경기장에 집결		
품새교육실시	15:00 ~15:10	품새교육강사가 입장하여 품새교육 실시		
응시생 대기		품새교육종료 후 남쪽경기장에 응시생 대기		

심사위원 및 감독관 입장	15:10~	심사위원, 감독관, 진행요원 입장	남동출입구	
인사		심사위원 및 감독관과 응시생들이 인사함		
심사안내		감독관이 지정품새 등 지시사항 전달		
심사위원, 감독관, 구령자 이동		심사위원, 감독관, 구령자는 각자의 위치로 이동		
품새심사		응시생은 남쪽경기장에서 앉은 채 대기하다가 4명씩 가운데 품새심사장으로 입장	· 다음 순서의 8명은 기립한 채 대기 · 응시생 심사장 입장인원은 당일 응시생 수에 따라 조절가능	
심사 후 대기		품새심사를 마치면 북쪽경기장에 앉은 채 대기		
심사평		모든 심사가 종료되면 응시생들은 가운데 경기장으로 이동하고 심사위원은 심사평 발표		
심사위원 퇴장	~16:00	응시생과 심사위원은 인사를 나눈 후 심사위원은 퇴장		

(3) 수료식



그림 38 수료식 모습(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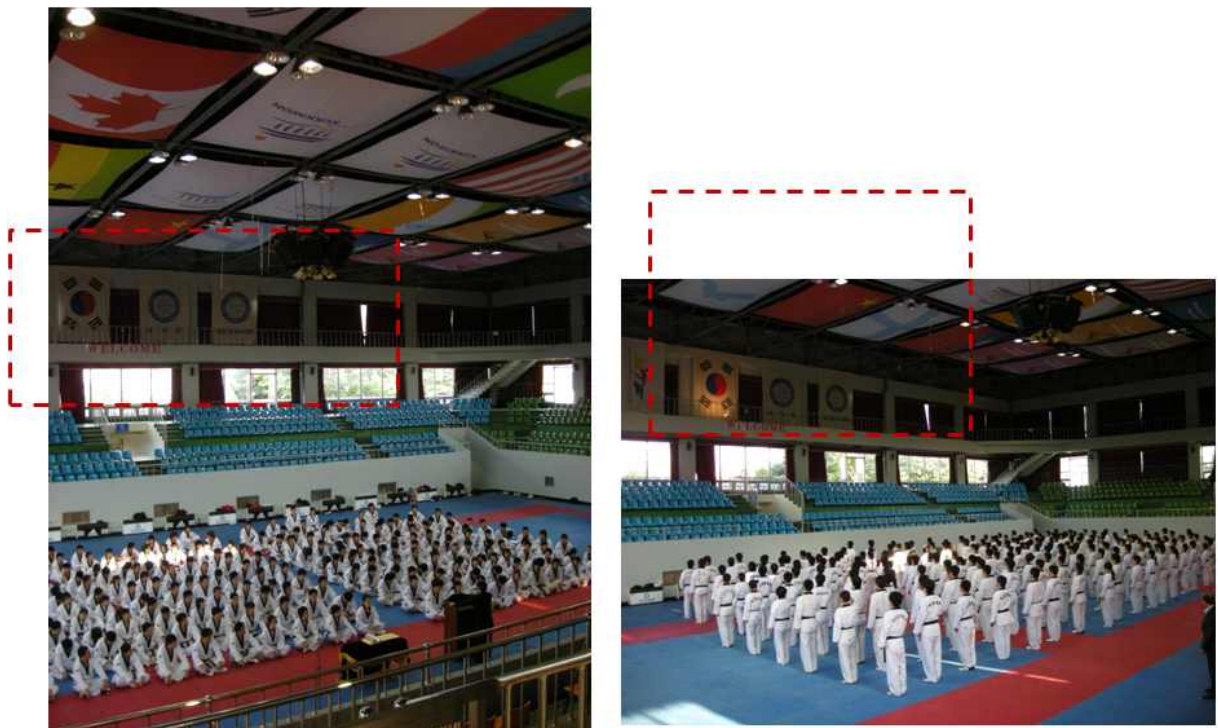


그림 39 수료식 모습(2)

순서		시간	내용	비고	문제점
연수생 집결		16:00~	연수생 경기장 대기	· 실기심사 후 이동없이 대기 · 표창장수여자는 응시생 대열 가장 북쪽에 일렬로 위치	
심사위원, 임직원입장			심사위원과 연수원처장 이하 임원 입장	남동출입구	
부원장 입장			예식의 모든 준비 완료 후 부원장 입장	남동출입구	
수료식	개식선언		“지금부터 제0기 1급 및 00기 2급 사범지도자 연수 과정 수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국민의례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임직원(내빈)께서는 일어서 국기를 향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뒤로 돌아!→국기에 대하여 경례!→바로, 뒤로 돌아! “임직원(내빈)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료증 수여		“다음은 수료증 수여가 있겠습니다. 수료증 수여는 송봉섭 여수원 부원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수료증 대표자 000앞으로!→차렷!경례!→수료증 대독→수료증 수여→차렷!경례!우향우!앞으로!”	수료증 대표는 각 기수 1번이 맡음	
	표창장 수여		“다음은 연수과정에서 솔선수범하고 타의모범을 보인 자에 대한 표창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표창장 수여는 연수원 부원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수상자 000 외 0명 앞으로!→차렷, 경례→표창장 대독→표창장 수여→차렷!		

			경례!우향우!앞으로!”		
	식사		“다음은 송봉섭 부원장님께서 수료사를 하시겠습니다.” 전체 차렷!→경례!→열중쉬어!→수료사→전체 차렷!경례!		
	폐식선언		“이상으로 제5기 1급 및 17기 2급 사범지도자 연수과정 개강식을 마치겠습니다. 임직원(내빈)여러분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차렷!→경례!		
주요인사 퇴장			임직원과 심사위원은 들어왔던 출입구로 퇴장		
연수생 퇴장			연수생은 경기장에서 퇴장하여 강의실로 이동 후 수료증을 받아서 귀가		

라. 제3급 사범지도자 연수

가) 개요

국내 3급 사범 지도자 사범 입문심사는 4~7단을 대상으로 매년 4회 1~2차로 나누어 진행된다. 이번에 조사한 제 155기 국내 태권도 3급 사범지도자 연수 평가 및 수료식으로 2009년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교육받은 제 155기 2차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 명 칭 : 제 155기 태권도 3급 사범지도자 연수과정
- 시 기 : (1차/ 2009. 10.05~09) (2차/ 2009. 10.12~16)
- 주 관 : 국기원 태권도 지도자 연수원
- 대 상 :
 1. 국내 3급사범지도자 심사
 - 1) 실기(품새) 심사 - 경기장
 - 2) 필기 심사 - 강의실
 2. 국내 3급사범지도자 연수 수료예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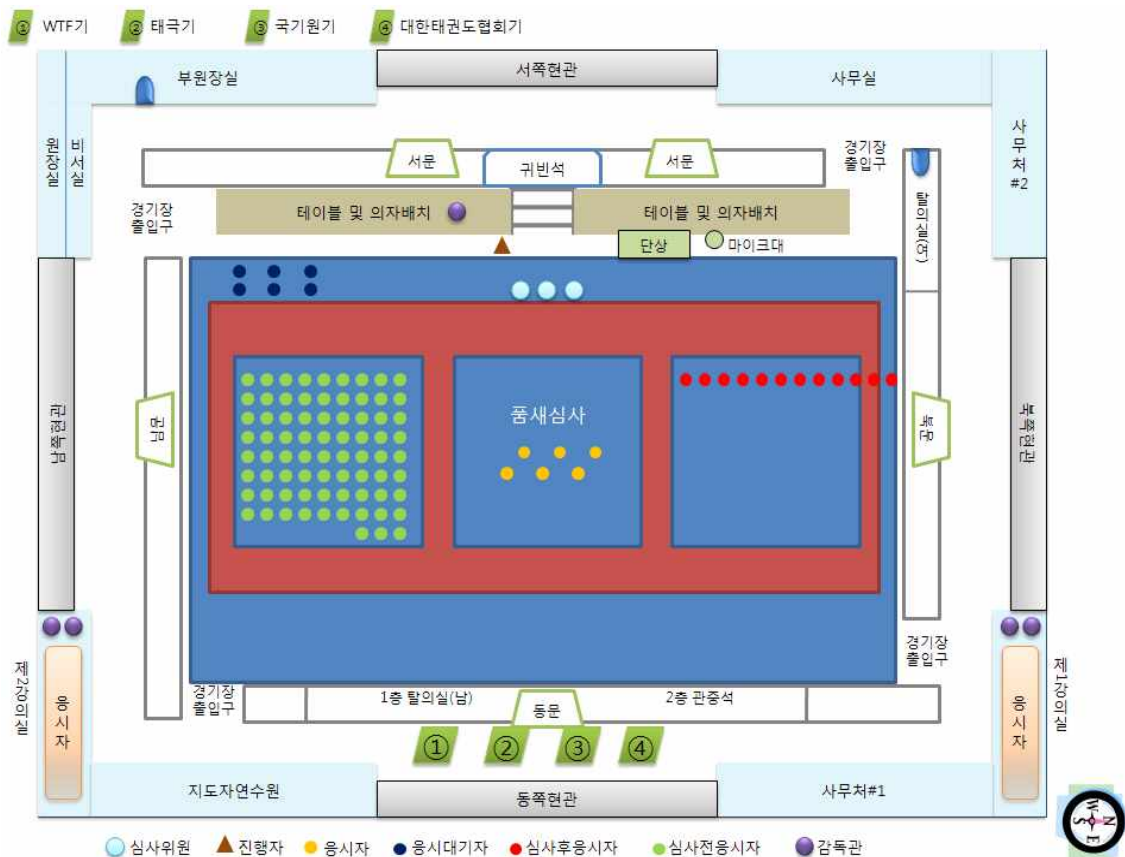


그림 40 제3급 사범지도자 품새심사 배치도

대상 구분	대상 명칭	항목	내용			비고
사범지도자 연수	3급	연수 기간	년6회 5일(1일 8시간)간 실시			3기수 (1차, 2차)
		연수 장소	국기원 경기장(품새) 및 제1강의실(필기)			
		연수 과정	· 첫째날 : 1) ~ 6) · 둘째날 : 2) ~ 6) · 다섯째날 : 2) ~ 4) & 15:10부터 실기심 사 실시 후 수료식 1) 08:30~09:00 : 인원점검 및 스트레칭 2) 09:00~10:20 : 1~2교시 3) 10:40~12:00 : 3~4교시 4) 13:30~14:50 : 5~6교시 5) 15:10~16:30 : 7~8교시 6) 16:30~ : 전달 및 자율학습			
		지참물	규정된 도복, 띠, 태권도화, 필기도구			
		심사 내용	실기:품새/이론:필기고사			
		주관 부서	지도자 연수원			
		참여인원 및 역할	연수생	240명	3급 : 240명 (155기 2차 기준)	
			심사 위원	3명	품새3명	
			진행 요원	5명	필기고사장 2곳에 각 2명/사회자(품 새교육강사)1명	
			국기원 임원	2명	부원장1명/연수원 팀장1명	
			감독관	2명	연수원처장1명/연 수원차장1명	

나) 배치

(1) 사물배치

(가) 개강식 사물 배치

구분	개수	내용	위치
마이크 및 스탠드	2세트	단상용 1세트, 사회자용 1세트	단상용 : 단상 위 배치 사회자용 : 단상 중심으로 북쪽 배치
의자	7개	국기원	단상을 중심으로 남쪽으로 떨어져 배치

		임직원용	
단상	1개		경기장 가운데 심사장 밖 상단 위치
스피커	20개	동6개,서6개,남4개,북4개	스피커 1개는 귀빈석 내 오른쪽 모서리 쪽 부착 나머지 스피커는 기둥 벽 상단 부착
태극기	1개		동쪽 현관 위 벽면에 배치

(나) 심사 사물 배치



그림 41 3급 사범지도자 심사위원석 배치

구분	개수	내용	위치
테이블 및 의자	5세트	심사위원용 3세트, 감독관용 2세트	심사위원용 : 경기장 품새심사장 밖 상단에 3석 배치 감독관용 : 심사위원석을 기준으로 서남쪽에 배치
테이블 덮개	3장	심사위원석 3장	경기장 내 심사위원석 위에 배치
심사위원 채점표 및 필기도구	3세트		경기장 내 심사위원석 위에 배치

(다) 수료식 사물 배치



그림 42 수료식 사물 배치

구분	개수	내용	위치
마이크 및 스탠드	2세트	단상용 1세트, 사회자용 1세트	단상용 : 단상 위 배치 사회자용 : 단상 중심으로 북쪽 배치
의자	7개	국기원 임직원용	단상을 중심으로 남쪽으로 떨어져 배치
단상	1개		경기장 가운데 겨루기 심사장 밖 상단 위치
상장대	1개		단상과 사회자석 사이에 위치
수료증	240장	연수생 수에 따름	상장대 위에 위치
부상	6개 (155기 2차 기준)	수혜자 수에 따름	상장대 위에 위치
스피커	20개	동6개,서6개, 남4개,북4개	스피커 1개는 귀빈석 내 오른쪽 모서리 쪽 부착 나머지 스피커는 기둥 벽 상단 부착
태극기	1개		동쪽현관 위 벽면에 배치

(2) 참여자 위치
(가) 개강식 배치

구분	방향	내용
응시생	남→북	경기장에 단이나 남녀구분없이 정렬
부원장		단상 바로 뒤에 배치
심사위원 및 임원	부원장→남	연수원처장→심사위원→연수원차장→연수원팀장 순으로 배치된 의자에 대기
사회자		단상 중심으로 북쪽에 배치

(나) 심사 배치



그림 43 심사위원 배치



그림 44 응시생 배치

구분	분류	내용
응시생	심사 전 대기(전원)	남쪽 경기장에서 북쪽을 바라보며 정렬
	품새심사 대기	8열 중대로 남쪽 경기장에 대기하다가 순서에 따라 4명씩 경기장 서쪽 외곽에서 사전준비하며 대기
진행요원	경기장	품새교육강사 1명이 품새심사장 밖 상단 남서쪽에 배치
	강의실	강의실마다 2명씩 배치
심사위원	품새	품새심사석에 3명 배치
감독관	경기장	2명이 심사위원석을 기준으로 서남쪽에 배치

(다) 수료식 배치



그림 45 수료식 배치(1)



그림 46 수료식 배치(2)

구분	방향	내용
응시생	남→북	경기장에 단이나 남녀구분없이 정렬
부원장		단상 바로 뒤에 배치
심사위원 및 임원	부원장→남	연수원처장→심사위원→연수원차장→연수원팀장 순으로 배치된 의자에 대기
사회자		단상 중심으로 북쪽에 배치

다) 절차

(1) 개강식

순서	시간	내용	비고	문제점
연수생 집결	~08:30	연수생 경기장 집결		
환복	08:30	담당자가 입장하여 수험표 배분 후 강의실과 탈의실에서 도복으로 환복		
연수생 집결 및 스트레칭	~09:00	경기장에 연수생이 집결하여 스트레칭 실시		
오리엔테이션	09:00	오리엔테이션 실시 후 20열중대로 대기		
임직원입장	~10:00	연수원처장 이하 임원이 입장	남동출입구	

부원장 입장			예식의 모든 준비 완료 후 부원장 입장	남동출입구	
개강식	개식선언	10:00 ~10:15	“지금부터 제0기 0차 3급 사범지도자 연수과정 개강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임직원(내빈)께서는 일어서 국기를 향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뒤로 돌아!→국기에 대하여 경례!→바로, 뒤로돌아! “임직원(내빈)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소개		“다음은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국기원 임직원(내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답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원부원장 송봉섭님, 연수원처장 오대영님, 연수원차장 이종관님, 연수원팀장 김순이님”		
	개식사		“다음은 송봉섭 부원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전체 차렷!→경례!→열중쉬어! →개식사→차렷!→경례!		
	폐식선언		“이상으로 제0기 0차 3급 사범지도자 연수과정 개강식을 마치겠습니다. 임직원(내빈)여러분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차렷!→경례!		
주요인사 퇴장		10:15~	임직원은 들어왔던 출입구로 퇴장 진행요원과 심사위원은 담당 위치로 돌아가 자리함		
연수생 퇴장		10:15~	연수생은 경기장에서 퇴장하여 대기하다가 10:40까지 강의실로 입장		

(2) 심사
(가) 필기시험



그림 47 필기시험(1)



그림 48 필기시험(2)

순서	시간	내용	비고	문제점
응시생 대기	15:00~	수업을 마친 응시생이 강의실에 대기	1조 120명 (두 강의실에 60명씩 나누어 입장)	
진행요원 입장		강의실에 진행요원 입장		
인사		진행요원과 응시생들이 인사함		
심사안내		진행요원이 지시사항 전달		
필기시험		필기시험 실시		
심사위원 퇴장	~16:00	시험 종료 후 진행요원이 퇴장 하고 응시생이 퇴장		

(나) 실기심사



그림 49 품새심사(1)



그림 50 품새교육



그림 51 품새심사(2)

순서	시간	내용	비고	문제점
응시생 집결	~15:00	연수생이 경기장에 집결	2조(120명)	
품새교육 실시	15:00 ~15:10	품새교육강사가 입장하여 품새교육 실시		
응시생 대기		품새교육종료 후 남쪽경기장에 응시생 대기		
심사위원 및 감독관 입장	15:10~	심사위원, 감독관, 진행요원 입장	남동출입구	
인사		심사위원 및 감독관과 응시생들이 인사함		
심사안내		감독관이 지정품새 등 지시사항 전달		
심사위원, 감독관, 구령자 이동		심사위원, 감독관, 구령자는 각자의 위치로 이동		
품새심사		응시생은 남쪽경기장에서 앉은 채 대기하다가 6명씩 가운데 품새심사장으로 입장	· 다음 순서의 6명은 기립한 채 대기 · 응시생 심사장 입장인원은 당일 응시생 수에 따라 조절가능	
심사 후 대기		품새심사를 마치면 북쪽경기장에 앉은 채 대기		
심사평		모든 심사가 종료되면 응시생들은 가운데 경기장으로 이동하고 심사위원은 심사평 발표		
심사위원 퇴장	~16:00	응시생과 심사위원은 인사를 나눈 후 심사위원은 퇴장		

(다) 수료식



그림 52 수료식 모습

순서	시간	내용	비고	문제점
연수생 집결	~16:00	연수생 경기장 집결	· 2조는 실기심사 후 이동없이 대기, 1조는 필기시험 후 경기장 집결 · 표창장수여자는 응시생 대열 가장 북쪽에 일렬로 위치	
심사위원, 임직원입장		심사위원과 연수원처장 이하 임원 입장	남동출입구	
부원장 입장		예식의 모든 준비 완료 후 부원장 입장	남동출입구	
개식 선언		“지금부터 제0기 0차 3급 사범지도자 연수과정 수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수 료 식	국민 의례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임직원(내빈)께서는 일어서 국기를 향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뒤로 돌아!→국기에 대하여 경례!→바로, 뒤로돌아! “임직원(내빈)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료증 수여	“다음은 수료증 수여가 있습니다. 수료증 수여는 송봉섭 여수원 부원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수료증 대표자 000앞으로! →차렷!경례!→수료증 대독→수료증 수여→차렷!경례!우향우!앞으로!”	수료증 대표는 각 기수 1번이 맡음	
	표창장 수여	“다음은 연수과정에서 솔선수범하고 타의모범을 보인 자에 대한 표창장 수여가 있습니다. 표창장 수여는 연수원 부원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수상자 000 외 0명 앞으로!→차렷, 경례→표창장 대독→표창장 수여→차렷!경례!우향우!앞으로!”		
	식사	“다음은 송봉섭 부원장님께서 수료사를 하시겠습니다.” 전체 차렷!→경례!→열중쉬어!→수료사→전체 차렷!경례!		
	폐식 선언	“이상으로 제0기 0차 3급 사범지도자 연수과정 개강식을 마치겠습니다. 임직원(내빈)여러분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차렷!→경례!		
주요인사 퇴장		임직원과 심사위원은 들어왔던 출입구로 퇴장		
연수생 퇴장		연수생은 경기장에서 퇴장하여 강의실로 이동 후 수료증을 받아서 귀가		

마. 9단 수여식

가) 개요

대상구분	대상명칭	항목	내용			비고
고단자 수여식	9단	수여시기	년4회 실시 (9단 심사 3주후 수여일시 결정)			
		수여장소	국기원 원장실			
		주관부서	사무처 전산팀			
		수여절차	· 개식선언 · 수여식 거행 · 단증 수여이후 원장님과 사진 촬영 · 원장님 인사말 · 수여식 종료			
		참여인원 및 역할	회당 응심자	5~10명	차수마다 조금씩 다름	
			진행요원	2명	사무처 직원	
			수여자	1명	국기원장	

2) 설문지 분석

2009년도 태권도예식 개발과 관련하여 태권도인들의 의견을 듣고자 1·2급 사범지도자 필기시험 문제로 예식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물었다. 1급 사범지도자 응시자 답안 27장과 2급 사범지도자 답안 77장, 총 104장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국기원에서 시험문제를 아래와 같이 제시함에 따라 응시자들의 의견이 다음 두 가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 1·2급 사범지도 필기시험 문제 〉

현행 국기원 심사규정에는 태권도의 승단심사를 시행할 경우에 별도의 예식규칙을 정하여 심사의 의식행사시 복장, 음악, 의전절차 등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륜에 비추어 앞으로 승품단 심사 시 예식에 관한 의견을 기술하십시오.

- 태권도예식 개발 범위(심사·입문·수여) 중 ‘심사예식’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함
- 의견은 국기원에서 시행하는 예식뿐만 아니라 각, 시도협회의 예식에 대한 의견도 함께 제시됨

가. 국내 1급 사범지도자 응시자 27명 의견 분석

가) ‘예식 및 절차’에 대한 의견

- 심사 및 예식은 격식 있고, 엄격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 외국의 태권도 심사가 더 엄숙하게 진행됨
 - 공간, 복식, 음악, 예절 뿐만아니라 언어의 통일성 및 개선을 필요로 함
- 심사는 단순히 승단에 대한 평가를 넘어 축제 및 행사형태로 진행되어야 한다.
 - 외국의 경우 심사는 가족 및 친구들이 참석해 축제분위기로 진행됨
 - 각 시도협회의 심사의 경우에는 학부모 등 응시자 가족들이 많이 참석
 - 가족 및 참석자를 위한 편의시설 제공 필요 (영상물 상영, 태권도 시범 등)
- 태권도의 정신적 가치를 들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태권도의 5대 정신 강조(예의, 염치, 인내, 극기, 백절불굴)
 - 심사의 권위 및 심사위원에 대한 예절 강조
 - ‘경례’ 형태의 인사를 한국적 인사 방법 ‘큰절’로 변화 제시

- 기타 의견

- 승품단 심사 이후 합격증 수여는 발급형태 아닌 별도의 수여절차 필요
- 심사의 권위를 위해서는 '심사위원의 자질 검증 필요'
- 심사에 앞서 평가방법 및 기준 등에 대한 설명
- WTF 회원국은 모든 단증은 국기원 단증만 인정할 필요가 있음.
- 예식의 진행시 '식순'을 안내하는 팜플렛 및 안내판이 필요.

나) '복식'에 대한 의견

- 태권도의 예복은 권위와 품위, (위계)질서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응심자의 경우 '공인도복' 혹은 국기원 지정 '심사도복'을 개발하여 착용
 - 응심자의 경우 대체로 도복을 착용해야 하는 의견
- 심사위원의 경우 심사의 권위를 세울 수 있도록 복식이 개발되어야 함
 - 심사위원장과 일반위원을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
 - 심사위원의 복장의 색상, 타이 등 통일된 형태가 제작되어야 함
 - 각 등급별 심사에 따라 심사위원의 복식도 달라졌으면 한다는 의견
 - 심사위원도 응심자와 동일한 도복을 착용하되 별도의 <마스터도복> 개발
- 진행자들의 경우도 통일된 형태의 복식 착용 필요

- 예복은 한국전통 의상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면 한다.

- 한국전통 복식을 활용하여, 퓨전 혹은 변형시킨 형태의 복식
- 퓨전화 된 한복, 신발은 쥔신을 변형한 형태

- 예복은 법관 및 학위수여의 복식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면 한다.

- 심사예식의 핵심은 심사위원, 심사위원의 권위를 세울 수 있도록 복식 제작
- 학위수여식의 복식, 법관의 복식을 활용 필요

다) '음악'에 대한 의견

- 태권도 예식에서의 음악은 심사의 권위 및 전체적인 분위기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

- 음악은 태권도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조화롭게 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 심사장의 분위기를 신비하게 하는 음악이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 음악을 통해 심사 전에 음악을 통해 분위기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
 - 음악을 통해 응심자들의 자세 및 마음가짐을 바로하는 기능

- 심사위원들도 음악을 통해 심사를 격식있게 대 할 수 있음
 - 음악 및 소리를 통해 예식의 절차를 구분
 - 음악은 응심자들의 상태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안정된 음악 사용이 필요함.
- **음악 한국전통 음악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면 한다.**
 - 태권도에 맞는 전통음악으로 개발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 궁중음악 및 창작된 전통음악을 통해 태권도의 가치 표현
 - **음악을 통해 태권도의 정서를 공유했으면 좋겠다.**
 - 국민의례 이외에 '구호' 혹은 '음악'을 개발 필요 의견 제시
- 라) '공간'에 대한 의견
- **'국기원'의 상징성 및 위엄을 들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국기원은 세계 태권도인들의 성지와도 같은 의미를 가짐.
 - 태권도인들이 국기원에서 심사를 받는 것은 큰 의미와 가치가 있음
 - '국기원'이라는 위상에 걸 맞는 웅장하고, 격식 있는 공간으로 변모가 필요함.
 - **'국기원' 및 심사장은 태권도를 홍보 할 수 있는 좋은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 국기원의 경기장은 단순한 심사장으로서가 아닌 태권도의 축제의 공간으로서 기능
 - 국기원 및 전국의 심사장의 심사시 많은 사람들이 방문, 태권도의 홍보의 공간
 - **공간의 디자인 및 안전설비시설의 질 향상 필요하다.**
 - 보호장치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심사의 격식에 맞는 디자인이 갖추어져야 한다.
 - **기타 의견**
 - 국기원이 신설된다면 심사장소를 차등화해서 지었으면 한다는 의견.
 - 품심사장, 단심사장, 고단자 심사장 등을 구분하여 장소의 격을 달리하자는 의견

마) '이벤트'에 대한 의견

- 심사 전·후 및 예식의 전·후에 태권도 시범 등이 보여졌으면 한다.
 - 각 시도협회 심사에서 심사전에 각 기관 사범들의 시범이 있었으면 한다.
- 심사장에 참석한 가족 및 관람자를 위한 영상물 상영 등 이벤트 개발 필요하다.
 - 심사에는 가족 및 관람자가 많이 참여함에 따라 다양한 이벤트 개발이 필요
 - 태권도의 역사 혹은 주요인물에 대한 영상물 제작, 상영
- 태권도 심사의 격식 및 응심자를 위한 심사전 이벤트 개발이 있었으면 한다.
 - 응심자들의 긴장감을 풀어주고, 심사전의 안정된 분위기를 위해 '묵상'과 같은 프로그램을 개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나. 국내 2급 사범지도자 응심자 77명 의견 분석

- 2급 사범지도자들의 의견은 국기원보다 각 시·도·구 및 각 체육관에서 진행되는 예식에 대한 의견이 다수를 차지함. 의견을 제시한 2급 사범지도자들이 대체로 지역의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거나, 체육관장 · 사범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가) '예식 및 절차'에 대한 의견

- 심사 및 수여예식은 격식을 갖춘 전문가들에 의해 진행되어야 한다.
 - 국기원의 가치 및 다양한 예식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문지식을 갖춘 진행필요.
 - 태권도 예식을 통해 태권도의 위상과 브랜드화 할 수 있어야 함.
 - 체계적인 예식개발을 위해서는 국기원의 예식부터 점진적으로 변화 필요
- 태권도의 '무도'로서의 가치를 보여줘야 한다.
 - 스포츠나 건강을 위한 것을 넘어 무도로서 가치를 지닌다.
 - 심사예식은 태권도 정신과 태권도 본질에 맞는 형태로 진행되어야 한다.
 - 심사예식에는 각 시도의 원로태권도 및 고단자의 참석을 통해 격식을 갖춰야함.
 - '경례' 형태의 인사를 한국적 인사 방법 '큰절'로 변화 제시
 - : 심사위원 및 내빈 뿐만 아니라 응심자 가족 및 관람자에게도 '큰절' 필요
 - 미국이나 외국의 경우 승품단 합격시 띠를 수여 받고, 관장 및 사범에게 큰절을 함
 - 체육관 별 수여예식도 격식과 예의를 갖추어 진행되어야 함.

(00체육관 사례)

“유단자로서 선서! 000의 0명은 유품유단자로서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님께 효도

하며 관장·사범님께 절대 복종하며 체육관의 명예와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매사에 솔선수범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큰절하고 수료증과 띠를 수여 받음.

- **심사예식(각 시도협회 및 체육관)의 방식의 변화가 있어야 예식이 가능하다.**
 - 각 시도협회의 심사에서는 많은 응심자가 한꺼번에 보기 때문에 예식이 어려울 것
 - 응심자들에 대한 인원관리가 먼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국기원의 고단자(6단이상)의 심사예식을 갖추고 나면 시도에 따라 적용
- **심사예식(각 시도협회 및 체육관)은 응심자 및 응심자의 가족과 관람자 배려 절실**
 - 심사예식의 전후로 다양한 이벤트 및 포퍼먼스 필요(영상물 상영, 태권도 시범 등)
 - 각 시도협회의 심사의 경우, 많은 인원이 심사 받기 때문에 관람자가 지루함.
- **심사예식(각 시도협회 및 체육관)은 응심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 의견 많이 제시**
 - 각 시도협회의 심사 응심자들이 나이가 어린관계로 심사에 대한 부담이 많음 따라서, 응심자들을 위한 ‘명상’ 을 필요에 대한 의견이 많이 제시됨 (일선 체육관에서는 태권도 수련에 앞서 ‘명상’을 하는 경우가 많음)
 - 심사이전에 음악 등을 통해 명상하고, 마음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음
- **국기원의 고단자 심사 및 수여예식은 격식과 예우를 갖추 치러져야 한다.**
 - 9단수여는 태권도인의 꿈이다. 9단자들의 품새 등을 영상물로 제작하여 기록
 - 9단수여자는 태권도 역사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봄
 - 9단 수여는 보다 격식 있고,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 9단 수여식은 선후배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예를 갖추어 이루어져야 한다.
 - 고단자 심사 및 수여예식은 예우에 맞는 행사로 진행되어야 한다.
- **기타 의견**
 - 국기원 심사장에서 볼 수 있는 특별한 이벤트를 통해 국기원 심사에 대한 권위와 각 시도협회의 심사 차별화 필요
 - 각 시도협회의 승품단 심사의 경우 많은 인원이 심사를 보기 때문에, 응심자의 인원이 축소되지 않으면 예식개발이 어려움
 - 각 시도협회의 승품단 심사예식의 경우 남, 여, 유아 및 성인 및 지역에 따라 변화할 필요가 있음 대상에 따라 변화시킬 필요가 있음.

“울산시 태권도협회의 승품단 심사의 경우 지역의 특성을 고려여, ‘고래’ ‘조선사업’ ‘자동차’등의 각 체육관 및 도장의 지역로고를 개발하여 상징화하고, 각 지역

별로 홍보하고 알리는 프로그램을 운영함”

- 심사예식의 경우, 초등부는 ‘꿈과 희망을 주는 분위기’로 중고등부는 ‘태권도의 맛을 보고 실현하는 의식으로’, 일반 및 성인 ‘무도의 중후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함.

나) ‘복식’에 대한 의견

- **태권도의 예복은 권위와 품위, (위계)질서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심사위원의 자격(단)에 따른 복식을 달리했으면 좋겠다.
 - 심사예식의 꽃인 심사위원에 맞는 복식이 필요함
 - 목도리의 색깔, 뱃지, 휘장, 리본 및 색깔, 원단, 무늬를 통해 위계를 나타냄
- **예복의 개발 방향에 대한 의견은 한국적 의상 및 권위를 강조한 복식 필요**
 - 심사위원의 복식은 한국전통 혹은 법관 및 학위수여의 복식을 기반해야 함
 - 응심자는 도복을 기본으로 하되, 공인도복으로 착용해야 함
 - 진행요원의 경우 한국적전통 복식에 기반하여 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cf. 통일된 양복 및 기존의 양복에 넥타이 및 소품의 변화를 제시하거나, 심사위원의 복식의 경우, 형식적 권위보다 응심자들과 같이 도복을 입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수 있음.
- **기타 의견**
 - 태권도인의 단에 따라 다른 색이나 차별화 될 수 있도록 도복이 개발되었으면 함.
 - 예식에 사용되는 복식은 모두 ‘하얀색’으로 제작되었으면 한다.
 - 심사위원은 위엄과 공정성, 도덕성에 부합하는 복식, 행사진행요원의 경우 도복의 이미지를 변화한 형태로 개발.

다) ‘음악’에 대한 의견

- **음악은 심사의 권위 및 태권도가 한국의 무예로서 표현될 수 있는 음악**
 - 심사장의 분위기를 신비하게 하는 음악이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 ‘태권도 찬가’가 예식에서 사용되어야 한다.
 - 한국적 음악의 필요성
“2007년 중국에서 개최된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식전행사로 국내 타이거즈 시범단의 시범행사에서 아리랑을 사용하고자 했으나 주최측에서 변경을 요구했고, 이에 타이거즈 시범단이 강력하게 거부하고 아리랑에 맞춰 시범이 있었음”

- **음악 한국전통 음악을 기반으로 퓨전화 된 형태의 음악 개발**
 - 태권도에 맞는 민요나 전통음악 및 명상음악으로 개발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 음악은 편안하고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것으로 해금이나 가야금 등의 연주곡
- **심사전·후의 '명상'음악 및 응심자를 위한 음악 필요 매우 많은 의견제시**
 - 각 시도협회의 응심자들은 대부분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정서적 음악
 - 각 체육관 및 도장에서는 수련 전에 '명상'수련이 보편적으로 하고 있음
 - 명상음악을 통해 예식의 분위기 등을 정돈한다.
- **기타 의견**
 - 고단자 예식에서 사용되는 음악은 다른 예식과 달라야 한다.
 - 입장 및 개·폐회식 등 각 절차에 따라 음악이 달라야 한다.

라) '공간'에 대한 의견

- **'국기원'의 상징성 및 위엄을 있는 공간**
 - 국기원은 예의와 절도가 있는 공간으로 흡연 등을 불가
 - 국기원의 공간의 구성 및 동선 등이 재배치
 - 국기원 입구에서부터 통일성 있는 디자인
 - 기념품 매장 및 뮤지엄 등의 공간 확보 필요
- **고단자 수여 공간의 격식은 달라야 한다.**
- **각 시도협회의 심사장의 변경이 어려움으로 현수막 및 소품, 조명등의 구성이 필요.**
 - 심사장은 장소의 전체 변경이 어렵더라도 현수막 및 소품을 활용하여 격식을 갖춰
 - 미국 태권도의 대부로 불리는 '이행웅 사범'의 경우 음악, 복장을 비롯해 무대조명 등을 통해 예식의 분위기 조성

마) '이벤트'에 대한 의견

- **심사 전·후 및 예식의 전·후에 다양한 이벤트가 필요**
 - 각 시도협회 심사에 참여한 가족 및 관람자들을 위한 배려가 필요
 - 다양한 경품행사 및 포퍼먼스(시범단의 시범, 고단자의 시범) 행사 필요.
 - 태권도의 역사 및 관련 자료 소개

- 각 시도협회의 경우, 각 체육관 별로 지역을 소개하고 태권도를 소개하는 방식
 - 응심자 및 모든 관람자가 함께 할 수 있는 품새동작 혹은 체조
- 태권도 심사의 격식 및 응심자를 위해 ‘명상’등 프로그램의 필요성 많이 제기
 - 응심자들의 긴장감을 풀어주고, 심사전의 안정된 분위기를 위한 프로그램

2. 국내외 태권도 관련 예식의 현황 분석

1) 스포츠와 무예이벤트의 의례

스포츠와 무예 행사의 경우 본 행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일정한 식전예식을 거행하는 것이 관례이다. 예컨대 올림픽경기의 경우 주경기가 열리는 메인스타디움에서 오프닝 세레모니를 하지만, 그 이전에 고대 그리스의 올림픽성지였던 장소에서 성화채화식을 거행함으로써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이 식전행사는 앞으로의 경기대회가 고대 그리스의 제례 의식이었던 올림픽경기과 맥을 같이 하며 이를 통해 현재의 대회에 신성과 품격을 부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아래의 사진은 올림픽성화채화식의 광경이다. 채화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대개 고대 그리스의 여사제 복장을 착용하고 있고,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에서 행사가 진행된다.



그림 53 올림픽경기 전 성화채화식 장면

한국 태권도에서 심사행사 식전예식의 경우 대개 성스러운 분위기보다는 중고등학교에서 주기적으로 거행되고 있는 조회의 형식을 띠고 있다. 태권도 심사예식이 이와 같은 형

식적 특징은 지니게 된 이유로서 많은 참여자 수가 언급되고 있으나 소규모로 진행되는 행사 역시 유사한 분위기를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참가자의 수가 주요 원인은 아닌 것 같다.

2) 국내외 태권도의 예식 현황

가. 국내외 태권도 예식 사례

태권도행사의 경우 행사 전에는 국민의례를 진행한다. 국민의례는 대개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제창,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으로 구성되며, 이것이 끝나면 내외 귀빈을 소개하고,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의 장 또는 대리인이 환영 인사와 축사를 한다. 이상의 개회식이 종료되면 직접 본 의례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시범단의 태권도시범이 열리는 경우도 있다.

본 행사는 참가가 전원이 구령에 맞추어 준비운동을 한 후에 심사나 기타의 본 행사를 시작한다. 심사는 대개 품새, 겨루기, 격파 등으로 이루어지며, 최근까지 한 코트에서 진행되었으나 요즘 들어 코트를 세 개로 나누어 세 코트에서 동시에 심사를 진행하는 곳이 많다.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는 단체 기념촬영이 있고, 해산하게 된다.

국내의 태권도심사는 대부분 대규모로 이루어지며, 행사 시작에서 종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특징이다. 심사의 식전 및 식후 예식은 중고등학교 조회분위기와 유사한 경우가 많다. 아래의 사진은 국기원에서 개최되고 있는 초단 승단심사장면이다.



해외 태권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심사예식은 심사관에 대한 인사로 시작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기와 한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과의 차이를 부각시키자면 먼저 지도자 및 수련생이 착용한 수련복의 색상 및 디자인이 매우 다양하다는 점이다.

심사관 또는 관장의 인사가 끝나면 수련생들은 관훈 외우기, 기도, 주문 등 종교적 색채가 농후한 의례를 수행한다. 한국에서처럼 대규모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학교의 조회 같은 분위기는 찾아보기 어렵다. 구태여 비유를 들자면 엄숙하고 경건한 종교의식 같은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미국의 태권도장 심사예식과 검도의 심사 전 예식에서 이와 같

은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

미국 태권도장: 식전의 기도 장면	검도의 식전 정좌 후 예식 장면
	

준비운동은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스럽게 시행되며, 품새, 겨루기, 격파 등을 테스트한 후에 곧 바로 승급 및 승단 여부가 확정되기 때문에 심사 후에는 축하해주고 축하받는 축제분위기가 연출된다. 승급 또는 승단이 확정된 관원은 앞으로 나와 도열하며 지금까지 매고 있던 띠를 풀고 선배 또는 지도자가 새 띠를 착용해 준다. 이 과정에서 가족들로부터 꽃다발을 받기도 하고, 참관자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기도 한다.

한편, 미국의 뉴욕주 Batavia에 위치한 ‘Chang Lee Tae Kwon Do Club’의 BLACK BELT TESTING은 연령과 체급의 구분 없이 대상자 전원이 참석하여 진행된다. Black Belt Testing은 준비운동부터 Black Belt 수여까지 8단계를 거친다.



준비운동



겨루기



기본동작



호신습



품새



격파1



격파2



BLACK BELT 수여



기념촬영

독일의 베아기쉬 클랏바흐시의 '조 스포르트 아카데미' 승단 심사는 연령 구분없이 대상자 전원이 참석한다. 승단심사는 태극기에 대한 경례의식으로 시작하여 준비운동, 품새 등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승단심사의 구령은 '차렷'. '경례' 등의 한국어를 사용한다.



준비운동1



준비운동2



승단심사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해외 태권도의 심사예식은 소규모로 치러지기 때문에 가족적인 분위기가 연출이 되며 이러한 기회를 통해 집단에 대한 소속감이 강화되기도 한다. 미국태권도의 경우 집단에 따라 승단심사 후에 단증을 수여하거나 지도자 자격증을 수여할 때 엄숙하고 경건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다양한 색상의 도복을 착용하고 봉이나 절, 무릎 꿇기 등과 같은 세레모니를 거행하는 경우도 있다.

반면에 국내 태권도의 심사예식의 경우는 본 심사 일정이 종료된 후에 사진촬영 이외에 별도의 식후 예식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달리 미국의 태권도와 기타 무예의 경우 대개 띠와 급·단증의 수여의식과 단체사진촬영, 축하 파티 같은 식후 예식이 이루어지고 있다. 수여의식은 대개 첫째 수여자가 승급자 또는 승단자를 호명하거나 일어서게 하여 기존의 띠를 풀고 지도자 또는 부모가 새 띠를 매주는 경우, 둘째 대상이 유단자일 때는 지도자가 새로운 단증을 수여하며 기존 회원들의 축하를 받는 경우(수여자와 수취자가 대등한 관계를 보여줌), 셋째 봉건군주가 신하에게 관직을 부여하듯이 계급질서를 강조하는 수여방식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나. 태권도 의식 행사의 사례

가) 지도자가 승품(단)에게 새 띠를 매주는 사례

미국태권도 승급심사	미국 중국계무예 승단심사	한국계무예 승단심사
		

나) 지도자가 승단자에게 단증이나 띠를 전달하는 사례

미국 태권도 승단심사	미국 일본계 무예 승단심사
	

다) 권위적인 방식으로 띠나 임명장을 수여하는 경우(ATA)

ATA 수여예식	ATA 수여예식
	

라) 식후 사진촬영

무덕관 수박도	용문무관	태권도	Martial Arts
			

3) 해외무술예식 사례조사

가. 중국, 팔극권 배사식(拜師式)

- 팔극권의 발상지인 맹존회족자치현의 배사식으로 약식화된 현대적인 배사례
- 문중의 구성원들이 모두 동의하고 참석자들이 증인이 되어 진행
- 식후행사로 제자들이 팔극권을 시연

예식의
주요절차

개회선언



배사절 전달(1)



배사절 전달(2)



팔극권 시범 및 대련



팔극권 단체시연



기념촬영

나. 중국, 태극권 배사식(拜師式)

- 정자태극권의 배사의식의 경우, 사회자가 순서를 알려주며 진행
- 배사 대상자들과 스승의 문파의 조사에게 절을 하고 배사 대상자들이 다시 스승에게 절을 하는 순서로 진행



조사에 대한 절



스승에게 배사

다. 일본, 스모 도효이리(土俵入り)

- 도효이리는 일본의 스모선수들이 스모 경기장에 등장하여 행하는 입장의식
- 도효이리는 두가지 의식으로 구성된다.
- 하나는 마쿠우치와 주료의 선수 전원이 행하는 살바를 두르는 의식, 다른 하나는 최고의 스모꾼인 요코즈나가 살바를 두르고 입장하면 그 뒤로 주심, 쓰유하라이(요코즈나를 선도하는 스모선수), 다치모치(칼을 들고 들어오는 스모선수)가 입장하면, 선수들이 팔을 벌리고 발을 구르는 동작을 하고 절을 한 뒤 퇴장



요코즈나와 입장

손뼉을 지고 땅을 구르는
시코(四股)의 준비

시코(四股)



뒹장

라. 일본, 아이키도 승단식

- 승단 시험의 첫 단계에서 아이키도의 선배들과 심사관에게 공경의 예를 갖추
- 1대 1 대련을 비롯하여 다양한 대련의 방식으로 진행



예식 1



예식 2



vs1 대련



승단자vs다수의 대련



두기름 들고 대련

마. 일본, 검도 8단 승단식

- 일본 검도는 10단이 가장 높은 단계이지만 승단시험으로는 8단까지만 가능
- 8단의 합격률은 1~3% 정도로 1대1 대결을 통하여 승부와는 무관하게 평가
- 매년 교토와 도쿄에서 각 1회씩 실시



접수증 교부



승단식전 대기



승단시험

바. 일본, 극진가라데 승급심사

- 승급은 기본과목으로 기본기, 유연성테스트, 카타, 쿠미테 등의 11개로 구성
- 출석률과 필기시험, 합숙훈련 등이 추가적인 심사 항목으로 적용
- 1단 승단부터 단수에 따라 10배의 사람들과 대련하는 조수가 필요



기본기



유연성



팔굽혀펴기 (정권단련)



이동수련



카타(형)



봉넘기



몸구나무조기



복자기



쿠미테(겨루기)

4) 태권도 관련 예식 현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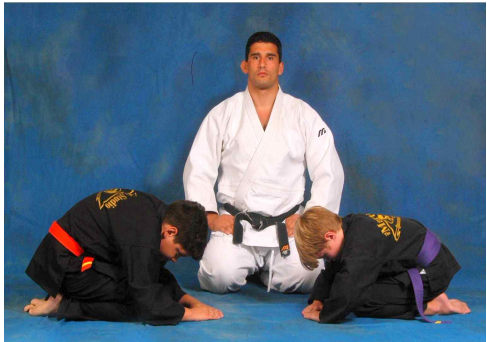
가. 상호간 및 지도자에 대한 예법

인사예법의 경우 절을 하는 곳에서부터 바로 선 자세에서 90도로 숙여 인사하는 법에 이르기까지 지도자의 성향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 상호 상체를 구부려 예를 갖추는 법

태권도의 예법	한국전통무예의 예법
	

- 상호 맞절을 하며 예를 갖추는 법

국술원의 예법	가라테의 예법
	

나. 예식공간의 시설과 분위기

- 태권도, 무예도, 국술, 쿵푸 등의 시설은 대체로 색상이 화려한 원색
- 십팔기, 가라테, 검도 등의 시설은 대체로 단조롭고 차분한 색상
- 태권도(국내)는 대규모의 공적 공간에서, 그 외는 대부분 협소한 도장에서 진행

- 태권도(국내)와 무예도의 경우 관중을 위한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었음
- 가족 및 친지가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공간적 배려가 요망됨

다. 해외 태권도 및 기타 무예 심사관의 복장

- 국술 심사관의 복장

한국에서의 심사	외국에서의 심사
	

- 검도 심사관의 복장

양복 착용	양복 착용하고 일부는 도복 착용
	

- ITF 및 당수도

ITF 심사관의 복장: 양복, 도복	한국계 무예의 심사관 복장: 양복, 도복
	

- 한국 및 일본계 Martial Ar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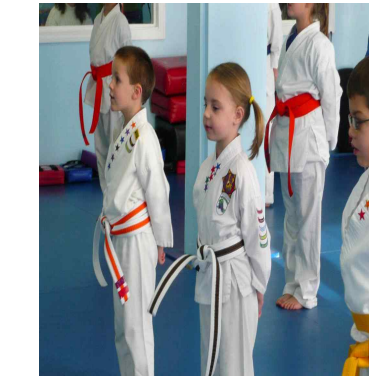
도복	도복
	

- 가라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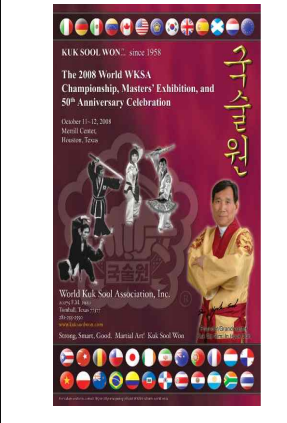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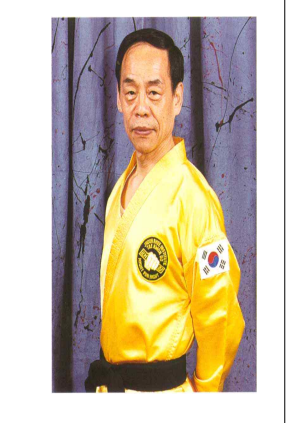
양복, 넥타이차림	양복, 넥타이 차림
 Clark, 8th Dan Test at OkikuKai Headquarters. Seated left to right: Masters Tomoyose, Yonamine, Takara, Takamiagi, Inada	

라. 해외 태권도 및 기타 무예의 예복과 도복

* 도복에 디테일한 문양 부착을 통한 차별화의 시도

소매에 문양	목둘레 카라에 별문양	V넥에 별문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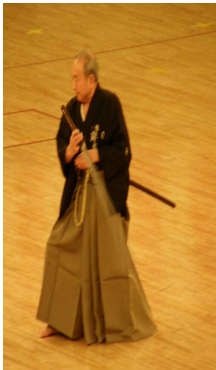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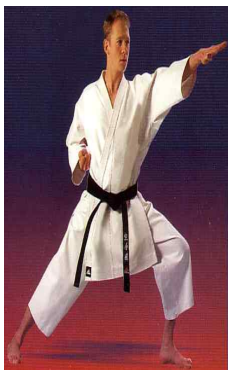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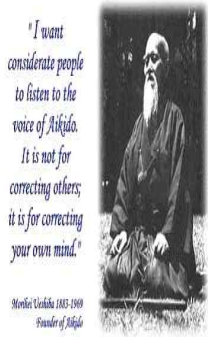
* 금색도복을 통해 최고 지도자임을 부각시킴

최고지도자	최고지도자	최고지도자	최고지도자
			

* 지도자를 위한 별도의 예복

군복타입의 예복, 훈장	군복타입의 예복, 훈장
	

* 일본계 무예의 도복

검도 고단자 도복	가라테 도복	합기도 도복	합기도 지도자복
			

* 중국 우슈의 다양한 색상의 복장

적색	황색	적황색	흰문양적색	적색 및 흑색
				

마. 기타 태권도 예식 관련 분석 결과

- 태권도의 식전예식은 다른 종목에 비해 규모가 크고, 시간이 긴 것이 특징임
- 일본계의 무예는 경건하고 장중한 분위기가 강하며 무릎을 꿇고 절을 함
- 태권도예식에는 엄숙함과 경건함이 결여되어 있음
- 심사예식 후 바로 승단의 여부를 알려주고, 띠를 수여하여 성취감을 높여줌
- 해외에서 행하는 심사예식의 경우 예식 후 부모가 축하해주는 분위기
- 심사자복장의 경우 도복계통과 양복계통으로 양분
- 심사자도복의 경우 차별화를 꾀함, 양복은 대체로 짙은 색 계통
- 심사예식시 복장을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함
- 승단 후 복장에 변화가 없을 경우 성취감이 떨어질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심사응시자의 도복 역시 차별화할 필요가 있음

IV. 태권도예식의 이론적 고찰

1. 태권도예식의 근거규정

국기원에서는 태권도와 관련된 각종 행사가 지속적으로 시행되어 왔으나, 별도의 예식 규정은 마련되지 않았다. 이러한 예식 규정의 불비는 태권도의 정체성을 비롯한 태권도 심사는 물론이고 단증에 대한 권위를 갖추는데 한계로 작용하였다. 그러자 국기원에서는 2009년 2월 심사규정을 재정비하면서 태권도 심사예식과 관련된 조항을 처음으로 마련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기원

심사규정 (09.02)

제2장 심사

제8조(심사시행)

⑧ 승품·단 심사에 따른 '심사예식'을 준수하여 시행한다

위의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국기원 심사규정 2장 8조 8항에 따르면, "승품·단 심사에 따른 심사예식을 준수하여 시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로써 심사규정 2장 8조 8항은 국기원의 심사예식 근거 규정이자 향후 심사예식 개발의 토대가 되었다.

심사예식과 관련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각종 심사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세계태권도의 산실로서 국기원의 위상과 권위를 확보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그러한 사실은 국기원의 심사규정이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 19조 1항 2호에 근거하여 세계태권도 국기원의 태권도 승품 단 심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해 심사관리의 체계화 및 표준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심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고 명시한 데서 잘 확인된다.

이와 같은 사실은 국기원의 심사예식이 장차 태권도 승품단 심사관리의 체계화 및 표준화를 목표로 만들어진 점을 분명히 말해준다. 또한 심사예식의 규정이 제기된 사실은 이제 국기원의 심사가 단순한 심사행위를 넘어 새로운 태권도 의전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나아가 국기원의 심사예식이 장차 태권도 진흥은 물론 태권도 공원 조성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으로써, 장차 세계적인 심사예식으로 발전해 나갈 것을 염두하고 있음을 엿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태권도 예식 개발을 위한 기본 컨셉 및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국기원은 이를 위해서는 서둘러 접근하기 보다는 차분하게 100년 대계를 내다보는 태권도 심사예식 개발을 위한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접근이 필

요하다. 왜냐하면 태권도 심사예식이 곧 필요하다고 해서 모처럼 태권도의 권위와 품격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잃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현재 심사규정에 명시된 태권도 심사예식 근거규정은 태권도 심사예식을 비롯한 입문 예식, 수료 예식 등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태권도 예식규정이 체계적으로 제정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2. 태권도 예식의 예제적 원리와 특징

예식이란 의례의 한 형식이다. 태권도 예식은 기본적으로 태권도의 수련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통과의례이다. 이는 마치 우리는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 즉 입학식, 졸업식, 성인식, 결혼식, 장례식 등을 통과하면서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그러한 인생의 전환점을 표시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통 특정한 형태의 기념 의식을 치르게 된다.

네덜란드계 프랑스 민속학자인 아놀드 반 게넵(Arnold van Gennep)은 이러한 유형의 기념 의식을 ‘통과의례’라고 부른다. 그는 통과의례를 “장소, 상태, 사회적 지위, 나이의 모든 변화에 수반되는 의례”라고 정의한다. 통과의례는 상황의 변화, 속해 있는 집단의 변화, 거주하는 공간의 변화와 같은 인간의 중요한 실존적 상황에서 등장하는 의례이다.

반 게넵에 따르면, 통과의례는 기본적으로 분리, 전이, 통합이라는 세 가지 과정으로 구성된다. 한 예를 들면, 성인식은 미성년자를 기존의 미성년자 집단에서 ‘분리’하여, ‘외딴 곳에서’ 할례와 같은 일정한 의식을 통해 성인으로 ‘전이’시킨 다음에, 다시 새로운 성인 집단에 ‘통합’시키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그림 110 태권도 예식의 예제적 구조

위의 도식과 같이, 인생의 통과의례가 분리(分離; separation), 전이(轉移; transition), 통합(統合; incorporation)의 과정을 거치는 것과 같이 태권도인의 통과의례 역시 분리, 전이,

통합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기본적으로 태권도인은 누구나 태권도 예식을 통해 분리 의례, 전이 의례, 통합 의례를 경험한다.

태권도 예식은 좁게는 한 사람이 태권도에 입문하여 심사 과정을 거쳐 증서를 수여받는 과정까지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즉 태권도의 입문자를 기존의 일반인 집단에서 '분리'하여 국기원이나 도장에서 일정한 입문의식을 통해 태권도 인으로 '전이' 시킨 다음에 다시 새로운 태권도인 집단에 '통합' 시키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이처럼 분리, 전이, 통합의 과정은 일반인에서 태권도 인으로 거듭 태어나게 하는 과정의 의미를 갖는다.

태권도 예식은 넓게는 태권도 인이 승급, 승품, 승단의 절차를 통해 최종적으로 9단의 수련과정까지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여기에 사범지도자, 심판자격 등의 절차에서도 예식은 통과의례로 작동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태권도인의 삶이 작게는 입문예식을 통해 분리·전이·통합을 체험하며 심사예식을 통해 분리·전이·통합을 체험하며, 수여예식을 통해 분리, 전이, 통합을 맛보게 된다. 동시에 태권도인의 수련과정은 끊임없이 분리, 전이, 통합의 연속과정을 반복적으로 체험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더 큰 틀에서의 분리, 전이, 통합의 통과의례를 거친다는 사실이다. 특히 통과의례의 가장 중요한 단계인 전이의례는 보통 공간적으로는 국기원이나 도장에서 시간적으로는 입문 전과 입문 후, 심사 전과 심사 후, 수여 전과 수여 후의 사이에서 일어난다.

결국 태권도 예식은 기본적으로 태권도의 수련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통과의례이다. 태권도 인들은 누구나 태권도에 입문을 하고, 심사절차를 거쳐 승급 내지 승단의 과정을 거치며, 그 결과로서 승급 내지 승단의 증서를 수여받음으로써 태권도 인으로서의 공동체성을 회복한다. 이러한 절차는 태권도 예식 절차에 그대로 반영이 되며 그 절차에 따라 태권도 예식의 구조가 만들어진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태권도 예식의 예제적 구조가 분리(分離 ; separation), 전이(轉移; transition), 통합(統合; incorporation)의 과정을 거친다.

인간은 의례에서 태어나 의례로 죽는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인간을 homo ritual이라고 부를 수 있다. 태권도인의 삶도 예외가 아니다. 더구나 태권도인은 태권도의 수련과정을 통해 독특한 의례적 삶을 살아간다. 잭 구디(Jack Goody)는 의례를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으로 생각했으며, 그 기본유형을 주술, 종교의식, 의례행사(세속적 의례) 세 가지로 나누었다. 바로 태권도 예식이란 바로 세속적 의례의 범주에 속한다.

뒤르켐(Durkheim) 이후 사회과학자들은 의례가 사회적 일체성과 통합력을 강화시켜준다는 점에 주목했다. 실제로 의례는 사회적 일체성을 만들어낼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 차별을 명확하게 하고 강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의례를 주재하는 사람은 대개 특별한 의복양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 의복양식이 사회에서의 인습적인 사회적 차별을 다소 과장스럽게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례는 신분 차별을 명확하게 해준다.

대부분의 의례의 특성과 마찬가지로 태권도 예식 역시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태권도의 예식은 철저한 질서 또는 규칙성을 지닌다. 예식은 정연한 행위의 연속성을 지니는 구조화된 사건이다. 비록 주재자나 청중이 규칙의 모드를 이해할 수는 없다

고 하더라도, 의례에서 질서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절차에서 미미하게라도 가지런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의례행사가 비효율적으로 될 수 있다.

둘째, 태권도 예식은 행위의 세분화와 반복성을 지닌다. 태권도 예식은 동일한 행위가 세분화하여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따라서 태권도 예식은 계속해서 반복된다. 예컨대 심사 예식은 품새, 겨루기, 격파가 반복된다. 여기에 경례, 시작, 정지 등의 구호 등도 반복된다. 예식은 이 모든 요소들의 복합이다.

셋째, 태권도 예식은 참여자들을 구별하는 특징을 지닌다. 의례는 시간, 장소, 그리고 사용되는 물질적 도구의 면에서 볼 때 판에 박힌 일상생활과는 구별된다. 태권도 예식을 주재하는 사람의 몸짓에 따라서 특별한 행위나 스타일이 특색 있게 된다.

넷째, 태권도 예식은 극적인 효과를 지닌다. 의례는 본질적으로 저절로 이루어지는 행동이 아니라 자각적인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행동이다. 의례는 그 내용과 참가자들의 역할을 각색하여 생생하게 표현한다. 의례행사에 청중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그들의 참여도를 더하기 위하여 극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무대설정”을 한다.

다섯째, 태권도 인으로서의 집단성을 지닌다. 관람객은 태권도 예식행사에서 총체적인 측면에서 감명 받는다. 의례행사는 총체적인 무대장치 속에서 거행된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전체가 함께 공유하는 것이다.

여섯째, 태권도라는 무예이자 스포츠로서의 상징성을 지닌다. 의례는 무엇보다도 상징적 활동이자 의사소통의 상징적 형식이다. 태권도 예식 역시 몸을 통한 소통이자 의사소통의 상징적 형식이다.

3. 태권도예식의 근거와 활용 원리

1) 태권도 예식을 위한 근거자료

태권도 예식은 기본적으로 한국 문화에 토대한 예식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전통문화 가운데는 태권도 예식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존재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국가의전이 바로 조선시대 무과전시의, 문무과방방의, 은영연 등이다.

먼저 조선시대에 고위 무관을 선발하는 무과전시의는 바로 무관을 뽑는 심사예식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무관을 선발하는 시험이지만 철저히 심사의례를 통해 시험을 보았다. 이는 오늘날 태권도 심사예식을 만드는데 매우 귀중한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둘째, 조선시대에 문무과의 합격자를 발표하는 방방의는 합격증을 수여하는 수여예식의 전형이 될 수 있다. 문과와 무과의 합격자를 모아 궁궐에서 국왕과 문무백관이 참석한 가운데 합격증서를 수여하는 의식이다. 이는 오늘날 태권도 수여예식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셋째, 조선시대 문무과 합격자들과 시험관에게 잔치를 내려 주는 은영연은 수여예식 후

에 축하 잔치의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오늘날 태권도 수여예식을 하는 자리에서 다양한 이벤트 방안을 마련하는데 참고할 만하다.

이와 같이, 무과전시의, 문무과방방의, 은영연 등은 오늘날 태권도의 한국적인 예식 문화를 만드는데 매우 귀중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즉 태권도 예식의 참여자, 절차, 동선, 신호, 음악, 예절, 의장, 복식, 이벤트, 공간 디자인 등이 그것이다. 다만, 국왕 중심의 사회 구조 속에서 발전해 온 무과전시의 였던 만큼, 민주화시대와 보편적 가치에 걸 맞는 예제의 원리를 추출하는 점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태권도의 심사예식을 위해서는 무과전시의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선시대 과거시험은 문과와 무과를 함께 보았다. 문과는 주로 궁궐에서 시험을 보았다면 무과는 모화관이라는 넓은 마당이 있는 곳에서 시험을 보았다. 다만, 문무과의 전시는 최종 시험으로서, 국왕이 친림한 가운데 과거가 이루어졌다. ‘전시의’는 1차 시험인 초시와 2차 시험인 복시를 본 후 국왕의 앞에서 시험을 보는 것으로 등락을 결정하는 시험이 아닌 등급을 매기는 시험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전시의는 과락제(科落制)가 아닌 6과목의 성적을 종합하여 등급을 매겼다.



그림 112 무과 시험의 장면



그림 111 대사례의 장면

위의 그림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무과시험은 철저한 의례 속에서 시작되었다. 초엄, 중엄, 삼엄의 절차로부터 시작되는 무과전시의는 출궁으로부터 환궁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예로 시작하여 예로써 마쳤다. 특히 무과의 심사 과정 하나하나가 모두 철저한 의식으로 만들어져 신중하고도 체계적인 시험 절차를 통해 시험을 보았다. 여기에서 무과에 합격한 급제자들은 국왕 앞에서 치루는 무과의 권위 속에서 최고의 합격자의 영광을 부여받았다.

그 같은 사실은 국왕과 함께 하는 대사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대사례는 국왕이 신하와 함께 활을 쏘는 의식이다. 먼저 국왕이 쏜 후에 신하들이 이어서 활을 쏘았다. 과녁을 맞추는 것은 사람의 덕을 본다는 의미를 지닌 것이었다. 그 결과 과녁에 많이 맞추는 것이

곧 덕의 함양을 드러내는 징표였다. 이처럼 우리 전통시대의 무예는 단순히 무기를 다루는 기술이 아니라 심신을 수련하는 수양의 방편이었다. 이점은 오늘날 태권도를 통해 심신을 수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같다. 본 연구에서 무과나 대사례를 태권도 예식의 기본 원리로 활용하려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다.

2) 전통의례의 근거와 활용 원리

가. 무과전시의(武科殿試儀)의 활용 원리

조선시대에 완성된 무과전시의는 무과응시자들이 국왕 앞에서 병서와 무예 실력을 심사받는 예식이다. 무과전시의 심사과정 및 참여자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심사절차와 예의범절 등은 오늘날 태권도의 심사예식을 개발하는데 매우 유용한 자료이자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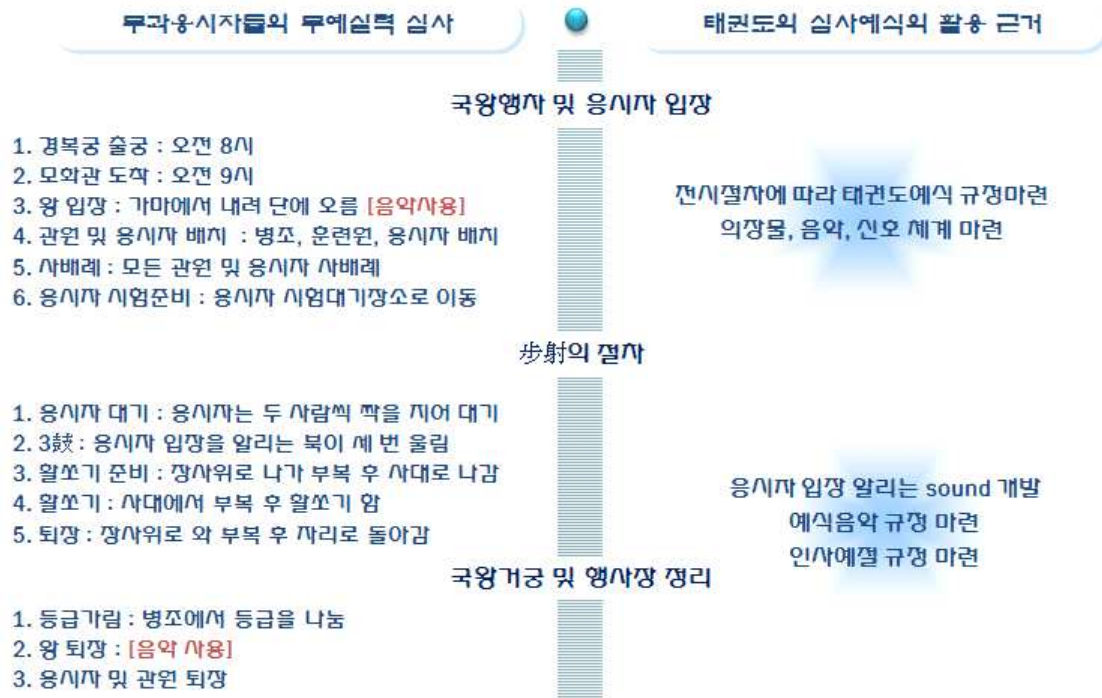


그림 114 무과전시의의 활용 원리

위의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무과시험에 나타난 절차의 특징은 우선 국왕의 움직임에는 반드시 음악과 의장물, 신호체계가 사용된 점, 모든 의식에 배례(절)가 기본이 되어 시작과 끝이 모두 인사로 이루어진 점, 응시자 상호간의 상견례가 이루어진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무과시험의 예제적 원리는 태권도 예식 절차에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곧 태권도 예식을 주관하는 VIP의 입, 퇴장에 음악을 삽입하는 근거가 되며, 동시에 각종 의장물의 필요성을 제시해 준다. 아울러 예식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음원의 개발을 요구한다. 이 외에도 상견례를 위한 인사를 비롯한 각종 예의범절을 개발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

나. 문무과방방의(文武科放榜儀)의 활용원리

조선시대에 완성된 문무과방방의는 문과와 무과 합격자들에게 국왕이 합격증서를 하사하는 축하의식이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무과방방의의 의식절차 및 참여자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수여절차와 예의범절 등은 오늘날 태권도의 심사예식을 개발하는데 매우 유용한 자료이자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다.

방방(放榜)이란 문·무과 과거시험의 합격자 발표를 뜻한다. 최종시험을 치루고 난 후 1주일을 전후로 하여 합격자 발표인 방방의식인 방방의(放榜儀)를 거행하였다. 문·무과 합격자의 명단을 실어놓은 방목을 ‘용호방(龍虎榜)’이라고 하는데, 용(龍)은 문과를, 호(虎)는 무과를 의미한다. 과거시험은 고위 관직에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는 최고의 관

문이었으므로 과거 합격은 영예롭게 인식되었다. 따라서 과거 합격자 발표는 창방의(唱榜儀) 또는 방방의(放榜儀)라는 의식을 거행하면서 이루어졌다. 방방의를 할 때에는 임금, 종친 문무백관 및 합격자의 가족들이 참석한 아래 거행되었다. 방방의 때에는 합격증서인 홍패(紅牌)를 받게 되며, 임금이 술을 하사한다. 특히 갑과 3인에게는 개(蓋)가 하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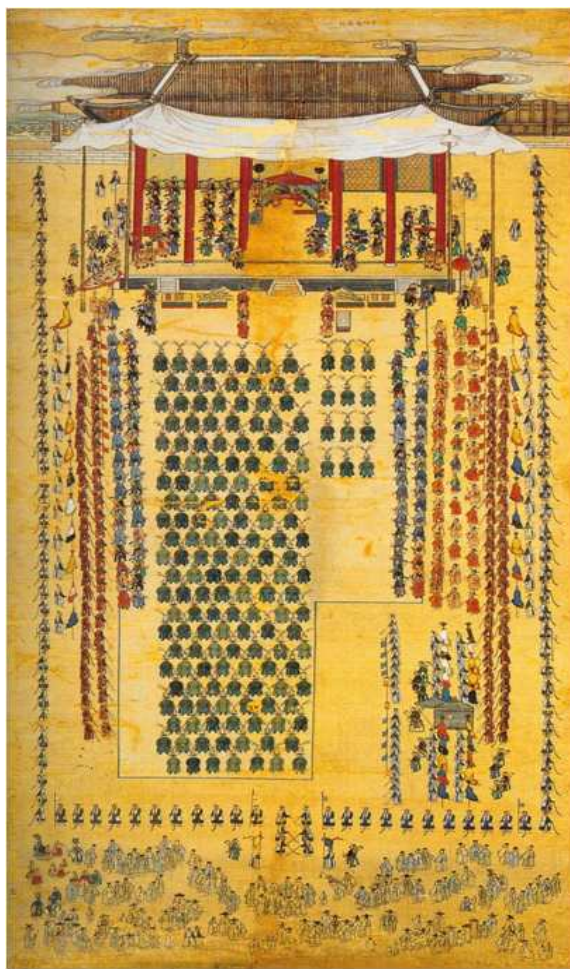


그림 115 문무과 합격자 발표의식 장면

위의 그림은 수원 화성에서 실시한 문무과 방방의 장면이다. 문무과 방방의와 관련해서는 거의 유일한 자료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문무과 방방의는 무과급제자들이 국왕 앞에서 합격증을 받는 예식이다. 방방의 식장은 화성행궁 내의 낙남헌에서 차일이 둘러져 국왕의 어전의 신성감을 드러내는 동시에 주위에는 호위 장교와 무사들이 의장과 무기를 들고 경계가 삼엄하다. 이러한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과거의 합격자 발표식이자 합격증 수여식인 방방의는 오늘날 태권도 수여예식과 흡사한 측면이 많다.



그림 117 문무과 방방의 활용원리

위의 방방의 절차에서 알 수 있듯이, 문무과방방의에 나타난 절차의 특징은 역시 국왕의 움직임에는 반드시 음악과 의장물, 신호체계가 사용된 점, 모든 의식에 배례(절)가 기본이 되어 시작과 끝이 모두 인사로 이루어진 점, 응시자 상호간의 상견례가 이루어진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무과시험의 예제적 원리는 태권도 예식 절차에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방방의의 수여절차와 과정 및 참여자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수여절차 등은 태권도의 수여예식으로서 활용 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때 합격자에게 홍패라는 붉은 색 합격증서를 나누어 주는 것은 오늘날 태권도 단증이나 자격증을 수여할 때 디자인이나 색깔로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왕이 문무과의 합격자들에게 꽃, 어사주와 같은 선물을 늘날하는 방식은 오늘날 새로운 형태의 선물을 선사하는 원리로 활용할 수 있다. 이어서 합격자들이 국왕에게 감사의 글인 치사를 올리는 절차는 오늘날 수여자의 선서 내지 강령의 의례를 만들어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은영연(恩榮宴)의 활용원리

조선시대에 과거에 합격한다는 것은 최고의 영광이었다. 관리로 등용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은 물론 양반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는 방편이었다. 따라서 과거에 급제하는 일이 개인으로서나 가문의 자랑이자 명예였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합격자와 시관들의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축하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합격자를 축하하기 위한 행사는 국왕이 내려준 축하잔치인 은영연, 합격자들이 감사의 인사를 올리는 사은례, 문묘에 배향하는 알성례, 거리 행진인 유가(遊街), 합격자의 아버지를 위로하기 위한 영친연(榮親宴), 등이 베풀어졌다.



그림 118 문무과 합격자 잔치인 은영연의 모습

먼저, 은영연(恩榮宴)은 합격자의 발표의식이 끝난 후 문·무과의 시관과 급제자들에게 나라에서 베풀어주는 축하잔치이다. 은영연은 주로 의정부나 예조에서 행해졌으며, 이를 주관하는 압연관(狎宴官)은 영의정이다. 부연관(赴宴官)은 호조·예조·병조판서이다. 당상에 압연관·부연관·시관이 앉고, 그 동쪽에 문과급제자가, 서쪽에 무과급제자가 갑과, 을과, 병과 순서로 앉는다. 축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주악이 울리고 광대들이 여러 가지 재주를 보인다.

둘째, 사은례(謝恩禮)와 알성례(謁聖禮)가 있었다. 사은례는 방방의가 끝난 다음날 임금에게 올리는 감사의 의식이다. 문·무과 급제자들이 문과 장원의 집에 모여 대궐로 나가 임금에게 사은례를 드리고 끝난 후에는 임금이 잔치를 베푼다. 알성례는 사은례를 올린 다음 날에 문·무과급제자 모두 무과 장원의 집에 모여 문묘에 가서 치루는 의식이다.

셋째, 영친연(榮親宴)이다. 이는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한다는 의미로서 향학하는 마음을 권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신급제자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날에 마을 어귀에 이르면 그 고을의 아전이 관대(冠帶)를 갖추고 나와서 맞이한다. 신급제자는 공복을 입고 서울에서 유가하는 의식과 같이한다. 향교에 이르러 문묘에 참배하고, 다음에 수령이 있는 청사에 나아가서 돈수재배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는 부모의 집으로 가면, 수령이 그 집까지 따라가고, 신급제의 부모와 함께 객사에 돌아와 향교의 생도들로 하여금 축하하게 하고, 영친연을 베푼다. 부모가 없는 급제자의 경우는 날을 가려 관에서 주는 제물을 가지고 가서 시복(時服) 차림으로 부모의 묘를 찾아가 참배한다.

넷째, 유가(遊街)이다. 유가란 과거에 합격한 사람을 영예롭게 해주기 위한 축하행사로, 신급제자들이 호화스러운 행렬로 거리를 행진한다. 시가행진을 하면서 시험관·친척 등을 찾아뵙고, 신급제자가 공부하던 장소가 있으면 거기에도 간다. 일종의 유희(遊戱)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신급제자는 물론 선비들로 하여금 유가를 보면서 향학(向學)하는 마음을 분발하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는 행사이다.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문무과 합격자를 위한 다양한 축하잔치와 행사가 베풀어졌다. 그만큼 합격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향후 나라와 백성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게 하기 위한 의미도 담고 있었다. 이는 오늘날 태권도 예식에서 단증이나 자격증을 딴 분들에게 일종에 축하를 베풀어주는 동시에 일련의 행사를 통해 태권도 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전통의례의 원리를 활용한 태권도 예식의 방안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전통의례에 나타난 예제적 구조와 원리는 향후 정체성있는 태권도 예식을 개발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무엇보다도 조선시대의 무과전시의, 방방의, 은영연 등은 한국의 품격있는 태권도 심사예식과 수여예식을 개발하는데 이론적 근거로 활용할 가치가 크다. 태권도 예식 개발에 접목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살펴본 전통의례에

나타난 예제적 원리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19 전통의례의 원리를 활용한 태권도 예식의 방안

첫째, 전통의례의 특징은 공간의 위계 구분과 직급에 따른 자리 배치를 들 수 있다. 이는 오늘날 태권도 예식 개발에 있어서 공간의 영역을 철저히 분리하여 주체자와 대상자, 그리고 진행자 등의 공간을 분리함으로써 권위를 조성한다. 아울러 직급에 따른 자리 배치를 통하여 참여자들의 구분함으로써 공간의 구조와 함께 예식에 대한 질서의식을 높인다.

둘째, 전통의례의 특징은 예식 공간에서 참여 대상에 따른 입구와 출구를 분리한다. 이는 현재 정해진 출구와 입구 없이 아무렇게나 심사장을 입장하거나 퇴장하는 무질서를 방지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VIP나 심사위원 등의 입장과 퇴장 공간에 신성감을 부여하는 동시에 권위를 보장하고 대상자들에게 일정한 형식과 질서의식을 함양한다.

셋째, 전통의례의 특징은 신호체계에 따른 예식 절차와 함께 음악사용을 통해 예식의 품격과 분위기를 제고시킨다. 현재는 심사예식을 비롯한 어떤 행사에도 신호음악을 쓰거나 음악을 통한 입장이나 퇴장이 없다. 따라서 심사예식을 비롯한 각종 행사에 경건함이나 예식의 분위기가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과 끝을 알리는 신호체계와 예식음악의 개발을 통한 예식의 분위기를 신성하고도 품격있게 만들 수 있다.

넷째, 전통의례의 특징은 직급에 따른 움직임과 일정한 동선의 원칙이다. 이를 태권도 예식에 접목시키면 우선 철저히 직급에 따른 입장의 순서와 퇴장의 순서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직선의 원리에 의해 동선을 따라가게 함으로써, 입장과 퇴장의 질서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다섯째, 전통의례의 특징은 국왕에 대한 인사는 물론이고 상급자와 동료 간의 인사예절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원리는 태권도 예식에 상견례의 예절로 활용함으로써 태권도인

들의 위계질서와 단합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여섯째, 전통의례의 특징 가운데 심사예식 뿐 아니라 합격자들에 대한 축하를 성대히 베풀어 줌으로써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게 한다. 이러한 점은 오늘날 태권도 예식에서 저단자는 물론이고 고단자나 사범지도자의 예식에 접목하는 방안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 활용방안을 간략히 도표화 하면 다음과 같다.

표 60 무과급제자 축하연과 태권도 수여예식 활용방안

구분	내용	성격	활용 방안
은영연 (恩榮宴)	급제자를 위해 나라에서 베푸는 축하연회	급제자를 위한 축하예식 (주최측)	승품·승단자를 위한 국기원의 축하행사 (ex:핸드프린팅)
사은례 (謝恩禮) 알성례 (謁聖禮)	임금에 대한 감사의례 문묘에서 치르는 예	임금 및 스승에 대한 감사예식	사범 및 고단자에 대한 감사예식
사하연 (私賀宴)	친척이나 친구들이 급제자를 위해 베푸는 축하연회	급제자를 위한 축하예식 (친척,동료)	승품·승단자를 위한 동료의 축하행사 (공연 및 포퍼먼스)
영친연 (榮親宴)	급제자의 부모님을 위한 축하연회	부모님(가족)에 대한 감사예식	가족에 대한 감사행사
유가 (遊街)	축하행렬	축하 피레이드	국기원 내부의 승단자를 위한 공간 (ex:명예의 전당)

V. 태권도 예식의 개발방향

1. 예식

구분	대상		주관기관	개발방향
승품단 심사	저단자	1~4품	시도협회	심사예식
		1~3단		
	고단자	4~5단	국기원	
		6~9단		
연수원 교육	자체연수	1, 2급 사범	국기원	입문예식
		3급 사범		
		3급 사범 및 생활체육		
		1~3급 장애인사범		
		1~3급 사범 외국인(국내)		
		1~3급사범 외국인(출장)		
		1~3급 승품단심사위원		
		1~3급 한마당심판		
		1~3급 재시험		
		해외품새세미나		
	위탁(대태협)	1~3급 경기심판		
		1~3급 품새심판		
		1~3급 재시험		
	위탁(국가)	2급 경기지도자		
		2급 경기 자격검정		
		2급 경기 자격부여 면접		
		3급 생활체육지도자		
		3급 생활 자격검정		
		3급 생활 자격부여 면접		
수여식	단증	9단증	국기원	수여예식
		6~8단증	국기원	
		4~5단증	시도협회	
		4품이하	일선도장	
	각종자격증	자격증	국기원	

1) 심사예식

가. 국기원 고단자 심사예식 현황(6, 7, 8, 9단)

심사준비

- 논문접수 : 북쪽현관
- 환복
- 응시생 집결
- 품새교육



개회식

- 응심자 집결
- 관계자 입장
- 원장 입장
- 개회식
 - 개회선언
 - 국민의례
 - 임원소개
 - 개식사
 - 폐식선언
- 주요인사 퇴장
- 품새선정



심사 (6,7단)

- 응심자 대기
- 신원확인
- 심사
 - 품새
 - 겨루기
 - 격파
- 해산



심사 (8,9단)

- 응심자 대기
- 신원확인
- 심사
 - 품새
 - 면접
- 해산



폐회식 (없음)

나. 현행 및 개선안

가) 고단자 승단심사 준비 및 개최식 (6~9단)

	절차	현행안	개선안
심사 준비	논문점수	오전 8시까지 단 구분 없이 북쪽 현관에서 접수	단별로 접수공간을 달리함 6단(남쪽현관), 7단(동쪽현관) 8,9단(북쪽현관)
	환복	강의실 등 여러 곳에서 환복	환복장소의 정비 및 구분 6단(2강의실), 7~9단(1강의 실)
	품새교육	품새 교육은 1시간 50분 진행 6,7단은 경기장에서 진행 8,9단은 제 1강의실에서 진행	6,7단은 A조와 B조로 분리하 여 각각 30분씩 진행 8,9단은 현행대로 하되 시간 을 1시간으로 줄임
개 회 식	응심자 집결	안내방송 후 6,7단 응심자는 대기한 상태로, 8,9단 응심자 는 경기장으로 집결	8,9단 응심자가 경기장으로 들어 올 때 6,7단 응심자들은 박수치며 예를 표함 [응심자가 모두 집결하면 ‘명상’ 시간을 가짐]
	관계자입장	진행요원 및 심사위원들은 특 별한 순서 및 절차 없이 경기 장으로 입장하여 도열함	입장의 순서구분과 출입문구 분 사무처직원 : 북서출입문 심사위원, 진행요원, 국기원 임원 및 원로위원 : 남서출입문 국기원장 : 남서출입문
	원장입장	관계자들이 어느 정도 입장하 면 원장이 남서출입구로 입장	
	개회식	개식선언 국민의례 임원소개 개식사 폐식선언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 개식사 주지사항 폐회안내 [공정한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 선 서]
	주요인사 퇴장	폐회 안내 후 절차 없이 해산	퇴장의 순서 및 절차따라 퇴 장 국기원장 : 남서출입문 국기원임원 및 원로 : 남서출입문 8,9단심사위원 및 진행요원:북서문 사무처직원:북서문

			6,7단심사위원 및 진행요원:남서문
	품새선정	각 단 대표가 지정품새를 추천	이벤트 요소 결합
	응심자 퇴장 및 심사준비	품새 추천이후 6,7단 심사위원 및 진행요원은 자리에 착석 6,7단 응심자들은 동문쪽 서류대조석으로 이동 8,9단 응심자들은 북동출입구를 통해 제 1강의실로 이동 응심자들이 움직이는 동안 청소부가 경기장 바닥을 청소하고, 격파대 등 심사물이 배치 사회자가 사회자석에서 심사의 총괄진행 및 품새구령 담당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심사위원과 진행요원 응심자 퇴장 6,7단 응심자 동문쪽 스탠드위로 퇴장 후 대기 8,9단 응심자는 제 1강의실로 북동문을 이용하여 퇴장 모두 퇴장하고 난 후 장내정리 및 격파물 설치 본부석 사회자는 전체심사의 진행만을 담당
장점		임직원의 편의성 및 개강식의 시간 단축	고단자로서의 상징성 강조 - 움직임의 규정(직선움직임) - 예절의 규정(인사 및 태도) - 예식절차의 예식화
단점		개강식 전·후 무질서함 7~8년 정도 수련한 후 받는 심사로서의 권위와 위상이 드러나지 않음	움직임의 규정의 어려움

	[겨루기] [격파]	파)구성 - 품새 심사시 본부석 메인 사회자가 마이크로 구령함 - 격파 심사시 응심자가 각자 의 격파된 격파물을 가지고 퇴장 후, 조립해 놓음	- 품새 심사시 별도의 구령 자를 품새 심사장에 배치함 - 격파 심사시 응심자가 격 파한 조립물은 별도의 진행요 원을 배치하여 조립하도록 함.
	응심자 심사 후 대기	응심자는 품새, 겨루기, 격파 심사를 모두 본 후 신분증을 찾아 귀가함.	심사를 모두 마친 응심자는 자신의 신분증을 찾아 다시 동쪽 스탠드로 퇴장 함. 폐회식 대기함
	심사위원 퇴장	심사를 마치면 절차 없이 해 산	퇴장의 순서 및 절차따라 퇴 장 6,7단심사위원 및 진행요원:남서문
장점			예절 및 동선 개선을 통해 경기장 내의 질서 개선
단점		좁은 경기장에 많은 인원이 심사를 보는 문제로 많이 혼 잡	

다) 고단자 승단심사 (8, 9단)

	절차	현행안	개선안
내용	응심자 대기	8, 9단 응심자는 제 1강의실 서쪽에서 바닥에 앉아 대기	바닥에 매트 설치 혹은 의자 설치함.
	신원확인	심사위원석 옆쪽의 서류대조 석에서 신원확인 후 심사대기	
	심사[품새]	바닥에 보호장비 없이 맨발로 심사가 이루어짐 2명씩 심사를 받음, 그러나 심사장소가 협소함.	심사절차 및 진행과정을 정리 하고 격식을 갖춰져야 함 심사장의 보호시설 및 공간 정비가 필요함

	심사장 이동	응심자는 품새 심사를 모두 본 후 신분증을 찾아 (부)원장실로 이동함 심사직후 이동하기 때문에 맨 발로 이동하게 됨	심사를 마친 응심자는 자신의 신분증을 찾아 복식 및 절차를 갖춘 후 (부)원장실로 이동
	면점심사	면접은 (부)원장실에서 진행됨. 1~2가지의 질문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답하는 형태로 진행	
	응심자 퇴장	면접을 마친 8,9단 응심자는 귀가함	면접을 마친 8,9단 응심자는 경기장에 집결함
장점			8,9단 응심자들에 대한 예의와 최고단 심사에 대한 의미를 갖게 함
단점		최고 권위의 고단자 심사로서의 권위 및 의미를 갖지 못함 심사장의 공간의 협소 및 안정시설 미비	

라) 고단자 승단심사 폐회식 (6~9단)

	현행안	개선안
내용	없음	실행
장점	단 시간내에 마칠 수 있음 지방 응심자들의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음	심사예식의 권위 확보
단점	심사예식의 마무리가 결여됨	심사를 마친 응심자들이 귀

	으로써 권위상실	가하지 않고 폐회식에 참석 할 수 있는 당위성 있어야 함
--	----------	---------------------------------------

마) 심사예식 향후 개선안

	현행안	개선안
내용	6단부터 9단 응심자(230명) 의 인원과다에 따른 공간부 족 및 예식부재	- 사전심사제도 도입 필요 예) 실기심사 한달 전 사전 품새심사를 통해 최종인원을 선발 - 6, 7단과 8, 9단 응심자의 심사 분리 - 논문을 이메일로 접수하 여 사전 채점

2) 입문예식

가. 국기원 제1·2·3급 사범지도자 연수 현황

개강식 준비

- 연수생 집결
- 환복
- 오리엔테이션
- 스트레칭

개강식

- 관계자 입장
- 부원장 입장
- 개강식
 - 개회선언
 - 국민의례
 - 임원소개
 - 개식사
 - 폐식선언
- 주요인사 퇴장
- 연수생 퇴장



품새심사

- 연수생 집결
- 품새교육
- 연수생 대기
- 진행요원입장
- 심사위원 입장
- 심사안내
- 심사
- 심사평
- 심사위원 퇴장
- 연수생 퇴장

필기심사

- 연수생 대기
- 감독관 입장
- 심사안내
- 시험



수료식

- 연수생 집결
- 심사위원, 임직원 입장
- 부원장 입장
- 수료식
 - 개회선언
 - 국민의례
 - 수료증 수여
 - 표창장 수여
 - 수료사
 - 폐식선언
- 주요인사 퇴장
- 연수생 퇴장



나. 현행 및 개선안

가) 사범지도자연수 개강식

	절차	현행안	개선안
내용	연수생 집결	국기원에 오전 8시30분 집결 연수생에 번호표 배분	연수생은 국기원에 도착하면 연수 강의실을 확인함. 환복이후 경기장에 집결 번호 표를 받고, 착용함.
	환복	수험표를 받은 연수생 도복으 로 환복 (강의실과 탈의실에 서)	
	오리엔테이션	담당자 연수내용 설명 연수생 개강식 위해 도열함	태권도 관련 영상 및 이벤트 요소 결합
	스트레칭	환복한 연수생 경기장으로 집 결스트레칭 실시	스트레칭 및 명상 실시
	임직원입장	연수처장 및 임직원 동남쪽문 으로 입장	부원장 및 임직원은 연수생과 구분되는 남서문으로 출입
	부원장입장	부원장 동남쪽 문으로 입장	
	개식선언	15분정도 간단하게 진행	
	국민의례		
	임원소개		
	개식사		개회사 후 연수생대표 선서식
	폐식선언		
	사진촬영		
	주요인사퇴장	부원장님 주요인사 퇴장	남서문으로 퇴장
	연수생 퇴장	연수생은 경기장에서 대기하 다가 1, 2 강의실로 입장	남동문 (1강의실 이동 연수 생) 남북문 (2강의실 이동 연수 생)
장점		임직원의 편의성 및 개강식의 합리적 진행	국기원의 공간적 상징성 강조 - 출입문의 구분 - 움직임의 규정(직선움직임) - 예절의 규정(인사 및 태도)
단점		개강식 전·후 무질서함 지도자연수의 의미가 개강식 에서 드러나지 않음	경직되고 딱딱한 느낌 움직임의 규정의 어려움

나) 사범지도자연수 품새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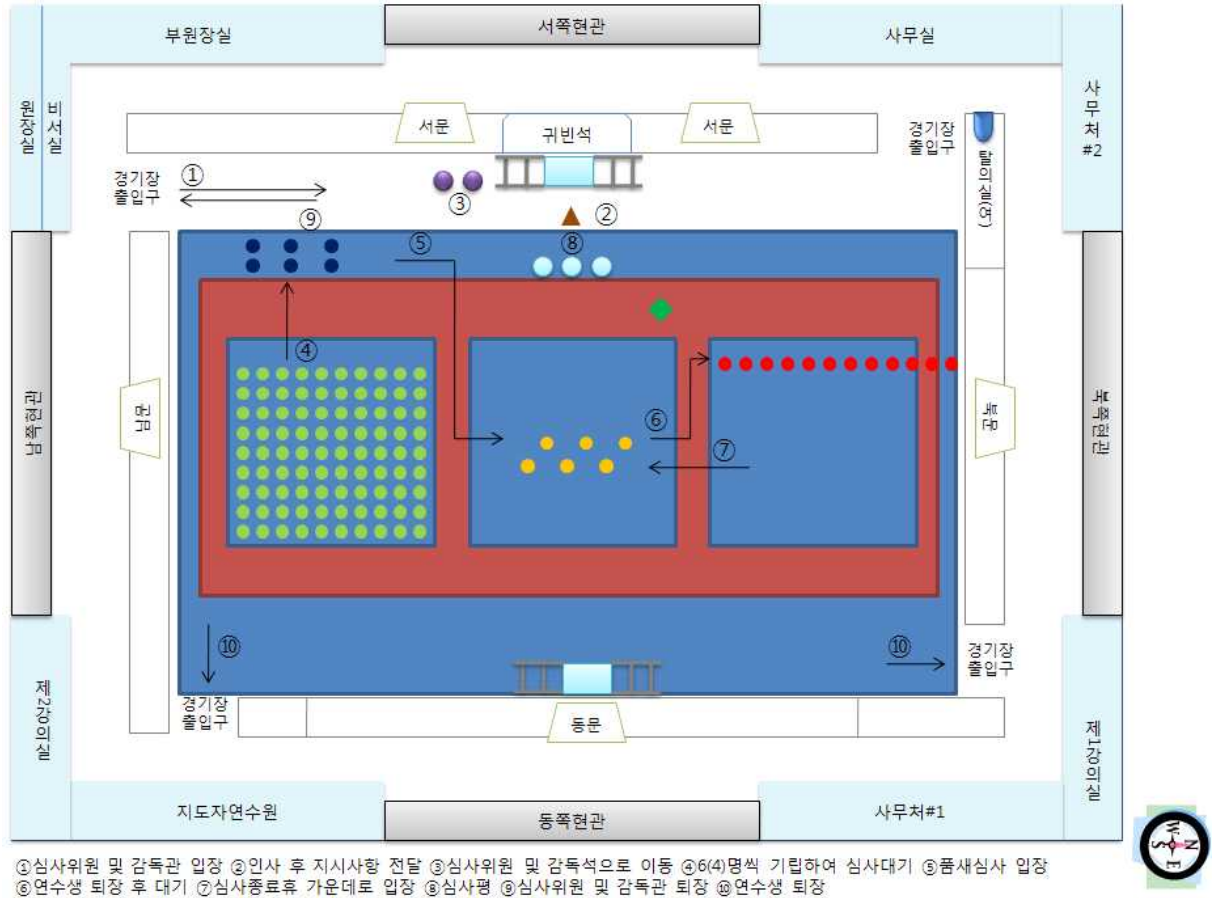


그림 123 사범지도자연수 품새심사 개선안

	절차	현행안	개선안
내용	연수생 집결	연수생 경기장 집결	연수생 경기장 집결 연수생은 경기장 남동쪽, 북 동쪽문으로 입장
	품새 교육	품새 교육 강사가 입장하여 품새교육 실시	품새 교육 후 ‘명상’ 등 이벤트 요소 결합
	연수생대기	품새 교육 후 연수생 경기장 남쪽에서 대기	경기장 남쪽으로 이동하지 않고 중앙에서 대기
	진행요원 입장	진행요원, 심사위원, 감독관 남동쪽 문으로 입장	감독관 및 진행요원 남서쪽문으로 입장
	심사위원 입장		심사위원은 품새 심사 발표이후 남서쪽문으로 입장

	인사	남쪽에 북향하고 서있는 연수생과 진행요원 및 심사위원 인사	예절의 규정(인사 및 태도)에 따라 인사법 개선
	심사안내	심사위원 및 진행요원은 자리에 앉고, 감독관이 심사 볼 품새를 알림	심사 품새 발표의 이벤트화
	품새심사	경기장 남쪽에서 연수생 대기 4(6)명씩 가운데 심사장으로 입장 [다음순서 8(6)명은 기립하여 연습] 심사장에 서면 ‘구령자’의 구령에 맞춰 2가지 품새 심사를 봄 심사 후, 북쪽 경기장으로 나아가 남쪽을 향하여 앉음	연수생 심사장 입장, 퇴장시 동선규정(직선 움직임) 필요
	심사 후 대기	연수생들의 모든 품새 심사를 마치면 경기장중앙으로 이동함	심사위원석 앞 이동시 동선규정(직선 움직임) 필요
	심사평	심사위원석 앞으로 이동하고 자리에 앉으면, 심사위원장이 심사평을 함	“
	심사위원 퇴장	심사평이 끝나면 연수생들은 일어서서 심사위원과 인사 후, 심사위원 퇴장	심사위원 퇴장시 예절의 규정(인사 및 태도)에 따라 인사법 개선
	연수생 퇴장	연수생 퇴장	연수생은 경기장 남동쪽, 북동쪽문으로 입장
	장점	100여명의 연수생 심사시간은 약 1시간 정도로 효율적 진행	예절 및 동선 개선을 통해 경기장 내의 질서 개선
	단점	지도자로서 자격을 심사받는 자리로서의 긴장감과 권위가 적음	

※ 1,2급 지도자와 3급 지도자 심사방식과 절차는 동일하나 다음 일부사항이 다름

- 3급 지도자 연수생이 많으므로 심사받는 숫자가 1,2급에 비해 많음
(예, 1,2급은 4명씩 심사를 받고, 3급은 6명씩 심사를 받음)
- 1,2급은 별도의 품새 구령자가 있고, 3급의 경우 응시자 가운데 한명이 구령을 붙임
[3급의 경우도 별도의 구령자가 필요함]

다) 사범지도자연수 수료식

	절차	현행안	개선안
내용	연수생 집결	연수생은 필기 및 실기심사를 모두 마치고 경기장으로 집결	연수생 경기장 집결 연수생은 경기장 남동쪽, 북 동쪽문으로 입장
	임직원 입장	심사위원과 연수처장 남동쪽 문에서 입장	심사위원은 품새심사 발표이 후 남서쪽문으로 입장
	부원장 입장	부원장 동남쪽 문으로 입장	
	개식선언	15분정도 간단하게 진행	
	국민의례		
	임원소개		
	수료증 수여		음악사용으로 수료의미 강조 이벤트요소 결합
	표창장 수여		
	수료식사		
	폐식선언		
	주요인사 퇴장	부원장 등 주요인사 퇴장	남서문으로 퇴장
	연수생 퇴장	연수생 퇴장 연수생은 경기장에서 퇴장하 여 강의실로 이동 후 수료증 수여	남동문 (1강의실 이동 연수 생) 북동문 (2강의실 이동 연수 생)
장점		임직원의 편의성 및 수료식의 합리적 진행	지도자연수과정 이수에 대한 의미 및 태권도지도자로서의 재인식하는 계기
단점		수료식 전·후 무질서함 지도자연수 과정을 이수한 의 미를 갖기 어려움	경직되고 딱딱한 느낌 움직임의 규정의 어려움

라) 사범지도자연수행사 향후 개선안

	현행안	개선안
내용	현행 수료식을 입문예식으로 포함하기 어려움 현행 자격증 수여가 각 시도지부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각 시도지부의 여건이 달라 어려움 예상	추후 각 시도지부의 여건파악 후 모든 입문자를 대상으로 하는 입문예식의 수립 필요 외부 공간에서 모든 입문자가 참석한 가운데 태권도 축제 형식의 입문예식 개발 필요

3) 수여예식

가. 국기원 9단 수여예식 현황

9단 수여식

- 장소 : 국기원 원장실
- 일시 : 9단 심사 3주 후 수여일시 결정 (년 4회)
- 절차
 - 개식선언
 - 수여식 거행
 - 단증(뱃지) 수여이후 원장님과 사진 촬영
 - 원장님 인사말
 - 수여식 종료



나. 현행 및 개선안

절차	현행안	개선안
내용	원장실에서 1년에 4회 거행 - 개식선언 - 단증수여 - 원장님과 기념촬영 - 원장님 축하말씀 - 수여식 종료	- 9단 수여자가 모두 참여하여 1년에 1회 거행함 - 영광스러운 수여예식 진행
장점	단 시간내에 마칠 수 있음	- 심사예식의 권위 확보 - 가족과 친지가 참석한 가운데 수여예식을 거행할 수 있음
단점	9단수여자로서의 명예를 드러내기 어려움	심사를 마친 응심자들이 귀가하지 않고 폐회식에 참석할 수 있는 당위성 있어야 함.

다. 수여예식 향후 개선안

	현행안	개선안
내용	명예스러운 예식 부재	외부 공간에서 단증 수여자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태권도 축제로 승화 필요

2. 복식

1) 태권도 예복 기초자료 조사

가. 선행연구 조사

가) 태권도복 디자인

현재까지는 태권도복이나 태권도화의 디자인에 관한 연구만 진행되었을 뿐, 심사위원·감독관·진행요원 등이 착용하는 태권도 예복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한국적 이미지를 바탕으로 태권도복 디자인을 개발한 전수경(2004), 최정화 외3인(2004), 정현정(2005)의 연구가 있고 기능적인 태권도화를 디자인한 권형수(2002)의 연구가 있다. 이외에도 윤상화·권관배(1998), 안용규(1999와 2000), 이송학 외2인(2004)의 연구로부터 태권도복의 변천사나 철학적 의미를 살펴볼 수 있다.

나) 한국적 이미지 디자인

최근 10여 년 간 한국적 이미지 또는 전통문화 이미지를 패션디자인에 접목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꾸준히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패션디자인의 대상은 수영복이나 축구복과 같은 선수용 유니폼부터 캐주얼 웨어, 노인의 조끼, 학생 교복 등 다양한 분야의 의복과 패션 소품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다) 경기용 이미지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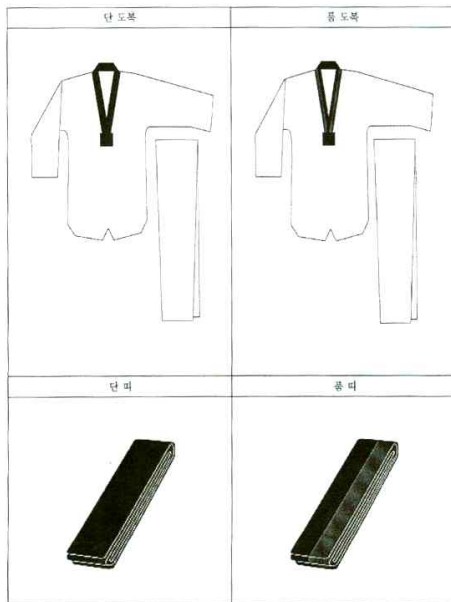
본 연구의 개발 대상은 태권도복이 아니라 태권도 예복이기 때문에 선수용 유니폼(uniform)을 제외하고 각종 스포츠 대회에서 심판이나 진행요원 등의 복식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86 아시안게임 및 '88 서울올림픽대회 등에서의 진행요원 유니폼에 대한 연구로는 김경순(1982), 강희경(1988), 김정현 외6인(1986), 임지숙(2005)의 논문을 들 수 있다. 또한 올림픽대회·아시아경기대회·유니버시아드대회 등 각종 경기 대회의 공식보고서나 백서 내용 중에는 유니폼의 제작과 지급에 관한 부분을 따로 정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태권도 예복의 제작과 이후 전국적, 세계적 보급까지도 비추어 볼 수 있겠다.

나. 현황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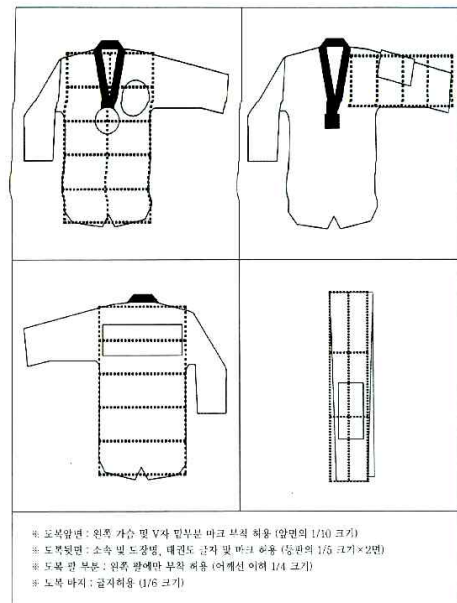
가) 심사예식

심사규정 제8조(심사시행) 2항 6호에서는 '심사위원을 비롯하여 진행요원·응시자는 지정한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심사규칙 제17조(복장)에서는 '심사위원과 진행요원은 지정한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고 적혀 있으나 '지정한 복장'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지침이나 별표(別表)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 다만 국기원에서 지정한 응시자의 단 도복과 단띠, 품 도복과 품띠가 별표로 명시되어 있고<그림1>, 응시자의 도복 부착물 허용범위가

정해져 있을 뿐이다<그림2>.



<그림 1> 지정도복 및 띠



<그림 2> 도복 부착물의 허용범위

사진들로부터 심사 모습을 살펴보면, 심사위원들의 복장을 통일하거나 진행요원의 복장을 통일하려는 등의 시도가 엿보이지만 시대나 지역을 아우르는 통일된 규정의 부재가 발견된다. 즉 태권도 예복에 대한 막연한 개념은 존재하며 필요성도 인식되나 현재 전국적 혹은 세계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기관별, 대회별로 별도의 복장규정을 정하는 실정이다. 가장 자주 보이는 심사위원의 복장은 흰색 칼라와 커프스가 달린 하늘색 셔츠에 스트라이프 무늬의 빨강색 넥타이를 매고 검정색 정장바지에 흰 운동화를 신은 차림이다 <그림3-5>.



<그림 3> 2009 부산광역시장배 태권도 품새대회 : 겨루기 심사위원



<그림 4> 2009 한국실업태권도 최강전 <그림 5>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배 태권도대회

그러나 지역이나 대회에 따라 복장 규정은 달라진다. <그림6>에서는 모든 심사위원들이 재킷을 입지 않고 흰색 셔츠에 붉은색 넥타이를 맨 복장으로, <그림7>에서는 흰색 셔츠에 하늘색 넥타이, 검정 정장바지에 금귤색 재킷 차림으로 통일하였다. <그림8>의 대전광역시 태권도협회에서 주관하는 승품단심사에서는 심사위원들이 3층 정자관에 옥색 도포 차림으로 심사를 하고 있다. 이는 각 시, 도의 태권도협회에서 자율적으로 규정을 마련하여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림 6> 2009 대한태권도협회 품새대회



<그림 7> 대전시 태권도협회 승품단 심사위원



<그림 8> 2009 한국여성태권도연맹 회장배 전국 태권도 품새대회

그나마 고단자의 심사에서는 심사위원의 복장 규정이 전혀 없다. 2006년 3월 국기원에서 행해진 고단자 승단심사 사진을 보면<그림9-10>, 심사위원들이 각자 자유롭게 정장을 착용하였기 때문에 재킷, 셔츠, 넥타이의 색상이나 디자인이 통일되지 않아 전체적인 예식의 품격이나 심사위원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림 9> 6,7단 심사위원



<그림 10> 8,9단 심사위원

나) 3급사범지도자 연수

2009년 10월 국기원에서 거행된 3급 사범지도자 연수 평가에서 입문자에 해당하는 응심자들은 태권도복에 태권도화를 착용하였다. 3명의 심사위원은 역시 각자 자신의 양복 정장을 착용하였다. <그림11>의 빨간 동그라미 안의 심사위원들은 서로 다른 색상의 재킷, 셔츠, 넥타이를 입고 있다. 오른쪽 노란 동그라미 안의 진행요원(사회자)는 국기원 직원의 유니폼에 해당하는 파랑색 점퍼(트레이닝 상의)를 입었고 왼쪽 파란 동그라미 안의 감독관은 재킷이나 넥타이 없이 바지에 셔츠만을 착용하였다. 전체적으로 일상복을 그대로 착용함으로써 간편하기는 하나 의례적인 느낌이 결여되고 행사의 권위가 떨어진다.



<그림 11> 3급 사범지도자 연수 평가

다) 수여예식

입문예식과 마찬가지로 2009년 10월 국기원에서 거행된 3급 사범지도자의 수료식 및 시상식에서도 모두 개인 정장을 착용한 모습이었다.<그림12-13> 지도자 자격증 수혜자들은 태권도복에 태권도화를 착용하고 명찰을 패용하였고, 자격증 수여자(빨간 동그라미)·사회자(노란 동그라미)·진행요원(사진촬영:파란 동그라미)는 모두 개인양복 정장 차림이다. 특히 바지정장을 착용한 연두색 동그라미 안의 여성 진행요원(자격증 수여 보조자)은 태권도 예복 디자인 개발 시 여성착용자에 대한 규정도 포함시켜야 함을 상기시켜준다.



<그림 12> 3급 사범지도자 연수 수료식



<그림 13> 3급 사범지도자 연수 수료식

2) 태권도 예복에 대한 태권도인들의 요구분석

가. 요구 조사 일정과 대상

태권도인들이 태권도 예복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요구를 알아보기 위해 개별 면접과 설문지 조사를 병행하였다. 구체적인 일정과 조사 대상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단계로는 자유롭고 심도있는 대화를 통해 잠재적인 요구까지 끌어낼 수 있는 개별 면접을 실시하였다. 2009년 10월 29일 국기원에서 진행되었고, 조사 대상은 태권도 고단자이며 국내외심판 및 도장 운영, 태권도 용품 판매 등 풍부한 경험을 지녔으며 현재도 태권도 관련 일을 하고 있는 국기원 관계자들이었다.<그림14-15>

두 번째 단계로는 2회의 Focus Group Interview가 예정되어있었으나 국기원측의 사정으로 취소되었다.

세 번째 단계로는 설문지 조사를 시행하였다. 2009년 11월 4일 국기원에서 치러진 1·2급 사범지도자 필기시험 문제로 태권도 예식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출제하였다. 조사대상은 1·2급 사범지도자 연수생으로, 1급 사범지도자 응시자 답안 27장과 2급 사범지도자 답안 77장이 회수되었다. 지도자 자격증을 획득하기 위한 필기시험의 문제형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성의있는 답변이 이루어졌다.



<그림 14> 이종관 교육팀장님 개별면접



<그림 15> 이근창 사무처장님 개별면접

나. 요구 조사 내용

가) 개별면접 설문지

개별면접에 사용되었던 설문지는 총 3장이었으며 7문항으로 이루어져있었다.<그림16> 내용은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태권도 관련 경력, 태권도 예복의 조작적 정의, 태권도 예복 제정에 대한 의견, 태권도 예복의 문제점, 태권도 예복 디자인에 표현되어야 할 이미지·색상·문양, 선호하는 디자인(한국적 전통성과 국제적 보편성), 계절별 종류, 태권도복에 대한 개선요구사항이었다. 먼저 설문지를 읽어보게 한 다음 문항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생각나는 것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유도했다.

1. 이름, 성, 성, 성

2. 태권도 예복 디자인에 국한하여 할 가장 중요한 개선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태권도 예복 디자인에 국한하여 할 가장 중요한 개선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 태권도 예복 디자인에 국한하여 할 가장 중요한 개선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 태권도 예복 디자인에 국한하여 할 가장 중요한 개선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 태권도 예복 디자인에 국한하여 할 가장 중요한 개선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7. 태권도 예복 디자인에 국한하여 할 가장 중요한 개선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림 16> 개별면접 설문지

개별면접 설문지 내용에는 총 5장의 시각자극물도 포함되어 있었다.<그림17> 본격적인 면접 전에 대학교 학위예복 디자인의 사례, 한국의 포(袍)를 응용한 디자인 사진, 태권도 복의 상의를 덧입는 디자인 사진, 양복에 한국적 소품, 디테일을 추가한 디자인 사진을

보여줌으로써 연구자의 견해를 보다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서이다.



<그림 17> 개별면접 시각자극물

나) 설문지 조사 문항

설문지 조사는 전술한 바와 같이 2009년 11월 4일 1·2급 사범지도자 필기시험 형식으로 출제되었다. 구체적인 필기시험 문항은 아래와 같다.

현행 국기원 심사규정에는 태권도의 승단심사를 시행할 경우에 별도의 예식규칙을 정하여 심사의 의식행사시 복장, 음악, 의전절차 등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륜에 비추어 앞으로 승품단 심사시 예식에 관한 의견을 기술하십시오.

다. 개별면접 결과 분석

개별면접에서는 통일된 예복의 부재(不在)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고, 심사위원·9단 피수여자 등이 개인정장을 착용함으로써 평상시의 복장과 다르지 않고, 일반사람과의 차별성도 없어서 예식에 대한 마음가짐이 진중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였다.

다음은 한국적 전통성과 국제적 보편성을 지닌 디자인 중 선호하는 스타일에 대해 물어보았다. 한복과 양복의 혼합 착용은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이유는 태권도 정신을 훼손

하고 의식의 품격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후의 국제표준화를 지향하기 위해서 양복을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한국적인 소품이나 디테일을 추가한 디자인을 요구하였다.

태권도 예복의 디자인에 표현되길 원하는 이미지로는 품위, 절제미, 단순, 소박함을 답했다. 즉 무도(武道)에 정진하기 위해서 화려함을 지양하기를 원했다. 선호 색상으로는 주조색은 흑백이나 검정 등 차분하고 절제된 색을, 포인트 컬러는 오방색 등 화려한 색이 조금 들어가도 괜찮다고 답변하였다. 선호 문양으로는 기하학적인 문양을 선호하였다. 설문지에 다양한 문양을 예로 들었는데, 태극 문양은 이미 식상하고, 단청과 색동은 너무 화려하며, 팔괘와 길상문자는 중국적 문양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서, 사군자는 무(武)의 이미지를 살리지 못하는 문(文)의 상징 문양이기에 선호되지 않았다.

계절에 따른 태권도 예복의 종류는 착용대상이나 상황에 따라 마련해야 할 옷의 가지수가 달라져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예를 들어 승단이나 사범입문예식은 사계절용 춘추복 1종류면 충분하고, 심사위원(심판)은 자주 착용하므로 여름용·겨울용·봄가을용을 모두 갖추어야겠다고 했다. 그밖에 태권도복의 개선방향으로는 태권도복의 특징인 검정 V-neckline을 살리면서 전면 개폐형태로 개발을 요망하였다.

라. 설문지조사 결과 분석

태권도 예복 디자인에 표현되길 원하는 이미지로는 권위·품위·위엄·위계질서 등이 언급되었다. 심사위원의 복식에 대한 의견으로는 심사의 권위를 살릴 수 있는 복식, 위원장과 위원의 구분, 등급별 구분을 가시화할 수 있는 복식을 원하였다. 응심자는 공인도복, 즉 국기원 지정 심사도복을 개발 또는 엄격히 규정하여 착용하기를 희망하였다. 태권도인의 단에 따라 구별되는 도복을 개발하게 되면 위계질서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스타일은 대부분 한국 전통 복식을 활용, 변형, 퓨전화하기를 원하였다. 또 법관 및 학위예복을 활용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통일된 양복에 넥타이, 뱃지, 리본, 휘장 또는 색, 원단, 문양 등 소품과 디테일을 변화시키자는 답변도 있었다. 아직 예복이 통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마다 태권도 예복에 대한 생각이 천차만별이며 선호하는 스타일 또한 다양함을 알 수 있었다. 이외에도 태권도복의 이미지를 살리자는 의견으로 심사위원도 태권도복을 착용하되 차별화된 마스터도복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행사진행요원도 태권도복의 이미지를 변화한 형태로 착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결론적으로 태권도인들은 통일된 복식으로 심사의 격식을 갖추고, 이를 통해 권위가 갖추어지기를 희망하였다. 또한 복식을 통하여 위계질서를 가시화시켜주기를 원했다. 현재 품과 단으로만 구분되는 도복에 대한 불만이 매우 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장에 있어서 통일된 규칙을 제정하고, 세부적인 차별화 방안이 요구된다.

설문 조사를 통해서 태권도복에 대한 긍정적 시각과 자부심이 드러났다. 굉장히 많은 태권도인들이 흑백의 조화 즉, 도복의 이미지를 활용하기를 원하였다. 그러나 한국전통문화의 수용 희망 정도는 개인차가 있어서, 양복에서 한국 전통 복식까지 원하는 스타일의 범주가 다양했다. 이밖에도 복식에 태권도 정신이나 태권도의 가치를 담기를 원했다.

3) 태권도 예복 디자인 컨셉

가. 예복 디자인의 목표

태권도 예복을 디자인하기에 앞서 디자인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첫째, 한국의 전통미를 드러내고 나아가 태권도 정신을 표현할 것. 태권도 종주국인 한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부분이다.

둘째, 권위를 높여줄 것. 이는 설문조사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었던 의견으로, 태권도인들은 태권도에 관련된 행사와 의식에서 통일된 복식으로 심사의 격식을 갖추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셋째, 차별화를 추구할 것. 태권도인들은 복식으로 위계질서가 표현되기를 원하고 있었는데, 이는 현행 태권도복이 품도복과 단도복으로만 구분이 되어 있는 데에 대한 불만으로 여겨진다. 품도복의 경우 띠의 색으로 구분이 가능하나 유단자의 경우 <그림1>에서와 같이 검은 띠에 검은 띠로 1단부터 9단까지 모두 동일한 태권도복을 입고 있다. 따라서 세부적인 차별화 방안이 요구되며 특히 최고단자인 9단이나 명예9단 등의 도복이 별도로 연구 개발될 필요가 있다.

넷째, 태권도복의 이미지를 활용할 것. 태권도인들은 태권도복을 긍정적으로 여기고 이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므로 흑백의 이미지, 절제감을 유지해야 한다.

다섯째, 새로이 개발되는 전체 의례 혹은 CI와 긴밀히 연계될 것. 함께 연구개발 중인 예식, 음악, 이벤트, 특히 공간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이고, 국기원의 CI와도 전체 컨셉 및 기본 색상, 문양 등의 디자인 요소를 통일시켜 원원효과를 거두도록 한다.

나. 착용자의 분류

본 연구 대상이 되는 예식은 심사예식·입문예식·수여예식의 3종류인데, 모든 인물의 복식을 다르게 디자인하여 제작, 착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비용과 노력면에서 어려움이 따른다. 예를 들어 동일한 인물이 예식별로 다른 복식을 입는다면 구입비용도 많이 들고 절차도 번거롭다. 이에 각 예식에서의 착용자를 아래 <그림18>과 같이 범주화하였다.



<그림 18> 예식별 착용자 분류 체계

첫 번째 청색 그룹은 각 예식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인물들이다. 심사예식에서의 감독관과 심사위원들, 입문예식에서의 지도자, 수여예식에서 단증이나 자격증을 수여하는 수여자가 여기에 속한다. 현재 시·도협회의 회장, 원로위원, 기술전문위원회의 의장과 부의장 등이 담당하고 있으며 고단자 또는 최고단자이다.

두 번째 녹색 그룹은 예식의 진행을 이끌어가는 인물들이다. 크게 사회자와 진행요원으로 구분되며, 진행요원은 신분증 대조, 줄세우기, 출입구 정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이외에도 구령자, 사진사, 계시원, 기록원, 의료진 등이 포함되겠다. 특기할만한 점은 수여예식에서 단증이나 자격증을 수여할 때 보조자로 여자 진행요원이 포함되므로 성별에 따른 진행요원복식을 디자인해야 한다. 이들은 태권도인이 아닐 수도 있다.

세 번째 주황색 그룹은 현재 태권도복을 착용하는 인물들이며, 9단증이나 명예9단증을 받는 사람은 예외적으로 태권도복 대신 양복 정장 차림을 하고 있다.

다. 스타일, 색, 문양과 디테일, 소재

가) 스타일

예복 디자인의 시안은 2가지 스타일로 전개해 보았다. 하나는 종주국인 한국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 전통적인 한국복식의 활용한 '한국적 구성안'이고, 다른 하나는 세계화와 대중화를 위해 양복 Suit와 Gown(법관복·학위예복·종교복)을 활용한 '서양적 구성안'이다. 이는 다시 인물의 역할에 따라 ① 감독관·심사위원·지도자·수여자, ② 사회자·진행요원(남)·진행요원(여), ③ 응심자·입문자·피수여자의 3가지 범주로 구분하였다. 각 범주 내에서는 디테일이나 색상만 변화시킴으로써 전체적인 디자인의 통일과 변화를 동시에 추구하였다.

태권도복은 평상용과 의례용으로 구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왕(王)이나 백관(百官)의 복식에 있어서 착용상황이나 예식에 따라 제복(祭服)·조복(朝服)·공복(公服)·상복(常服)·편복(便服) 등으로 구분되었던 것은 고려 이후로 문헌에 기록된 전통적인 복식문화이므로 이를 계승하는 의미가 있다. 게다가 현재 태권도복에 대한 가장 큰 심리적 불만족 요인은 승단 이후 구분 없다는 점과 수련복과의 구분 없어 위엄이 떨어지는 점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태권도복을 상황에 따라 2가지로 나눌 필요가 있다. 즉 심사를 받을 때에는 수련복에 해당하는 평상용 태권도복을 입고 이후 입문이나 수여예식에는 자신의 단(段)과 소속, 경력 등이 구분되는 의례용 태권도복을 입는 방식이다. 2가지 태권도복은 형태적 차이를 둘 필요는 없으나 다만 평상용은 수련이나 심사에 적합하도록 가장 단순하고 깔끔하게 표식을 최소화하고, 의례용은 금장/의령장(襟章/衣領章)·견장(肩章)·흉장(胸章)·수장(袖章)·봉장(縫章) 등 휘장(徽章)의 개념을 도입하여 정해진 부위에 규정된 표식들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면 된다.<그림19-20>의 의례용 태권도복이 정착되면 고단자들은 저절로 좋은 재질의 태권도복을 장만하게 될 것이고 국기원에서 제시하는 복식규정에 맞추어 각종 휘장들을 부착할 것이며, 점차 평상용 태권도복과는 다른 형태로 변화하리라 예측된다. 차후에는 태권도복, 특히 의례용 태권도복은 <그림21>에서와 같이 직령(直領) 교임(交衽)에 가장자리에 선(襟)을 두르는 등 예로부터 전해지는 전통복식의 특성과 의미를 보다 적극적으로 흡수하는 형태로 변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그림 19> 군복의
휘장 부착 모습



<그림 20>
SS무장친위대의
계급장



<그림 21> 삼국시대 사신들의
복장

이외에도 활동성을 위해서 인물의 역할별로 동작의 양을 고려하여 옷이나 소매의 길이와 너비를 결정하였으며, 실용성을 위해서는 동일 인물이 다른 예식에서 연계하여 입을 수 있고 각 도장에서 관장 혹은 사범의 복식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후 산업적 생산을 고려하여 피팅성에 구애받지 않는 디자인으로 채택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관모(冠帽), 즉 모자류는 디자인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가장 큰 이유는 보관과 운반 문제 때문인데, 법관의 법복 역시 간소화를 위해 1966년부터 모자를 생략하고 있다.

나) 색

태권도 예복은 기존 태권도복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 흑백(黑白)을 Main Color로 사용하였다. 여기에 위계와 서열을 구분하기 위해 검정색[Black]의 면적 비율을 조절하였다. 검정색은 예로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권위, 위엄, 숭고, 엄숙을 상징하는 색이었다. 따라서 권위를 요하는 감독관·심사위원·지도자·수여자 등 청색 그룹의 복식은 검정색의 면적 비율을 높이고 사회자나 진행요원의 녹색 그룹의 복식은 검정색의 비율을 줄이고 백색의 비율을 높였다.

예복(禮服)을 의미하던 흰색 덧단[Cuffs]을 디자인 모티프로 사용하였다. 원삼(圓衫) 등 소매가 넓은 예복 포(袍)의 한삼(汗衫), 당의(唐衣)나 저고리의 거들지 등에서 보이는 것처럼, 한국 전통 복식에서는 예(禮)를 갖추기 위해 흰색 천을 소매 끝에 대어 손을 가려주었다.<그림22의 ①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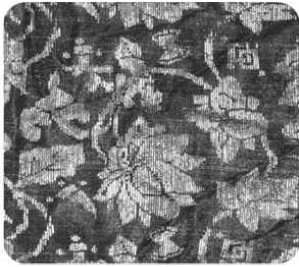
Point Color로는 금색[gold]을 사용하였다. 이는 최근 개발된 국기원 CI에서의 색을 활용하는 차원이기도 하며, 9단 도복으로 제시할 깃[collar]의 불문(紋)<그림22의 ③>에서도 사용되는 색이다. 이외에도 <그림22의 ④⑤>와 같이 가장자리에 선을 칠 때[Piping 기법] 금색 선을 사용하며, 용보<그림22의 ⑥>에서도 금색 자수가 사용된다.



<그림 22> 예복 색상의 리소스

다) 문양과 디테일

문양을 직접적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그림23>과 같이 전통문양이 있는 직물을 부분적 혹은 전체에 사용하여 자카드직물의 문양으로 은은하고 기품있게 전통미를 표현하려 한다. <그림24>의 용문양은 왕의 상복(常服)에 부탁되었던 것으로 의례와의 연관성이 있다. <그림25>의 국기원 CI를 태권도복의 깃 아래에는 물론 넥타이나 스카프 등에 적극 활용하여 공간디자인 및 모든 상품디자인과 통일감을 갖도록 한다.



<그림 23> 직물의
문양



<그림 24> 용보
문양



<그림 25> 국기원의

라) 소재

채택된 시안에 따라 직물의 선택도 달라진다. 즉 제1안의 한국적 스타일은 걸감으로 운문단이나 운문사를, 안감은 명주 또는 노방으로 제작하되 비용이나 세탁의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물세탁이 되는 합성섬유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하다. 제2안의 서양적 스타일은 전체적으로는 쿨울(Cool Wool)을 사용하여 사계절용으로 착용하도록 하고, 심미성과 신분상징성을 위해 부분적으로 벨벳을 사용하고자 한다.

내구성이 좋은 자수(刺繡)로 장식한다. 원래 음양오행설에 의하면 상의(上衣)는 양(陽)이므로 그림[繪]이나 금박을 해야 하는데, 내구성(세탁견뢰도)을 위하여 자수로 대신한다. 예를 들어 흉배·보(補), 각종 휘장 등을 자수로 처리하고, 9단 도복의 불문도 금박이나 금색 프린트로 표현하기 보다는 수를 놓는 편이 낫다.

4) 태권도 예복 디자인 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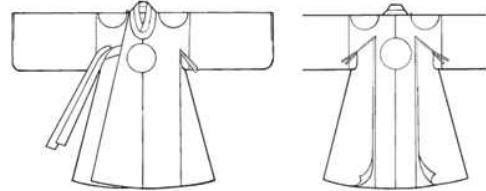
가. 한국적 구성안

가) 감독관, 심사위원/지도자/수여자의 복식

심사예식에서의 감독관과 심사위원들, 입문예식에서의 지도자, 수여예식에서 수여자들, 즉 첫 번째 청색 그룹은 각 예식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인물들로서 검정색 단령포(團領袍)를 착용한다.<그림26><그림27> 단령은 전통사회에서 대표적인 관복(官服)이며, 왕을 상징하는 용보(龍補)를 가슴·등·양쪽 어깨에 부착함으로써 모든 예식을 주관하는 인물임을 나타낸다. 또한 현재 외국에서 사범들의 마스터도복에 이미 용보를 부착하여 착용한 예가 있으므로 한국적 혹은 동양적 이미지와 함께 권위를 부여하는 효과가 있겠다. 단, 과거의 곤룡포를 그대로 착용하는 것이 아니라 태권도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 후색 단령포에 백색 깃을 안쪽에 달고, 단령의 둥근 깃 주변에 금색 파이핑 처리를 하며 치수도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을 만큼 대폭 줄이고자 한다. 고름 역시 착용과 탈의에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생략하거나 아니면 고름이 매져있는 상태로 걸썬 위 가슴부분에 고정시켜서 장식적 효과로만 남긴다. 옷감은 용문(龍紋)이나 구름무늬[雲紋] 등 남성용 옷감을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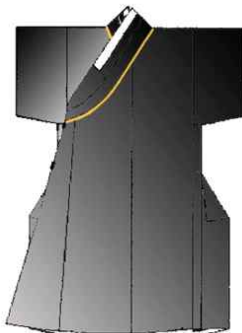
<그림 26> 흑색 곤룡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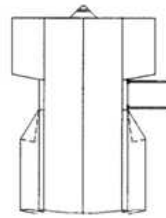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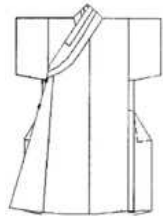
<그림 27> 곤룡포의 도식화

나) 사회자, 진행요원(남), 진행요원(여)의 복식

녹색 그룹의 예식 진행을 담당한 사회자와 진행요원은 전술한 청색 그룹보다 활동성이 요구되므로 반소매 복식인 답호(裕護)를 채택한다.<그림28><그림29> 속에는 흰색 셔츠에 검정 바지를 입거나 태권도복을 착용할 수 있다. 둥근 깃[團領]이 직선 깃[直領]의 옷보다 품격이 높으며 겉에 입혀졌기 때문에, 청색 그룹이 둥근 깃의 단령을 입고 녹색 그룹이 직선 깃의 직령을 입으면 전통적인 신분체계와도 일치한다. 또한 답호가 반소매 옷이고 품도 좁으므로 곤룡포에 비해 검정색의 면적 비율이 줄어들어 상대적으로 권위도 덜 느껴진다. 답호 역시 깃주변에 금색 선을 두름으로써 디자인의 단조로움을 피하고 곤룡포와의 통일감을 부여한다. 복식유물의 치수보다 작게 만들고 여성용은 더 작고 짧게 제작하며 여밈용 끈은 매듭단추로 대체한다. 사회자, 진행요원의 역할별로 다른 색의 띠[帶]를 매어주어 구별한다.<그림30>



<그림 28> 흑색 답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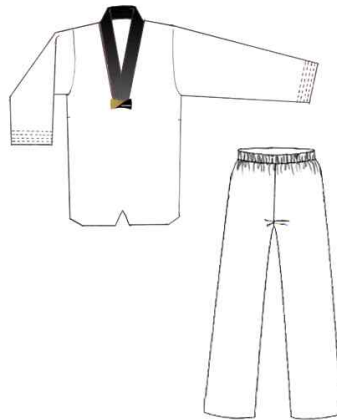
<그림 29> 답호의 도식화



<그림 30> 띠[帶]의 착용 모습

다) 응심자/입문자/피수여자의 복식

주황색 그룹은 예식에 따라 2가지로 나뉜다. 심사예식에서는 평상용 태권도복을 착용하고, 입문예식과 수여예식에서는 의례용 태권도복을 착용하게 되는데 기본 복장은 형행 태권도복과 동일하며 자세한 사항은 3) (1) 스타일 항목에서 전술한 바와 같다.<그림31>



<그림 31> 국기원 CI가
부착된 태권도복

나. 서양적 구성안

가) 감독관, 심사위원/지도자/수여자의 복식

각 예식을 주관하는 청색 그룹의 서양적 구성안은 곤룡포 이미지의 흑색 가운(gown)이다.<그림32><그림33> 다시 말해 둥근깃[團領], 가슴·등·양쪽 어깨에 부착한 4개의 용보(龍補) 등은 한국적 구성안의 흑색 단령포와 일치하나, 실제 구성[pattern]에 있어서는 종교복식·법관복(法官服)·학위예복으로 착용되는 서양식 가운이다. 앞에서 지퍼로 여단을 수 있어서 입고 벗기가 훨씬 수월하다. 소매의 배래선을 한국 포(袍)의 배래선에 가깝게 만들고, 둥근 깃과 소매 끝에 검정색 벨벳을 대어주어 같은 검정색이어도 미묘한 텍스처어의 차이를 준다. 둥근 깃 주변에 금색 선을 파이핑 처리하여 착용자의 얼굴에 시선을 집중시키는 디자인이다.



<그림 32> 검정 가운



<그림 33> 가운의
도식화

나) 사회자, 진행요원(남),진행요원(여)의 복식

예식 진행을 담당한 사회자와 진행요원은 기본적인 서양 수트(suit) 차림이다.<그림 34-37> 다만 태권도복의 이미지를 이어가고 청색 그룹과의 통일성을 위해 검정색을 주조색으로 하고 흰색 칼라와 커프스를 대준다. <그림34>에서 소매 끝에 흰색 천을 덧대는

것은 예복(禮服)의 전통적 상징성을 살리는 것이며, 흰색 깃과 소매 끝 덧단은 전통직물(운문단이나 운문사)을 사용하여 은은한 전통미를 더한다. 금색 파이핑 처리 대신 금색 단추를 달아주어 포인트를 준다. <그림36>의 여성용 스커트는 조선시대 여성 예복 일습 중 전행웃치마의 주름을 디자인 모티프로 차용한 것이다. 날씨가 더운 하절기용으로, 혹은 시야를 확보하고 팔동작이 자유롭기 위해서 심판용으로 <그림37>의 조끼를 착용하는 방안도 제시한다.



<그림 34>
남녀 정장 상의



<그림 35>
남성 정장 하의



<그림 36>
여성 정장
하의



<그림 37>
하절기용/심
판용 정장
상의(조끼)

사회자와 진행자, 진행자 중에서도 역할의 구분은 남성용 넥타이와 포켓치프, 여성용 스카프의 색을 활용한다. 수트는 심플하고 클래식한 디자인으로 하고 셔츠와 같은 이너웨어(innerwear)나 넥타이 등의 소품을 트렌디하게 변화시킨다면 제작, 보관, 비용을 현실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와 전국의 주요기관에서 패션문화상품을 자체 제작하고 있는데 <그림38-40>, 국기원에서 CI를 활용한 넥타이·포켓치프·스카프 등을 여러 색상으로 제작한다면 손쉽게 진행요원들의 역할 구분을 가시화할 수 있으며, 기념품으로 증정하거나 판매도 가능하다.



<그림 38>
진도군의 문화상품
넥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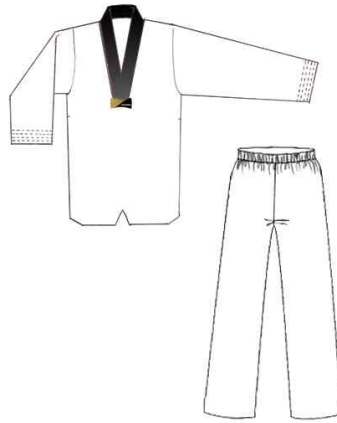


<그림 39>
진도군의 문화상품
스카프



<그림 40>
광양시의 문화상품
넥타이

다) 응심자/입문자/피수여자의 복식
이상에서 살펴본 한국적 구성안의 복식과 동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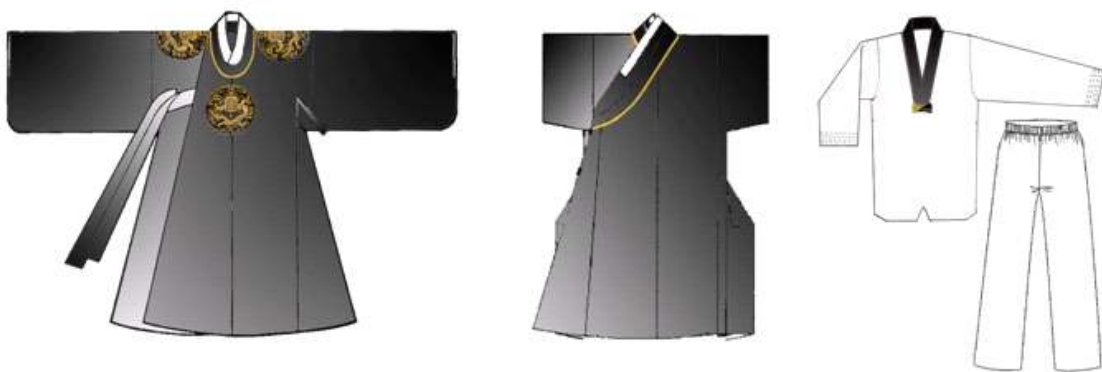


<그림 41> 국기원 CI가
부착된 태권도복

다. 시안의 종합 비교

세가지 착용자로 분류된 태권도 예복의 한국적 구성안과 서양적 구성안을 동시에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1) 한국적 구성안



<그림 42> 한국적 구성안의 태권도 예복 디자인

(2) 서양적 구성안



<그림 43> 서양적 구성안의 태권도 예복 디자인

5) 태권도 예복 디자인에 대한 논의사항

가. 복장 매뉴얼의 제작 및 배포

예식 개발과 함께 예복 디자인이 확정되면 국기원에서 주관하여 태권도복과 태권도 예복에 관한 매뉴얼을 제작하여 전국에 배포하여야 한다. 이때 복장 매뉴얼에는 디자인 뿐만 아니라 각 부위별 치수, 위치에 대한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만약 의례용 태권도복을 도입하게 되면 각종 휘장(국가, 단, 대회참가 및 수상경력)의 위치와 규격, 문양의 종류 등에 관한 추가 연구가 요망된다.

나. 계절별 복장의 종류

계절별 복종은 착용장소, 빈도수, 구입비용 지출에 대한 의식 등을 조사 후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현재로서는 일단 계절별 디자인을 따로 마련하지 않고 동일한 디자인에 재료만 변화시키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다. 기타 문제점 해결

이외에도 몇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남아있다.

첫째, 경기용 심판의 복식이다. 경기에 있어서의 주심과 부심은 승품·승단심사의 심사위원과는 달리 훨씬 더 활동적이고 기능적인 복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경기에서의 권위와 위계질서를 갖추는 동시에 동작과 시야 확보를 고려한 별도의 디자인이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국기원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한정하여 고단자의 예식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태권도복을 평상용과 의례용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저단자의 경우 현실적인 비용 문제로 인해 태권도복의 이분화 가능성은 희박하리라 여겨진다.

셋째, 서양적 구성안을 채택하게 되면 넥타이 등의 직물 디자인이 요구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역할이나 시대에 따라 패션소품만을 바꿔줌으로써 길게 보면 비용절감효과를 노

릴 수 있는 방안이지만 당장은 추가 디자인 비용과 제작 시간이 걸린다.

넷째, 최근에 개발된 9단 도복의 수정 문제이다. 2009년 9월 3일, 무주에서 열린 <국기원 태권도 9단 최고 고단자회 세미나>에서 깃에 금색 봉황무늬를 넣어 장식한 9단 도복이 선보였다.<그림43-44> 화려하기는 하나 한국 전통 복식의 역사적 맥락에서는 특별한 의미를 찾기 어려운 문양이다. 이에 태권도복의 깃 부분에 불문(黻紋)을 장식하는 대안을 제시한다. 불문은 왕의 면복(冕服) 일습 중의 하나인 중단(中單) 깃에 금색으로 그려진 문양으로<그림45-46> 악(惡)을 등지고 선(善)을 향하는 배악향선(背惡向善)의 의미를 담고 있어 태권도정신과도 상통한다. 마침 장식된 부위도 동일하므로 이처럼 불문을 차용할 것을 권장한다.



<그림 44>
최근 개발된 9단 도복



<그림 45> 국기원 태권도 9단 최고 고단자회
세미나 광경



<그림 46> 왕의 면복(冕服)과 중단(中單)



<그림 47>
중단 깃의
불문

다섯째, 명예9단 도복의 개발 문제이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한일정 중에 명예9단 중과 태권도복 수여식이 포함되어 있었다.<그림47> 이외에도 국내외의 중요한 인물에게 친선 등 다양한 목적으로 명예9단이 수여되고 있는데<그림48-49>, 이때 함께 수여되는 태권도복은 9단 도복과는 디자인을 달리 하되 대한민국과 태권도라는 국가브랜드에 걸맞는 품위를 지녀야한다. 명예9단 도복 역시 국기원의 복장 매뉴얼에 담아야 하며, 이 디자인 개발은 차후의 과제로 남긴다.



<그림 48> 2009년 오바마 미국 대통령
명예9단 수여



<그림 49> 2008년 인도네시아
대통령 명예9단 수여



<그림 50> 2008년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명예9단 수여

3. 공간

1) 디자인 컨셉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경기장을 보면 전체적 분위기가 푸른 계열의 색으로 경기장을 표현하는데 색은 단순히 미적 도구가 아닌 우리 환경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기본 요소 뿐 아니라 환경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며, 통일된 색으로 그 공간만의 아이덴티티를 느끼게 될 것이다.

또한 국기원만의 그래픽을 이용하여 공간을 표현하고, 경기장을 포함해 심사 위원석, 내부 벽면, 관람석 등 하나의 컨셉을 주어 전체적인 공간의 분위기를 통일된 이미지로 표현함으로써 예식이 더욱 더 집중될 수 있으며 조화로운 공간 연출이 가능할 것이다.

세계 태권도의 중심에서 힘차게 도약하는 국기원의 비전과 태권도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담고 있는 태권도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그래픽 표현과 국기원의 심불을 이용하여 공간 연출을 제안한다.

인간은 좀 더 쾌적하고 기분 좋은 장소를 기대하지만 구조적인 상태로는 불가능 한 일이다. 국기원의 빈 공간에 화장을 하고 벽을 설치하여 공간을 분리하고 가구를 배치하며, 장소에 맞는 적절한 조명과 그래픽 표현으로 분위기를 고급스럽게 연출해서 소극적인 공간에서 적극적인 공간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한국의 대표 브랜드로서
태권도 상징



통일 된 하나의 컨셉으로 구성



공간의 통일된 색채 계획
오방색, 태극무늬



세계 태권도의 중심지로서의 위상
태권도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공간 연출

그림 51 국기원 공간개발의 컨셉

2) 전체적인 공간 구성

가. 문제점 분석 및 제안 1



그림 52 국기원 내부

위 그림은 국기원 내부 동문쪽 모습이다. 심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벽면 앞의 온풍기 주변으로 응시자들의 옷, 짐, 신발, 가방 등이 쌓여있어 질서가 없고 어수선하다.



그림 53 2008 베이징 올림픽 경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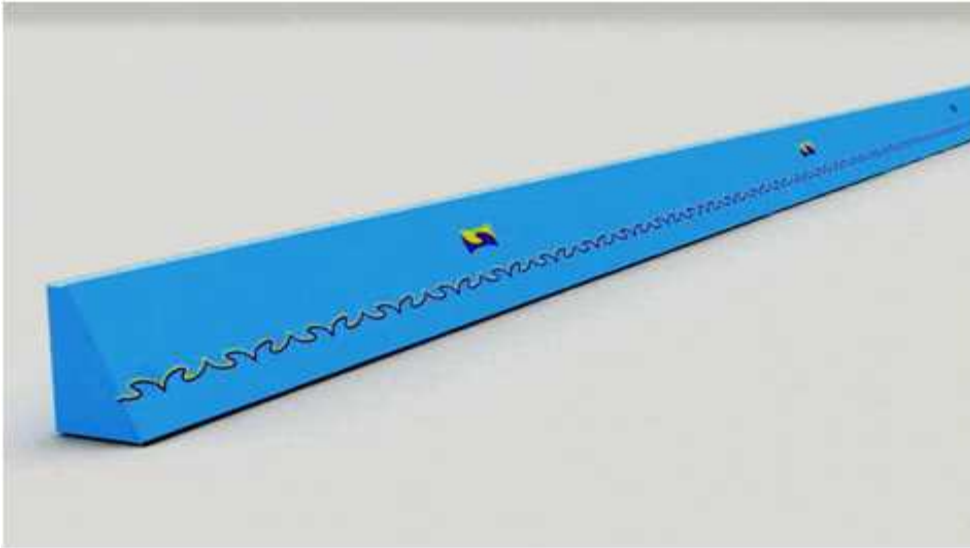


그림 54 새로 제안된 가림막의 모습

그림 53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경기장 내부 모습이다. 이와 같이 가림막 설치를 통해 국기원 경기장 내 어수선한 분위기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즉, 그림 54와 같은 가림막 설치가 공간을 분리해주는 수직적인 요소로 작용하여 기존의 온풍기, 응시자들의 옷, 짐 등으로 인한 질서 없고 어수선한 국기원 내부 환경이 아닌 정리된 내부를 예상할 수 있다.



그림 55 가림막으로 가려진 국기원 심사장 내부

나. 문제점 분석 및 제안 2



그림 56 경기장 내부 심사위원석

위 사진은 국기원 경기장 내 심사위원석 모습이다. 심사시 테이블과 의자를 경기장 바닥으로 내려 테이블보를 씌워 사용한다. 이러한 테이블과 의자는 국기원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7 베이징 과학기술대학 체육관

위 사진은 2008 베이징 올림픽 당시 베이징 과학기술대학 체육관 내부이다. 이처럼 색

채 계획에 따른 색상 적용이 필요하며, 접이식 의자를 사용함으로써 이동이 편리하고, 미 사용시 정리 및 공간 활용이 용이해질 것이다.

다. 문제점 분석 및 제안 3



그림 58 국기원 내부 심사위원석과 계단

위 사진은 국기원의 심사위원석과 실내 계단 모습이다. 테이블은 경기장과 동떨어진 느낌을 주며 중앙의 계단이 두드러지게 노출되어 방만한 느낌이다.



그림 59 베이징 과학기술대학 체육관



그림 60 심사위원석, 단상, 실내계단 제안

경기장과 이질감 나는 테이블과 의자를 전체적인 배경과 어우러져 눈에 잘 띄지 않도록 컬러와 디자인을 새롭게 하고, 실내 계단은 건물에 있어서 중요한 디자인 요소가 될 수 있으며, 구조적 시스템과 인테리어 공간 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경기장 귀빈석 정면의 계단 하부는 양쪽으로 만들어 품위 있는 공간 연출을 해야 한다.

3) 경기장 바닥 개선

가. 문제점 분석 및 제안 1



그림 61 국기원 경기장 바닥

기존의 평평한 경기장 바닥과 통일감이 부족한 경기장 환경으로 집중도가 떨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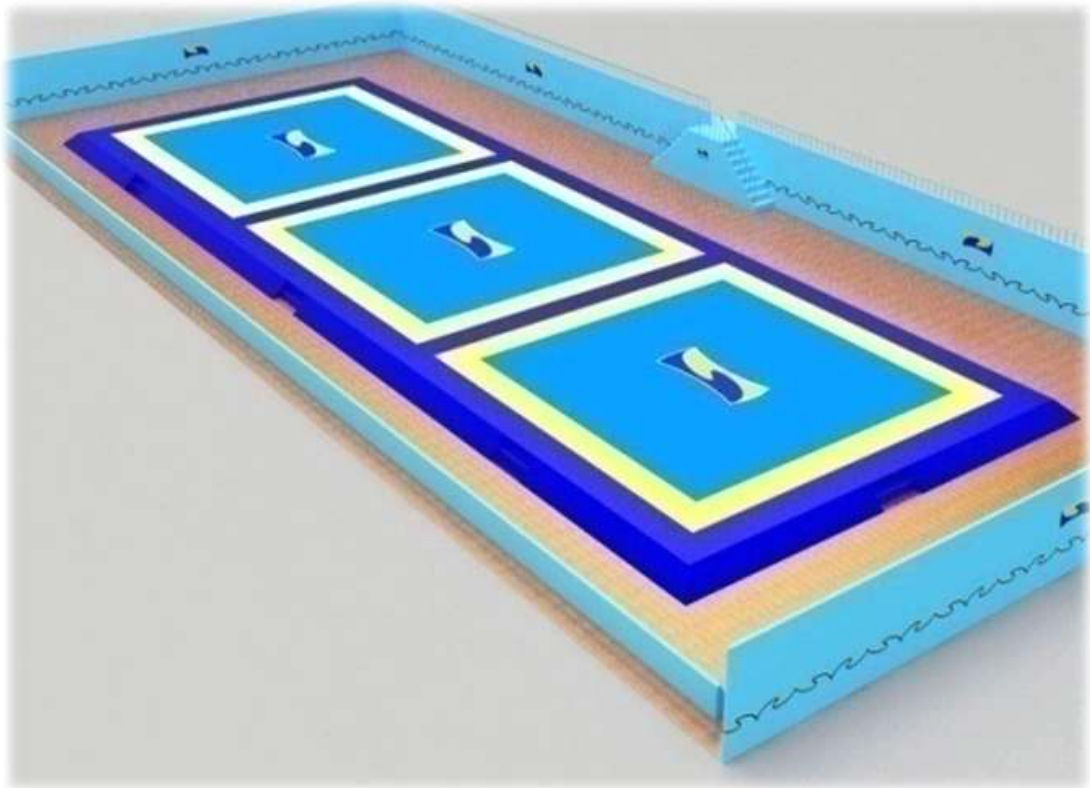


그림 62 제안된 국기원 경기장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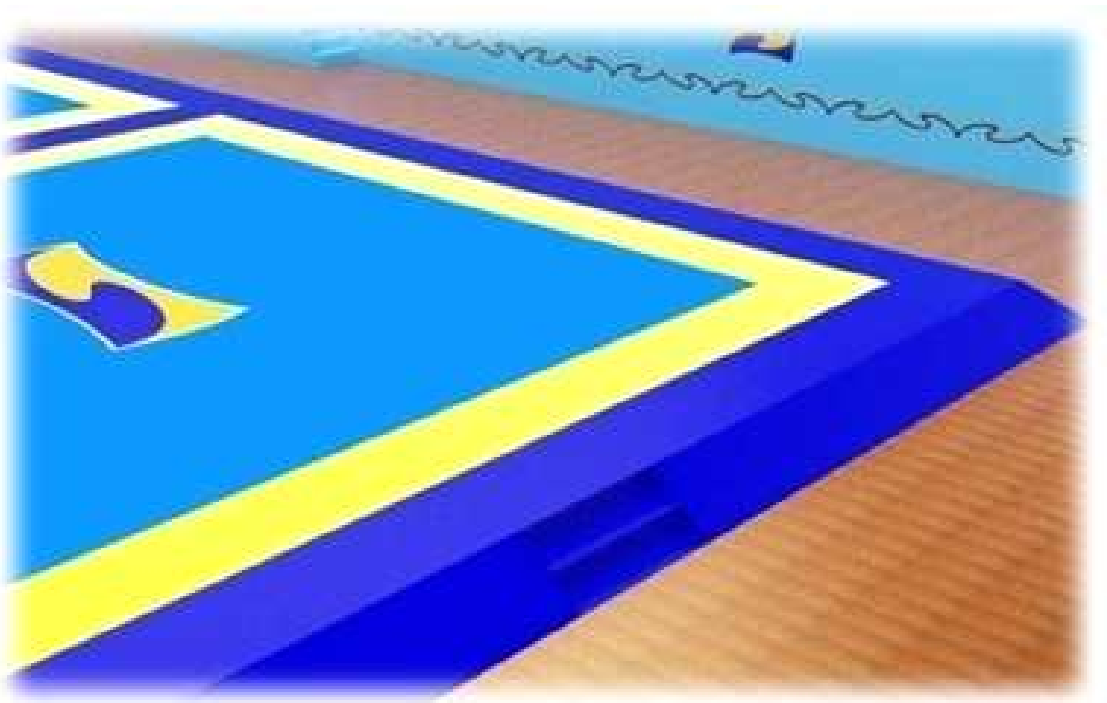


그림 63 국기원 경기장 바닥 옆 계단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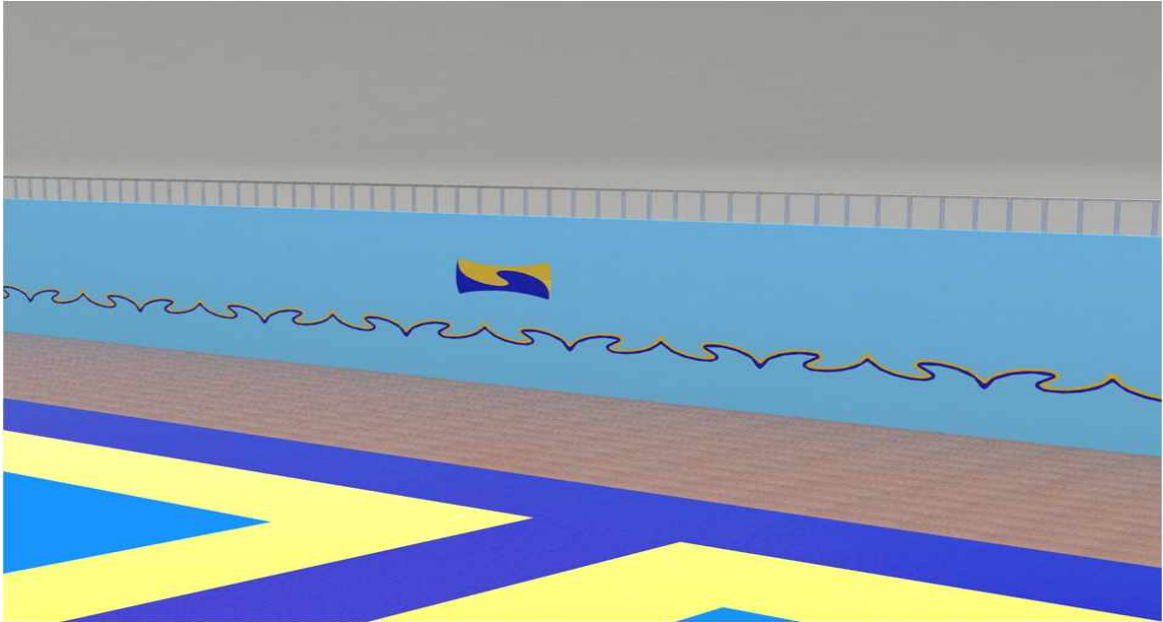


그림 64 새로 제안된 국기원 벽면의 모습

위에서 새로이 디자인된 경기장 바닥의 매트 색상(빨간색→노란색)개선과 ‘국기원’ 심볼을 경기장 매트에 적용하여 정체성을 알리고 통일감 있는 환경을 구성하며, 경기장 내 바닥 레벨에 차이를 두어 경기의 주목성을 높이고 경기장과 심판, 응시 대기자와의 공간 구분을 명확히 하여 주목성을 높인다. 아울러 같은 칼라와 디자인으로 구성된 국기원 경기장 벽면을 제시하였다.

4) 경기장 천장 개선

가. 문제점 분석 및 제안 1



그림 65 국기원 경기장 내부

스피커가 천장에 두드러지게 노출되어 있다.



그림 66 경기장 천정 개선안

스피커를 가장자리에 재배치하여 천장의 국기를 보게 되었을 경우 스피커가 중앙에 배치되어 있어 눈에 잘 띄기 때문에 양쪽 끝에 각각 두 개씩 배치하여 눈에 거슬리지 않게 해야 한다.

나. 문제점 분석 및 제안 2



그림 67 국기원 경기장 국기게양대

국기 게양대가 본부석 뒤편에 배치되어 있어 뒤를 돌아 경례를 하는 등 응시자들이 이용시 불편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그림 68 국기원 경기장 귀빈석 개선안

국기원 게양대, 태극기 위치를 정면인 귀빈석 상부로 변경하여 불편함을 덜어준다.

5) 귀빈석 공간 개선

가. 문제점 분석 및 제안 1



그림 69 국기원 경기장 귀빈석

국기원 경기장에서 가장 특별한 자리인 귀빈석 공간의 낙후된 의자 및 시설과 현수막이 국기원의 권위를 크게 떨어뜨리는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대한 시급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그림 70 국기원 경기장 귀빈석 개선안

전체적인 분위기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방향에서 약간의 개성 표현을 필요로 한다. 현재의 귀빈석은 고급스러워 보이지 않아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현수막은 매번 행사 때마다 교체하는 번거로움이 없는 실내용 LED 전광판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음악

1) 태권도 예식의 음악

가. 태권도계의 요구분석 결과

그동안 국기원에서 시행하는 태권도의 각종 행사는 별도의 예식 음악이 사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제 태권도 예식에 필요한 음악을 위해서는 먼저 태권도의 정체성을 담아내되, 태권도인들의 요구분석과 함께 전문가의 의견이 함께 정리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먼저 태권도인들의 설문을 통해 요구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그 요구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태권도인들은 태권도 예식과 관련하여 다음 다섯가지의 의견을 개진해 주었다.



그림 71 태권도인들의 예식음악에 대한 의견

위의 내용에 따르면, 첫째, 태권도 예식음악은 권위와 품격을 느낄 수 있는 한국적 음악이기를 원하였다. 둘째, 태권도 찬가에 대한 새로운 개선이 필요하고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면 좋겠다는 의견이었다. 셋째, 태권도 예식 음악을 개발하되 한국의 고유한 전통에 기반하되 글로벌적인 보편성을 갖는 퓨전음악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넷째, 태권도 예식음악에는 심사예식의 전후에 마음을 정돈할 수 있는 명상음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섯째로는 태권도 예식개발을 할 때, 신호기능을 통해 신성감과 권위를 부여할 수 있는 사운드를 개발하여 사용하

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태권도인들의 태권도 예식음악 개발과 관련한 의견은 실제로 전문가의 의견과 상당히 일치하는 면을 보였다.

나. 요구분석에 따른 의견

태권도 예식음악의 개발과 관련한 의견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도 전통음악(또는 악기소리)이 태권도 예식 절차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은 크게 두가지이다. 첫째는 명상을 위한 음악으로서의 기능이고 두 번째는 신호기능으로서의 타악기의 활용이다.

그동안 국기원에서 태권도 예식 절차과정에 음악이 사용된 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전통음악이 과도하게 사용된다면 낯선 측면이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전통음악을 사용할 수 있다면 다음의 두 가지 기능적 측면에서 활용을 검토해본다면 도입이 가능할 것이다.

첫째, 명상음악의 개발에 대한 의견이다. 명상은 몸과 마음을 호흡을 통해 안정 케하는 기능으로서 일부 전통음악을 활용한다면 느린 속도감과 편안한 한국의 선율감 등으로 매우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둘째, 신호음악의 개발이다. 신호음악은 한국 고유한 타악기인 '징'을 보급하여 사용하게 한다면 태권도의 예식에서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한국의 소리가 도입될 수 있다. 징의 도입이 어렵다면 어느 나라에서나 구할 수 있는 정주(Bowl)로 대체가능하다.

한편, 태권도 음악개발을 위해 전통 예식 음악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지금까지 전통의 궁중음악 가운데 가장 잘 보존되어 전해지는 중요무형문화제 제1호 종묘제례악의 佾舞(일무)에 사용되는 음악인 보태평(文德(문덕)찬양)과 정대업(武德(무덕)찬양)의 경우를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우선, 정악의 경우에 악곡의 가락과 속도가 현저하게 느리고 가락이 복잡한 편이다. 그 다음으로는 조선왕들과 문, 무 대신들의 업적을 찬양하는 음악이므로 태권도와 무관하고 일부 가락을 활용하여 변주한다 하더라도 국제적 보편성을 지니기는 어렵다. 이러한 결과 전통의 궁중음악을 태권도 예식 음악에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태권도 예식 음악의 개발방향

태권도 예식은 예와 악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 따라서 악의 개발은 예식과 함께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태권도 예식음악은 무엇보다 예식절차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예식의 분위기를 고조시켜야 한다. 또한 이미 세계화된 태권도의 권위와 품격을 잘 살릴 수 있는 예식음악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태권도 예식음악은 향후 태권도의 입문예식, 심사예식, 수여예식에 맞는

음악개발이 필요하다. 그런데, 입문예식, 심사예식, 수여예식에 대한 예식 규정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음악 개발은 타 분야와 함께 그 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각각의 음악을 만드는 작업 이전에 각 예식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음악개발 방향에 대해 언급하기로 한다.



그림 72 태권도 예식음악의 개발방향

첫째, 입장과 퇴장의 음악 개발이다. 어느 예식이든간에 태권도 수련자나 예식의 주체가 입장과 퇴장을 한다. 따라서 이때 음악이 연주되는 것은 참석자의 권위를 높이는 동시에 마음의 자세를 예식에 맞게 갖추는 요건이 된다. 따라서 입장과 퇴장에 따른 음악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밝고 경쾌하면서도 신성감이 가미된 음악이 필요해 보인다.

둘째, 신호음악의 개발이다. 태권도 예식에는 사전 품새교육과 같은 예비의식이 선행된다. 따라서 본 예식이 시작하기 전에 예비예식에서 본 예식이 출발하기 위해 준비를 알리는 신호음악이 필요하다. 이미 위에서 잠시 언급한 종이나 징을 활용하여 참석 대상자들에게 예식이 시작됨을 전체적으로 알리기 위해 신성하면서도 경건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징소리와 같은 음악이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명상음악의 개발이다. 태권도 예식에는 심사예식과 같은 긴장된 태권도 품새, 겨루기, 격파와 같은 활동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러한 심사예식이 시작되기 전에 스트레

칭과 함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명상의식을 전체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명상의식은 가능한 자연의 소리나 한국의 전통성이 강한 음원을 사용하는 것도 바람직해 보인다.

넷째, 수여 및 수상음악의 개발이다. 태권도 예식에는 단증 수여를 비롯하여 각종 자격증, 상장 및 표창장의 수상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영광스러운 명예를 부여할 때 그 분위기를 살려줄 수 있는 즐겁고 축하할 수 있는 음원의 개발이 요구된다. 이러한 음악개발은 주고받는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영광을 부여할 뿐 아니라 참석자들이 함께 축하하는 분위기를 연출함으로써, 모두가 하나가 되는 일체감을 심어주는 기제로 작용할 것이다.

결국 태권도 예식음악의 개발은 전통음악을 활용한 한국적 선율감을 살리는 동시에 현대적인 음악적 감성을 접목시킨 음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타악기를 동원하여 한국의 장단감을 사용하여 누구나 따라올 수 있는 속도의 리듬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함께 국악기와 양악기를 혼성 사용함으로써 한국적 개성과 세계적 보편성을 함께 살리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이벤트

1) 태권도예식과 이벤트



그림 73 태권도 예식 이벤트 개발 요소

태권도예식은 크게 심사예식, 입문예식, 수여예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예식은 효율화 및 행정의 편의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예식으로서의 의미와 권위로 갖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예식의 기능적 측면이 강조되면서 가족 및 친구 등 예식 관람자들의 배려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예식에 따른 문제점과 함께 태권도예식이 보다 의미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벤트적 요소가 결합 되어야 한다는 태권도인들의 요구가 매우 크다. 또한 태권도 예식이 단순히 예식으로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행사 및 축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적절한 이벤트적 요소가 필요하다.

태권도 이벤트에 관한 요구는 대체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로 함축되어진다. 첫째, 엔터테인먼트적 요소가 담긴 이벤트 둘째, 태권도 의식에 융화되는 이벤트 셋째, 실제 적용이 가능한 이벤트를 개발하여 현장에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가. 엔터테인먼트적 요소가 담긴 이벤트

예식은 기본적으로 엄숙하여야 한다. 심사, 입문, 수여 등에 있어서 이뤄지는 태권도의 식도 다르지 않다. 엄숙함에서 나오는 권위는 예식을 보다 가치 있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엄숙에는 '재미없음'이 전제되어 있다. 그리고 '재미없음'은 예식에 참가하는 당사자들과 예식을 지켜보는 관람객들을 지루하게 만든다.

더구나 텔레비전을 통해 ‘재미’에 익숙해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미없음’의 순간들을 인내하지 못한다. 그러한 경향은 젊은 층으로 내려 갈수록 심하다. 여기에서 요구되는 이벤트 요소가 바로 ‘재미있음’이다. 다시 말해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가 담긴 이벤트를 개발하여 태권도 의식에 삽입하여 동시대인들에게 환영받는 의식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재미있음의 정도가 지나쳐 의식의 권위를 해치는 정도에 까지 이르러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이 예식에 삽입되는 이벤트를 개발하는 것이 쉽지 않은 작업임을 알게 한다.

예식의 중심 주제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참여자 모두에게 재미를 줄 수 있는 이벤트이 개발이 필요한 것이다.

나. 태권도 의식에 융화되는 이벤트

예식에 삽입되는 이벤트는 의식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태권도 예식에 있어서 심사, 입문, 수여가 목적이지만 이벤트가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벤트의 임팩트가 지나쳐 의식이 가려져서도 안 되며, 예식의 엄숙함이 훼손되어서도 안 된다.

예식이 진행되는 과정의 적재적소에 이벤트가 삽입되어야 하며, 소요시간이 너무 길어 전체 진행시간에 부담을 줘서도 안 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태권도에 삽입되는 이벤트가 태권도를 소재로 한 것이면 예식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방해하지 않고 의식과 동일한 목적을 지향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실제 적용이 가능한 이벤트

아무리 좋은 이벤트 아이디어를 내놓아도 현실적으로 적용이 가능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을 것이다. 현재 제공되는 환경에서 실행할 수 있는 이벤트를 만들어 내야 한다. 환경이란 공간을 비롯하여 참여자, 관람자, 시간, 예산 등의 조건을 말하는 것이다.

국기원이라는 공간의 환경적 특성,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연령·성별·구성에 따른 취향, 허용된 시간, 가용한 예산 등을 고려하여 이벤트를 구성하여야 한다.

공간의 환경적 특성이란 공간의 넓이, 시설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며, 참여자 고려는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연령, 성별에 따른 다양한 취향을 담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자의 인적 구성이 가족단위일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더욱더 세심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이벤트의 실행 시간의 길이가 적정하여야 한다. 시간이 너무 길 경우 의식행사와 본말이 전도될 가능성이 있다. 관객의 관심이 온통 이벤트에 집중된다면 의식은 그 목적을 잃어버릴지도 모를 일이다.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의 하나는 사용 가능한 예산액과 비교하여 이벤트의 제작비가 넘지 않는지 살펴야 하는 것이다. 예산이 조달이 가능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이벤트가 실행되기 어렵게 된다.

라. 세계화가 가능한 이벤트

태권도 예식에 포함되는 이벤트는 국내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자면 한국적인 요소와 함께 세계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동시대의 세계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는 언버벌 퍼포먼스가 강점을 가지고 있다.

2) 태권도예식 이벤트 컨셉 및 방향성 제시



그림 74 태권도예식 이벤트 개발 방향

현재 진행되고 있는 태권도예식에는 이벤트적요소가 전무하다. 국기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태권도예식에 이벤트적 요소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식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결합시키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예식의 절차에서 공간과 시간에 큰 변화를 주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벤트요소를 경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는 예식의 격식 및 권위를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서의 이벤트 결합, 둘째는 응심자, 수련생, 수혜자 등 예식의 주요 참여자를 위한 이벤트화 방안, 세 번째는 관람자 및 태권도의 홍보를 위해 이벤트방안이다.

가. 태권도 예식 및 격식 강화를 위한 이벤트 요소

가) 상견례 이벤트

현재 고단자 승단심사에는 6단에서 9단이 한자리에서 개회식을 갖은 후 심사를 받는다. 이때, 6~7단 응심자들은 8~9단 응심자들의 예우하는 이벤트 요소가 결합되도록 한다. 8,9단의 심사전후로 존경 및 격려를 위한 ‘박수 세레모니’ 등의 요소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림 75 태권도장에서의 인사예절

나) 강령 및 선서

태권도예식에서는 각 참여자들의 주요 기능 및 역할이 분명하다. 심사예식의 경우 응심자는 정정당당히 실력을 평가받아야 하며, 심사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예식에서 참여자들의 주요 강령을 일정한 이벤트적 요소와 결합하여 진행한다면 예식의 권위 및 격식을 갖추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나. 응심자, 수련생, 수혜자를 위한 이벤트 요소

가) 명상 이벤트

국기원에서 ‘명상’은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전국의 각 도장에서 진행되는 예식에서는 명상을 통한 마음수련이 진행되고 있다. 국기원에서도 공식적으로 명상을 만들어 응심자, 수련생들이 본격적인 예식에 참여하기에 앞서 마음을 정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림 76 태권도장에서의 명상(1)



그림 77 태권도장에서의 명상(2)

나) 시상 및 수료이벤트

현재 국내사범지도자 수료식에서는 참여한 연수생들에게 수료증을 수여하고, 우수한 연수생에게는 표창장을 준다. 현재는 상장과 부상이 제공되고 있으나 수료자 및 표창 수상자를 위한 이벤트적 요소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림 78 수료이벤트의 예(1)



그림 79 수료이벤트의 예(2)

다. 관람자 및 태권도 홍보를 위한 이벤트 요소

가) 품새 추첨 이벤트

품새추첨은 고단자 승단심사를 보기 위해 6, 7, 8, 9단 대표가 품새를 추첨한다. 현재는 품새가 적힌 세 개의 흰 봉투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품새 추첨 방식을 관람객 및 참여자들의 흥미와 긴장감을 유발할 수 있는 방향을 개발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관람객을 참여시키는 방식이나, 6~9단이 서로의 품새를 추첨해주는 등 품새 선정에 이벤트적 요소의 결합이 필요하다.

나) 공연 이벤트

(1) Hiphop



그림 80 Hiphop(1)



그림 81 Hiphop(2)

영덩이(Hip)와 들썩이다(Hop)의 합성어이다. 흑인들이 음악에 맞춰 가볍게 영덩이를 들썩이는 동작에서 춤이 유래되었다. 음악 사이에 연주되는 간주부분(Break)을 반복해서 들려주는 음악형식으로 1970년대 초 미국 DJ들에 의해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반복되는 리듬에 맞춰 춤을 춘 것이 브레이크 댄스의 시초이며, 이 간주 부분에 리듬을 살리는 소리를 넣는 것이 랩(Rap)의 탄생이다.

(2) B-Boy



그림 82 B-Boy(1)



그림 83 B-Boy(2)

‘B’는 Break Dance를 말하고 ‘B-boy’는 Break Dance를 추는 사람을 말한다. 이 춤은 카포에라(Capoeira)라는 브라질 아프리카 흑인들의 무술과, 디스코의 일종인 허슬(Hustle)의 영향을 받았다. 힙합은 백인 디스코에 대한 대체문화로 등장하였으나 형성기에 디스코의 영향을 받게 된다.

(3) 이벤트 아이디어

태권도의 품새동작을 빠른 음악에 실어 퍼포먼스화 하면서 비보잉(B-boying)의 요소를 삽입한다. 비보잉은 전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요소이므로 보다 쉽게 호응을 얻을 수가 있다. 태권도와 음악, 비보이댄스가 어우러진 5~10분 이내의 종합 퍼포먼스 작품을 개발하여 태권도의 각종 의식에서 공연함으로써 의식의 엔터테인먼트화라는 목표를 달성한다. 비보잉 동작의 난이도가 너무 높지 않게 조절하고 매뉴얼을 작성하여 태권도 수련생들이 연습을 통하여 충분히 공연할 수 있도록 한다.

VI. 태권도예식의 과제와 향후 추진계획

1. 태권도 예식개발의 한계

국기원에서 주관하는 태권도 예식은 그 공간이 갖는 상징성과 신성성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태권도 예식은 국기원의 현실여건과 태권도 수련문화의 최종 결과로 표현된다. 국기원에서 주관하는 태권도 예식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서 드러난다. 다시 말하면, 태권도 문화의 수준과 품위는 결국 국기원의 태권도 예식에서 모든 것이 드러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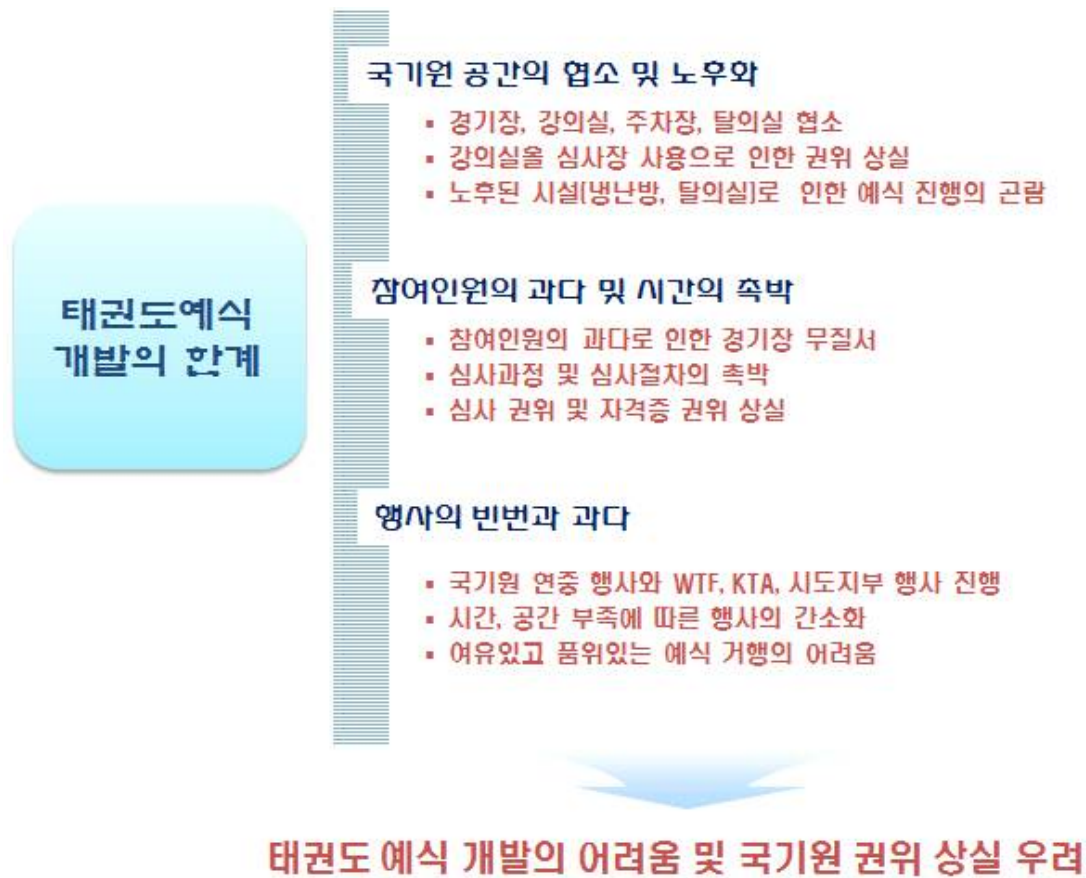


그림 84 태권도 예식 개발의 한계와 문제점

<그림 84>와 같이, 현재 국기원에서 추진하려는 태권도 예식 개발의 한계는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국기원 공간의 절대 부족과 노후화의 문제를 들 수 있다. 1973년에 지어진 국기원의 공간은 사실 경기장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더구나 별다른 증개축과 리모델링 없이

다양한 심사, 연수, 경기, 수료식 등의 다양한 행사가 거의 매일 진행되고 있다 보니, 공간의 절대 부족과 노후화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경기장, 강의실, 주차장, 탈의실 등 다양한 수련과 경기, 그리고 예식 진행을 위한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로 비좁은 강의실에서 고단자 8~9단 심사까지 진행하는 과정에서 심사의 권위가 크게 상실될 우려를 낳고 있다. 아울러 공간의 협소로 인해 출입문에서 서류 접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혼잡스러움은 심사에 참여한 응심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어려우며, 냉난방 시설의 부재에 따른 참여자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공간 노후화는 이곳을 관람하기 위해 참석하는 가족 친지나 방문자들에게도 태권도 예식에 대한 실망감을 안겨줄 우려가 크다. 이 같은 국기원의 현실 여건은 현재 추진하려는 태권도 예식 개발을 추진하는 데에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심사나 연수 등의 참여인원의 과다로 인해 행사의 간소화를 들 수 있다. 무엇보다 한꺼번에 200명 이상의 인원이 경기장에서 진행하는 심사에 참여하다 보니, 부득이 경기장 내에 혼잡스러움과 무질서가 큰 문제점으로 대두된다. 이는 자연 심사의 과정이나 절차에서 시간의 촉박으로 인한 신속한 진행이 우선시됨으로써, 예식이 개입될 요소를 아예 차단하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이러한 인원의 과다와 시간의 촉박, 그리고 심사절차의 간소화 등은 궁극적으로 심사의 권위는 물론이고 자격증의 명예나 권위까지 실추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판단된다.

셋째, 국기원에서 진행하는 행사의 빈번과 과다의 문제를 들 수 있다. 현재 국기원에서는 국기원에서 주관하는 고단자 승단 심사, 1·2·3급 사범지도자연수, 각종 자격증 등 거의 일 년 내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WTF, KTA, 서울시와 각 구에서 진행하는 각종 대회와 심사공간을 대여함에 따라 국기원의 경기장은 상시 각종 행사로 늘 바쁜 일정을 소화해내는데 급급한 실정이다. 그 결과 시간과 공간의 부족으로 인하여 중요한 고단자 심사나 사범지도자 교육 일정이 짧아지고 심사 등의 행사가 간소화되거나 서둘러 끝내야 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국기원이 담당하는 고단자 심사나 사범지도자 심사와 같은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할 행사가 여유롭고 품격있는 예식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이와 같은 문제점은 국기원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향후 이 문제에 대한 국기원의 종합발전계획과 같은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다만, 현재의 관점에서 볼 때, 적어도 태권도 산실의 공간적 상징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국기원에서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특별한 권위의 부여가 요구되는 방식의 단계적 개선이 필요하다.

2. 태권도 예식개발의 과제와 제언



지금까지 2009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에 걸쳐 태권도 예식개발과 관련한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발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를 몇 가지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태권도 예식은 태권도의 모든 것을 담아내는 그릇이다. 따라서 태권도 예식은 태권도의 상징의식이자 종합적인 의전체계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 만큼 태권도 예식은 태권도의 수련문화를 대변하는 동시에 통과 의례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국기원에서 제정해야 할 태권도 예식은 크게 심사예식, 입문예식, 수여예식으로 개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심사예식, 입문예식, 수여예식은 태권도 예식 개발에 골격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하면 다양한 예식개발의 매뉴얼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면, 심사예식의 성격에 따라 '승급 심사예식' 또는 '승단 심사예식' 등의 명칭을 붙이면 될 것이다. 이는 입문예식이나 수여예식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2009년 2월에 재정비된 국기원 심사규정에는 심사예식에 대한 근거규정만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태권도 예식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심사예식 이외에 입문예식과 수여예식과 관련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것은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야 개발을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법적 근거의 확보는 입문예식과 수여예식의 규정 개발의 근거를 확보하는 동시에 예식 개발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담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태권도 예식을 개발하는 가운데 입문예식의 경우는 두 가지의 예식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 하나는 태권도에 처음으로 입문하는 초보자를 위한 입문예식이고, 다른 하나는 사범지도자에 입문하는 지도자를 위한 입문예식이다. 초보자 입문예식은 아무래도 국

기원 보다는 일선 도장에서 요구되는 예식이다. 따라서 국기원에서 초보자 입문예식을 제정하여 일선 도장에 보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만, 초보자 입문예식의 경우는 먼저 지도자 입문예식을 먼저 제정하여 충분히 시행해 본 뒤에 문제점이 없다는 판단이 이루어진 뒤에 추진해야 할 것이다. 초보자 입문예식은 지도자 입문예식 가운데 가장 간결하고 명료한 예식을 토대로 입문예식으로 제정하는 방안이 바람직 해 보인다.

한편, 사범지도자 입문예식은 현재 국기원에서 시행하는 사범지도자 연수로는 입문예식을 만들기가 어렵다. 그 이유는 사범지도자 연수가 곧바로 지도자가 입문하는 절차와 연결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즉 현재는 사범지도자가 되려면 연수 후 합격자에 한하여 지도자 자격증을 획득하게 된다. 하지만, 전국에 거주하는 합격자들을 다시 불러 모아 사범지도자 입문예식을 거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뒤따른다. 따라서 사범지도자 입문예식은 반드시 필요한 예식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합격자들 다시 불러 모아 입문예식을 거행하는 제도적 보완이 먼저 선행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만일 이러한 문제가 해결된다면 사범지도자 입문예식의 제정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태권도 예식 가운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예식은 고단자(6, 7, 8, 9단) 심사예식의 개발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현재 고단자 심사예식 규정은 다양한 해결과제가 선결되지 않으면 예식 규정의 제정이 어렵다. 무엇보다도 공간에 대한 협소감, 심사대상인원의 과다, 시간의 촉박 등의 문제가 어려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고단자의 심사 개회식은 있으나 폐회식은 없는 실정이다. 이는 고단자 심사예식의 권위를 확보하기 어려운 배경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폐회식을 거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고단자 심사예식을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폐회식이 가능하려면 심사를 마친 응심자들이 귀가하지 않고 폐회식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여기에 현재 200~250여명가량 되는 6단에서 9단까지의 응시자가 한꺼번에 심사를 받음에 따라 품격을 갖춘 예식을 거행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앞으로 고단자 심사에도 사전심사제도를 두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실기심사 한달 전에 사전 품새심사를 통해 최종인원을 선발하는 것이 그 한 예이다. 아울러 6, 7단과 8, 9단을 아예 분리하여 다른 날로 심사를 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직 하다. 또한 심사의 효율성을 위해 논문을 이메일로 사전에 접수하여 채점을 하는 방안도 심사 당일의 혼잡함을 피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넷째, 9단 수여예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사실 태권도 예식의 개발은 현행 제도적 틀 안에서 수정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현재 유일한 수여예식인 9단의 수여예식은 최고의 영광스러운 행사에 걸 맞는 자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9단 수여예식은 두 가지의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그 하나는 현재 1년에 4회에 걸쳐 거행하는 9단 수여식을 년 1회 9단 수여자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국기원에서 추진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수여자 이외에 가족과 친지, 동료와 선후배들의 축하와 격려속에서 성대한 수여예식을 거행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다른 하나는 9단 뿐 아니라 그 해에 받는 모든 승단자들을 별도의 예식공간(예, 올림픽주 경기장, 내지 체조장, 향후 태권도 공원 등)을 빌려 전 태권도인의 축제로 발전시키는

방안이다. 이러한 수여예식에는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9단 수여를 받는 분들은 모두 참석하게 하여 명실공히 전 세계 태권도인들의 축제로 발전시키는 방안이다. 현재 9월 4일이 태권도인의 날인만큼 이러한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태권도의 메카인 우리가 해야 할 과제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태권도 예식 개발은 여러 분야가 종합되어 이루어지는 만큼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태권도 예식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건상 예식 개발에 따른 어려움이 뒤따른다. 무엇보다도 태권도 예식은 100년을 내다보고 개발해야할 미룰 수 없는 시대의 과제이자 국기원의 책무라고 판단된다. 예컨대 태권도의 각각 예식 규정은 모든 예식에 전제가 된다. 즉 태권도 예식의 각 행사 일정, 횃수, 일자, 시간, 구성원, 공간, 배치, 시설물, 소품, 의식절차, 복식, 음악, 공간, 이벤트, 상장, 자격증, 기념패, 찬가, 인사 및 예절, 예식 소품 및 의장물, 상품 등 수많은 제도적 정비가 요구된다. 이러한 종합적인 예식의 기본적인 틀이 갖추어 져야 그 다음으로 복식, 음악, 공간, 이벤트, 상품 디자인 등의 개발이 본격화된다. 따라서 먼저 이러한 내용이 제도적으로 갖추어져야 그 다음 단계의 개발이 가능하다.

따라서 태권도 예식 개발이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이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며, 그 전담 부서를 중심으로 다음의 항목들이 순서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1. 태권도 예식 규정 및 매뉴얼 개발
2. 태권도 예식 복식 개발
3. 태권도 공간 디자인 개발
4. 태권도 음악 및 사운드 개발
5. 태권도 각종 증서 디자인 개발
6. 태권도 상품 및 기념품 콘텐츠 개발
7. 태권도 이벤트 개발
8. 태권도 인사 및 행동예절 규범 개발
9. 태권도 찬가 개발
10. 태권도 예식 소품 및 의장물 개발
11. 기타

위에서 제시한 해당 분야는 태권도 예식개발에서 반드시 추진해야할 분야별 과제이다. 다만, 실제로 분야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나 분야별로 많은 예산과 시간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을 모두 한꺼번에 추진하는 것은 예식 개발의 원활한 수행을 어렵게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국기원에서 향후 추진할 태권도 예식 개발을 위해서는 먼저 중요도에 따라 분야별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되,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에 따라 외부 연구개발 용역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향후 사업은 태권도 예식개발의 통합적인 개발의

형태가 아니라 별도로 분야별 공모를 통해 예식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VII. 태권도 예식의 개발사례

1. 심사예식(고단자승단심사)

1) 심사준비

가. 논문접수

- ① 6단 응심자는 남쪽현관에, 7단 응심자는 동쪽현관에 8,9단 응심자는 북쪽현관에 논문을 접수한다.

나. 환복

- ① 6단은 2강의실에서, 7-9단은 1강의실에서 환복한다.

다. 강의실 입장 및 대기

- ① 환복 후 6,7단 응심자는 경기장으로 8,9단 응심자는 강의실로 입장한다. 6,7단 응심자는 입장시 북동문과 남동문을 이용한다.
- ② 6,7단 A조는 경기장에 입장하고 B조는 동문쪽 스탠드에 대기한다.

라. 품새교육

- ① 품새교육 담당자가 각각 경기장과 강의실로 입장한다. 6,7단 담당자는 남서문을 이용하고 8,9단 담당자는 강의실로 입장한다.
- ② 품새교육담당자의 구령과 시범에 맞추어 교육한다.
- ③ A조 품새교육이 끝나면 장내 계단을 이용해 B조와 교대한다.
- ④ 품새교육 후 남서문으로 교육담당자가 퇴장한다.

2) 개회식

가. 입장

- ① 개회식 사회자가 입장한다.
- ② 6,7단 A조가 경기장으로 입장하여 B조와 함께 정렬한다.
- ③ 8,9단 응심자가 남동문으로 입장한다. 이때 6,7단 응심자들은 박수치며 예를 표한다.
- ④ 응심자가 모두 집결하면 명상을 실시한다(음악배경).
- ⑤ 진행요원, 심사위원 등이 북서문을 통해 입장한다.
- ⑥ 국기원장과 원로위원들이 남서문을 통해 입장한다(음악배경)

나. 본 예식

- ① 사회자가 개회를 선언한다.
- ② 사회자가 국민의례를 실시한다.
- ③ 사회자가 내빈을 소개한다.
- ④ 국기원장이 개식사를 한다.
- ⑤ 심사위원 대표가 심사위원 선서를 한다.
- ⑥ 응심자 대표가 응심자대표 선서를 한다.
- ⑦ 사회자가 주지사향을 알린다.
- ⑧ 사회자가 폐회를 선언한다.

다. 퇴장

- ① 국기원장과 원로위원들이 남서문으로 퇴장한다(음악연주).
- ② 심사위원 및 진행요원이 북서문으로 퇴장한다. 8,9단 담당자들은 2강의실에서 대기한다.
- ③ 각 단 대표가 단상 앞에 모여 심사종목의 품새를 선정한다(이벤트 요소 결합).
- ④ 응심자가 퇴장한다. 6,7단 응심자는 동문쪽 스탠드로 이동하여 대기하고, 8,9단 응심자는 북동문으로 퇴장하여 I강의실로 입장한다.
- ⑤ 모두 퇴장 후 담당자들이 북서문으로 입장하여 장내정리 후 심사석 빛 격파물을 설치한다.

3) 고단자승단심사(6,7단)

가. 입장

- ① 남서문을 이용하여 심사위원과 진행요원이 입장한다.
- ② 6,7단 응심자는 호명하는 순서에 따라 장내계단을 통해 내려와 신원을 확인하고 번호표를 받는다.

나. 심사

- ① 응심자들이 품새심사장 하단에 대기한다.
- ② 품새심사장에 입장하여 심사에 응한다.
- ③ 품새심사후 퇴장하여 겨루기경기장 하단에서 보호대를 착용한다.
- ④ 겨루기심사장에 입장하여 심사에 응한다.
- ⑤ 겨루기심사 후 퇴장하여 보호대를 제거한다.
- ⑥ 격파경기장하단에 대기한다.
- ⑦ 격파경기장에 입장하여 손격파->발격파 순으로 실시한다.

다. 퇴장

- ① 격파심사까지 끝나면 퇴장한다.
- ② 퇴장 후 신분증을 찾아 동쪽 스탠드로 이동하여 폐회식을 위해 대기한다.
- ③ 모든 심사가 끝나면 납서문을 통해 심사위원 및 진행요원이 퇴장한다.

4) 고단자승단심사(8,9단)

가. 입장

- ① 응심자 입장 후 심사위원과 강의실로 진행요원이 입장한다.
- ② 신원확인 후 번호표를 받는다.

나. 품새심사

- ① 2명씩 품새심사장에 입장하여 품새심사를 받는다.

다. 면접심사

- ① 품새심사 후 퇴장하여 신분증을 찾아 복식을 갖춘 후 면접고사장으로 이동한다.
- ② 면접심사를 실시한다.

라. 퇴장

- ① 면접심사 후 8,9단 응심자는 동쪽스탠드로 이동하여 폐회식을 위해 대기한다.

2. 입문예식(사범지도자연수)

1) 개강식 준비

가. 환복

- ① 연수생이 국기원에 도착하면 연수강의실을 확인하고 해당 강의실에서 환복한다.

나. 입장

- ① 환복 후 연수생이 경기장에 집결한다.

다. 번호표 착용

- ① 교육담당자가 남서문으로 입장한다.
- ② 연수생은 번호표를 받아 착용한다.

라. 오리엔테이션

- ①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다(태권도 관련 영상 및 이벤트 요소 결합).

마. 준비운동

- ① 연수생들은 담당자의 지도하에 스트레칭 및 명상을 실시한다

바. 대기

- ① 이후 연수생은 경기장에 대기한다.

2) 개강식

가. 입장

- ① 임직원과 부원장이 남서문으로 입장한다(음악연주).

나. 예식

- ① 사회자가 개식을 선언한다.
- ② 사회자가 국민의례를 실시한다.
- ③ 사회자가 임원을 소개한다.
- ④ 부원장이 개식사를 한다.
- ⑤ 연수생대표가 연수생대표 선서를 실시한다.
- ⑥ 사회자가 폐식을 선언한다.
- ⑦ 다 함께 기념사진촬영을 한다.

다. 퇴장

- ① 부원장이 남서문으로 퇴장한다(음악연주).
- ② 임직원이 남서문으로 퇴장한다.
- ③ 연수생은 남동문과 북동문을 이용하여 퇴장한다.

3) 품새심사

가. 연수생 입장

- ① 남동문과 북동문을 통해 연수생이 경기장에 집결한다.

나. 품새교육

- ① 품새교육강사가 남서문으로 입장한다.
- ② 품새교육을 실시한다.

다. 명상

- ① 명상을 실시한다(음악배경).
- ② 명상 후 연수생이 그대로 선 자리에 대기한다.

라. 심사위원 입장

- ① 감독관 및 진행요원이 남서문으로 입장한다.
- ② 품새종목 발표 후 남서문으로 심사위원이 입장한다.
- ③ 예절의 규정에 따라 인사한다.
- ④ 인사 후 심사위원과 감독관은 착석하고, 구령자는 자리로 이동한다.
- ⑤ 연수생들은 남문쪽 경기장에서 밀집하여 대기한다.

마. 품새심사

- ① 전체인원의 규모에 따라 4명 또는 6명씩 연수생이 품새심사장에 입장한다.
- ② 품새심사를 마친 연수생은 북문쪽 경기장으로 이동하여 앉아 대기한다.
- ③ 모든 심사가 종료되면 모든 연수생들이 품새심사장을 중심으로 집결한다.

바. 심사평

- ① 심사평을 실시한다.
- ② 심사평 후 심사위원과 연수생이 서로 인사한다

사. 퇴장

- ① 남서문으로 심사위원, 감독관 및 진행요원이 퇴장한다
- ② 연수생은 남동문과 북동문으로 퇴장한다

4) 수료식

가. 입장

- ① 진행요원이 남서문으로 입장하여 수료식을 위한 장내정리 및 기구를 설치한다.
- ② 남동문과 북동문으로 연수생이 입장하여 경기장에 집결한다.
- ③ 심사위원이 남서문으로 입장한다.
- ④ 부원장과 임직원이 남서문으로 입장한다(음악연주).

나. 본 예식

- ① 사회자가 개식을 선언한다.
- ② 사회자가 국민의례를 실시한다.
- ③ 사회자가 임원을 소개한다.
- ④ 부원장이 연수생대표에게 수료증을 수여한다(음악연주).
- ⑤ 부원장이 우수연수생에게 표창장을 수여한다(음악연주).
- ⑥ 부원장이 수료식사를 실시한다.
- ⑦ 사회자가 폐식을 선언한다.
- ⑧ 사회자가 폐1식을 선언한다.

다. 퇴장

- ① 부원장이 남서문으로 퇴장한다(음악연주).
- ② 심사위원 및 임직원이 남서문으로 퇴장한다.
- ③ 남동문과 북동문으로 연수생이 퇴장하여 각각 강의실에서 대기한다.
- ④ 수료증을 받고 환복한다.

3. 수여예식

1) 9단증 수여식(국기원 경기장)

가. 입장

- ① 진행요원이 남서문으로 입장하여 수료식을 위한 장내정리 및 기구를 설치한다.
- ② 남동문과 북동문으로 9단 승단자(1년 전체 승단자)가 입장하여 경기장에 집결한다.
- ③ 태권도 원로, 국기원 임원, 심사위원 등이 남서문으로 입장한다.
- ④ 국기원장이 외빈과 함께 남서문으로 입장한다(음악 연주).

나. 본 예식

- ① 사회자가 개식을 선언한다
- ② 사회자가 국민의례를 실시한다(국기에 대한 경례 및 애국가제창).
- ③ 사회자가 행사축하를 위한 외빈 및 참석자 중 주요 인사를 소개한다.
- ④ 단증 수여 경과 보고
- ⑤ 사회자의 호명에 따라 1명씩 단상 위로 올라온다.
- ⑥ 사회자는 승단자의 약력을 간단히 보고한다.
- ⑦ 국기원장이 승단자에게 9단 단증, 기념품, 화환을 수여한다(음악 연주).
- ⑧ 국기원장의 식사.
- ⑨ 외빈 축사
- ⑩ 9단승단자 대표의 선서 낭독
- ⑪ 축하 또는 축하공연
- ⑫ 전체 참석자가 태권도가를 제창한다.
- ⑬ 국기원장 이하 참석자가 단상에서 내려와 승단자에게 축하 악수를 한다(음악 연주).
- ⑭ 사회자가 폐식을 선언한다.
- ⑮ 단체사진 촬영

다. 퇴장

- ① 국기원장과 외빈이 남서문으로 퇴장한다(음악 연주).
- ② 태권도 원로, 임직원, 심사위원이 남서문으로 퇴장한다.
- ③ 남동문과 북동문으로 연수생이 퇴장한다.

부 록

1. 관련규정

2. 설문지분석

3. 참고문헌

VIII. 부록

1. 관련규정

심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1항 2호에 근거하여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이하 “국기원”)의 태권도승품·단 심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심사관리의 체계화 및 표준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태권도승품·단 심사(이하 “승품·단 심사”)에 관하여서는 법령, 정관 및 기타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심사

제4조(심사구분과 과목)

1. 태권도심사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 ① 승품심사
- ② 승단심사
- ③ 특별승단심사
- ④ 명예단심사
- ⑤ 추서단심사

2. 태권도심사 과목은 실기·이론 및 면접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3. 제2항의 심사과목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8조(심사시행)

1. 국기원은 매년 국내외 심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 심사시행단체는 다음 각호를 준수해야한다.

① 위임받은 기관 및 태권도 단체는 심사시행에 관한 연간 심사계획을 수립하여 국기원에 보고하여 실시한다.

② 승품·단 심사이행을 위해 정해진 심사장과 제반시설을 갖추어 시행한다.

③ 승품·단 심사의 심사과목을 준수하여 시행한다.

④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평가를 위해 심사평가 기준을 준수하여 시행한다.

⑤ 심사시행에 필요한 감독관·심사위원·진행요원·의무요원 등을 구성하여 시행한다.

⑥ 심사위원을 비롯하여 진행요원·응시자는 지정한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

⑦ 심사시행에 따른 응시자의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⑧ 승품·단 심사에 따른 심사예식을 준수하여 시행한다.

제4장 품·단증 교부 등

제12조(품·단증의 교부)

1. 심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품·단 심사에 합격한자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품·단증을 교부한다.
2. 품·단증의 발급은 “국기원장”으로 교부한다. 단, 위임단체의 특성에 따라 위임단체장과 공동명의로 교부할 수 있다.
3. 품·단증 외 명예단 및 추서단을 발급할 수 있다.
4. 품·단증 분실 등으로 인하여 품·단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재교부 할 수 있다.

제5장 각종 위원회

제15조(심사위원회)

1. 승품·단 심사를 공정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
2. 심사위원회는 저단자심사위원회와 고단자심사위원회로 구분한다.
3. 승품·단 심사 시행을 위임받은 국가협회 및 태권도단체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기원에 보고해야 한다.
4. 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심사진행요원을 둘 수 있다.
5.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6조(심의위원회)

1. 품·단증 발급을 위해 승품·단 심사 시행에 따른 심사결과를 최종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심의위원회를 둔다.

- ① 국내 심의위원회
- ② 해외 심의위원회

2. 심의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7조(상별위원회)

1. 승품·단 심사와 관련한 포상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상별위원회를 둔다.
2. 상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8조(감독관)

1. 승품·단 심사의 공정한 심사관리를 위하여 감독관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2. 감독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부칙(09.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운영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국내의 경우 이 규정에 따른 위임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종전의 심사규정에 따른다.

심사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승품·단 심사 시행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승품·단 심사업무를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승품·단 심사시행에 관한 규정 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제4조(심사과목)

1. 심사규정 제4조 2항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시행한다.

- ① 실기심사는 품새·겨루기·격파·특기 심사가 있다.
- ② 이론심사는 필답·논문 심사가 있다.
- ③ 6단 이상자에게는 면접을 실시할 수 있다.

2. 품·단별 심사과목은 다르게 적용하고 과목은 표2와 같다.

3. 위 제1항 1호와 2호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심사과목을 신설 및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심사시행)

1. 국기원과 심사위임기관 및 태권도단체는 심사계획에 따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시행해야한다.

①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기원에 심사위원 또는 감독관을 요청하여 시행한다.

② 태권도 4품 및 3단까지는 실기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4단, 5단은 실기와 필답 심사를 하고 6단 이상 심사는 실기와 논문을 시행한다.

③ 태권도 6단 이상의 심사는 국기원에서 실시하고 해외거주 태권도 7단 이하 승품·단 심사는 국기원의 관리에 따라 현지에서 실시한다. 단, 해외거주 태권도 8단 이상은 국기원에서 실시한다.

2. 위 제1항 제3호 정기심사에 있어 1개 과목이 실격한 경우에는 1호에 한하여 심사수

수료를 면제받고 실격과목에 대하여 차기심사에 응시할 수 있다. 단, 수시심사는 제외한다.

3. 장애인심사·월단심사 및 정책적 판단에 따른 특별승단 심사시행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4. 위 제1항 제2호의 필답·논문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5. 공정한 심사시행으로 응시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심사규정 제15조 3항에 따른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심사위원 구성은 국기원 고단자심사 위원이거나 국기원 심사위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한다.

② 저단자심사위원회는 태권도 6단 이상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고단자심사위원회는 태권도 8단 이상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고단자심사위원은 국기원장이 임명하고 저단자심사위원은 승품·단 심사를 위임 받은 단체장이 임명한다.

3. 저단자심사위원회는 5단 이하의 태권도 승품·단 심사를 실시한다.

4. 고단자심사위원회는 6단 이상의 태권도 승단 심사를 실시한다.

5. 위 제2항, 제3항의 심사위원회 운영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① 심사과목별 심사위원은 각 3인 또는 5인으로 운영하고 응시자 및 심사특성에 따라 심사위원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 1호 외 심사 진행요원은 심사 시행단체가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심사규정 제16조 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2. 심의위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하여 원장이 위촉한다.

3. 승품·단 심사결과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기원 특별위원회에서 규정한 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14조(감독관 구성 및 운영)

1. 심사규정 제19조 1항에 따라 감독관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2. 감독관은 국기원장이 임명한다. 단, 필요에 따라 위임단체장의 추천에 의해 국기원장이 임명한다.

3. 국기원은 승품·단 심사시행에 따른 감독관을 파견할 수 있다.

4. 감독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5조(심사평가)

1. 심사규정 제8조 2항 4호에 따른 심사평가 기준 및 요령은 다음 각호와 같다.

- ① 심사 과목별 평가기준은 표6과 같다.
 - ② 실기심사는 국기원의 규정된 동작기준에 의한 절대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 ③ 실기심사 평가기준 및 요령은 표7과 같다.
 - ④ 필답심사 평가는 20문항 중 12문항 이상의 정답을 얻은 경우 합격 처리한다.
 - ⑤ 논문심사 평가기준은 표8과 같다.
 - ⑥ 면접 심사는 태권도활동 경력 및 공적사항 등을 평가한다.
 - ⑦ 심사 과목 중 1개 과목이 불합격 시에는 불합격 처리한다.
2. 심사과목별 채점표는 표9와 같다.
 3. 심사평가에 대한 심사결과표는 표10과 같다.

제16조(심사장)

1. 심사규정 제8조 2항 2호에 따라 심사장의 제반시설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① 실기 심사장의 최소 면적은 가로15m X 세로12m(180m^2 =약55평)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 ② 품새 심사장의 면적은 1회 기준으로 1인 20m^2 (약6평), 3인 60m^2 (약 18평), 5인 90m^2 (약30평), 9인 170m^2 (약54평)의 공간을 확보해야한다.
 - ③ 겨루기 심사장의 면적은 2인 기준으로 가로10m X 세로10m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 ④ 격파 및 특기 심사장의 면적은 1인당 20m^2 (약 6평)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 ⑤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심사 과목당 33m^2 (약 10평)이상의 대기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 ⑥ 실기 심사장 바닥의 재질은 안전을 고려하여 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마루, 고무 매트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⑦ 응시자의 안전을 위한 소방시설 및 재난시설 등의 안전이 허가된 장소여야 한다.
2. 심사장의 배치 및 평면도는 표11과 같다.

제17조(복장)

1. 심사규정 제8조 2항 6호에 따른 복장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응시자는 국기원이 지정한 태권도복과 띠를 착용해야한다.
 - ② 승품심사 응시자는 품 도복을 착용해야한다. 단, 4품 응시자는 단 도복을 착용할 수 있다.
 - ③ 승단심사 응시자는 단 도복을 착용해야 한다.
 - ④ 도복이외의 부속물(신발, 모자, 시계, 반지, 목걸이 등)을 착용할 수 없다.
 - ⑤ 도복이외의 복장은 착용할 수 없다. 단, 여성의 경우 백색셔츠를 착용할 수 있다.
 - ⑥ 심사위원과 진행요원은 지정한 복장을 착용해야한다.
 - ⑦ 응시자의 도복 부착물 허용범위는 표13과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칙) 심사규정 및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2. 설문지분석

〈 2009년도 1·2급 사범지도 필기시험 문제 〉

현행 국기원 심사규정에는 태권도의 승단심사를 시행할 경우에 별도의 예식규칙을 정하여 심사의 의식행사시 복장, 음악, 의전절차 등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륜에 비추어 앞으로 승품단 심사 시 예식에 관한 의견을 기술하십시오.

1) 1급 사범지도자 이론시험 응시자(27명)의 주요 의견

응시자 (1)

- 확실적인 딱딱한 진행에서 벗어나 음악 등이 함께 어우러진 형태로 진행, 가족 및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진행되는 행사로서 구성
- 음악은 응심자들의 긴장을 풀어주는 의미에서도 사용되었으면 한다.
- 심사위원장 복장 등 위엄있고 통일된 복장으로 갖추어져야 함
- 형식적인 심사가 아닌 심사가 권위를 갖추었으면 한다.

응시자 (2)

- 심사는 엄격하고 격식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가장 먼저 통일된 심사위원의 예복이 필요하다.
- 심사를 받는 응심자의 가족 및 학부형들의 참여를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이 제공되어야 한다. (각 시도협회의 심사)

응시자 (3)

- 외국의 태권도 승단심사의 경우 국기원 승단심사보다 엄숙하고 체계가 있다. 가족들이 함께 참여해 축하하고, 격려하는 분위기로 진행되어진다.
- 승품단 심사는 엄격하고, 엄숙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 심사위원도 복식을 착용해야 한다고 본다.
- 심사전반에 음악을 통해 공간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음악을 통해 예식의 절차를 구분했으면 한다.
- 심사시 평가의 내용 및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진행했으면 한다.

응시자 (4)

- 승품단 심사위원의 복장을 지금의 서양식 양복이 아닌 좀 더 품위있고, 권위가 엿보이는 장식이 있는 복식이 필요.

- 음악은 전통 궁중음악이나 태권도의 가치를 표현 할 수 있는 창작된 전통음악으로 사용되었으면 한다.
- 의전절차로는 선배나 스승에 대한 예우로 응심자가 심사위원에게 '큰절'을 하는 것을 제시해 본다. 태권도는 무도로서 예절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응시자 (5)

- 복장 :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의 복장이 구분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
- 음악을 통해 참가자들에게 태권도 심사에 성의를 가지고 심사에 임하게 했으면 한다.
- 심사위원은 권위를 갖는다. 사범지도자교육 심사도 등급에 따라 엄격히 구분하여 심사에 믿음과 신뢰를 갖출 수 있었으면 한다.

응시자 (6)

- 심사위원 복장은 색상, 타이 등 통일된 복식이 필요함
- 심사전에 사범의 시범 등이 필요하며, 심사의 방식 및 내용을 설명
- 각 지역 승품단 심사의 경우 한 번에 수십명씩 심사를 보기 때문에 정확한 심사가 어려움
- 태권도 심사장은 태권도를 알리고 홍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획이다. 심사장에서 태권도와 관련된 교육적 가치를 함께 연결시키면 좋을 것이다.
- 심사장을 승단만하는 장소가 아니라 축제의 장으로 전환 필요.

응시자 (7)

- 승품단 심사에 앞서 태권도의 5대정신 예의, 염치, 인내, 극기, 백절불굴의 정신을 교육할 필요가 있음
- 예의와 절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함

응시자 (8)

- 각 지역의 승품단 심사는 지역별로 다르다.
- 제주시의 경우 개회식에서는 국민의례, 도협회장 인사말씀, 협회 임원소개, 심사위원 소개, 실기심사(품새, 겨루기), 끝으로 폐회된다.
- 심사위원들의 복식도 모두 다르며, 명찰 등 개선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됨
- 심사장의 분위기를 향상시켜야 함.
- 개회식 및 폐회식을 개선시켜야 함
- 심사위원의 품위를 갖출 수 있는 명찰 및 신분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해야 함
- 심사대회는 심사위원이 중심이므로, 심사위원의 자질 및 능력에 대한 충분한 검토 필요

응시자 (9)

- '국기원'은 세계태권도인들에게는 성지와 같은 곳입니다.
- '국기원'이라는 위상에 걸맞는 웅장하고, 격식있는 공간으로 변모 할 필요가 있음
- 음악의 경우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 태권도가 현재 이르기까지 역사 혹은 주요인물에 대한 것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상영

응시자 (10)

- 국기원에서 진행되는 심사는 모든 대회 꽃이다. 응심자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의미있는 심사이다.
- 가족들 및 기타 관람객들이 함께 국기원에서 관람 하고 참여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심사위원의 복장 등의 격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

응시자 (11)

- 태권도의 무도로서의 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음

응시자 (12)

- 태권도가 중시하는 정신적 교육을 심사에도 적용되었으면 한다.
- 심사를 받는 응심자들이 긴장하고 있는 상태를 정돈할 수 있도록 시합 전에 '묵상'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
- 심사위원에 대한 예의 표현이다. 태권도는 예를 중시하는 무도이다. 따라서 심사위원에게 '큰절'을 하는 한국적인 인사법을 사용했으면 한다.
- 음악은 응심자들의 상태를 좌우하는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심사장의 분위기를 안정시켜주거나 신비함을 조성 하는 음악이면 좋을 것이다.
- 통일된 복장은 심사의 권위를 갖게 할 것이다.
- 심사이전에 평가기준을 제시 할 필요가 있다.

응시자 (13)

- 국기원에서의 심사는 귀위가 있어야 하므로 예식개발이 꼭 필요하다.
- 예식에서는 통일된 복장이 중요하다. 심사위원은 심사복장을 응심자들은 국기원에서 지정하는 복장을 갖추는 것이 좋다고 본다.
- 음악은 태권도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조화롭게 하도록 하면 좋겠다.

응시자 (14)

- 세계태권도인들이 꼭 와보고 싶어하는 국기원은 경기장 분위기 및 질서가 엉망이다.
- 심사장의 분위기를 엄숙하게 할 필요가 있다.
- 심사위원은 한국적 복식을 착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응시자 (15)

- 복식의 경우 응심자는 도복을 착용하고, 심사위원은 승급심사, 고단자 심사에 따라 구분하여 착용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또한 동계와 하계의 복식을 구분하는 것도 좋다고 본다.
- 수예식의 경우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 진행되었으면 한다.

응시자 (16)

- 복장은 공인도복을 착용하며, 의식절차 등은 너무 길지 않게 진행되었으면 한다.
- 음악은 태권도에 맞게 전통적인 음악으로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응시자 (17)

- 국기원의 승품단 심사는 타 무술의 승품단 심사처럼 철저한 객관성을 담보해야 함.
- 일괄적인 단증 발급은 태권도의 권위에도 문제가 있다고 봄
- 고단자의 이론시험의 경우 전문 교사나 박사들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고단자들의 정신 및 태권도에 대한 수준을 심도 있고 객관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 복식의 경우는 대학졸업식이나 법정의 법관의 복식과 같은 권위를 갖추어졌으면 한다.

응시자 (18)

- 국기원과 다르게 각 도장 및 시도협회의 심사장에는 응심자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다.
- 각 시도협회의 심사에는 많은 응심자들이 동시에 보기 때문에 심사결과에 문제가 있음.

응시자 (19)

- 심사위원의 복장은 법관처럼 위엄을 갖춘 복식 착용
- 진행요원들도 통일된 복장을 착용하여, 심사의 격식이 갖추어지길 바람
- 보호장비 및 시설을 갖추고, 심사의 진행 순서 등을 알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함
- 승품단 심사 이후 합격증 수여를 발급형태가 아닌 심사장에서 수여 하는 것이 좋을 것

응시자 (20)

- 각 시군구에서 실시되는 승품단 심사는 국민의례 후 파견 심사위원 소개, 심사시 주의사항 지시가 보편적이다. 식전에 시군구의 최고 고단자와 각 태권도장의 책임사범들이 참석하여 입장하는 의식이 추가되었으면 한다.
- 개회식 등에서 국민의례 이외에 '구호' 혹은 '음악' 등을 통해 정서적 공유를 했으면 한다. 심사위원들은 도복(마스터 도복)을 착용하여 엄숙함이 있도록 한다.
- 심사실시전 태권도 고단자의 시범이 추가 되었으면 한다.

응시자 (21)

- 심사위원의 격식에 맞는 복식 (퓨전화 된 한복 신발은 쥘신 스타일로)

응시자 (22)

- 예식에서는 예절 및 복식 뿐만 아니라 언어의 사용에도 격식이 갖추어지길 바란다.

응시자 (23)

- 응심자들의 경우 지정된 태권도 공인도복을 착용해야 한다.
- 각 시도협회에서 진행되는 심사의 경우 참여한 학부모들이 볼 수 있도록 영상물 등이 제작되어 상영되었으면 한다.

응시자 (24)

- 국기원이 신설된다면 심사장소를 차등화해서 지었으면 한다. 품 심사장, 단 심사장 (1~4단), 고단자심사장(5~7단), 최고단 심사장 (8~9단) 이렇게 된다면 심사장소 만으로도 엄숙함을 갖출 수 있을 것이며, 심사에도 권위를 갖게 할 것이다.

응시자 (25)

- 세계 태권도 연맹의 공식 태권도 교육기관을 국기원을 지정하여 기술개발 등 교육 및 연수의 단일화가 되었으면 한다.

응시자 (26)

- WTF 회원국은 모든 단증은 국기원 단증만 인정했으면 한다.

응시자 (27)

- 복식, 절차, 공간 등의 개발이 필요함

2) 2급 사범지도자 이론시험 응시자(77명)의 주요 의견

응시자 (1)

- 심사위원도 가능하다면 도복을 착용하여 심사를 진행한다면 위엄이나 엄숙함이 강조 될 것
- 심사제도의 엄숙한 분위기를 만들고, 심사예식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응시자 (2)

- 국기원은 태권도의 수련장이자, 세계 태권도의 뿌리이다.
- 국기원의 가치를 높이고, 심사 및 각종 예식행사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진행이 되었으면 한다. 태권도 예식을 통해 태권도의 위상과 브랜드 가치를 격상시켜야 할 것이다
- 심사위원, 응시자, 심사진행자, 관람자(가족, 방문객)을 배려한 예식개발이 필요하다.

응시자 (3)

- 전국에서 진행되는 심사방식은 지역별로 다르다. 경남지역의 경우 한번 심사에 많은 응심자가 모이기 때문에 심사공간, 주차, 심사시간 등 모든 것이 문제이다. 형식적인 심사로 진행되는 문제점이 있다.
- 태권도의 기상과 타 무도와의 차별화 필요하다.
- 응심자들이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이 필요.
- 심사장이 경건하고 엄숙하게 진행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응시자 (4)

- 각 지역 승품단 심사의 경우 형식적인 심사 이외의 관람자들을 위한 예식이 없다.
- 각 지역의 대표 혹은 원로 태권도인의 위엄있는 멘트 혹은 시연이 있었으면 좋겠다.

응시자 (5)

- 각지도지부의 심사의 경우 많은 부모 및 관람자들이 참여한다. 그러나 태권도의 정신 및 격식을 보여 줄 수 있는 예절이 없다. 각 지도자들과 응시자들, 혹은 지도자들끼리도 서로 예로서 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 각 승품단에 따른 예식의 절차를 달리했으면 좋겠다.
- 복식은 도복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
- 6단이상의 단증 수여는 국기원에서 할 필요가 있다.
- 수여예식은 절차는 엄숙한 분위기 - 명상을 통하여 정신통일 - 시범단 시범 - 단증수여식 음악 - 상호간의 인사 - 간담회 - 기념사진
- 9단수여는 경우 태권도인의 꿈이다.
- 9단수여에서 복식은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의복을 착용이 필요하다.
- 9단수여자의 동작 및 시연 장면을 CD로 제작하여 수여할 필요가 있음, 이는 태권도의 역사의 자료이며, 태권도 역사의 축적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봄.

응시자 (6)

- 복식의 경우 전국 심사위원이 동일한 복식 착용이 필요하다. 세계화를 위해서도 필요함. 예를들어, 목에 두르는 동일한 '목도리'를 목에 착용하는 형식 등
- 태권도가 스포츠나 오락이 아닌 무도로서의 가치를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
- 음악의 경우 엄숙하고, 태권도의 정신을 드러낼 수 있었으면 한다.

응시자 (7)

- 복장은 세계화에 맞추어 통일된 신사복으로 하되, 기존의 양복과는 차별화 하여 제작.
- 음악은 전통과 현대음악을 퓨전화해서 신선함과 신비로움을 줄 수 있었으면 한다.
- 국기원이라는 공간은 예의와 절도가 있는 공간으로서 이 공간에서는 흡연 등을 불가 했으면 합니다. 국기원 공간이 태권도의 성지로서의 규정이나 예식 등이 정립되었으면 한다.

응시자 (8)

- 각 지역 심사예식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질서이다. 심사의 절차는 간단하게 하고, 자리한 내빈들은 심사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켜야 할 것이다.

응시자 (9)

- 심사예식은 태권도 정신과 태권도 본질에 맞는 형태로 진행되어야 한다.
- 복식은 우리민족 고유의 한복스타일이 어떨까 생각된다.
- 음악은 편안하고 깊이가 있는 전통음악과 현대음악이 조화된 것으로 해금이나 가야금 연주곡 등이 좋을 것 같다.
- 의전절차는 '큰절'을 활용하여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내빈들 및 관람자들에게도 '큰절'로 인사 한다면 보다 경건한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응시자 (10)

- 심사예식에서는 심사위원의 권위가 꽃이라고 본다.
- 복식의 경우 심사위원은 고단자로서의 권위를 세울 수 있도록 도복을 착용하고, 진행자는 전통복식형태를 착용하였으면 좋겠다.

응시자 (11)

- 복식은 심사위원의 용모나 복장은 권위와 신뢰성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응시자들은 공인도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응시자 (12)

- 각 지역의 승품단 심사에서는 국기에 대한 경례, 묵념, 애국가 제창 및 지역 시범단의 시범이 있었으면 좋겠다.
- 시범단의 시범은 심사를 받으러 온 학생들에게 목표를 심어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 국기원에서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국기원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퍼포먼스를 만들었으면 한다. 국기원 심사장에서 만날 수 있다는 특별한 이벤트가 있다면 국기원 심사에 대한 권위와 차별화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된다.

응시자 (13)

- 예식절차에서 음악을 사용하면 심사의 자부심 및 분위기가 잘 조성 될 것이다.
- 심사에 참여하는 경우, 공인도복을 필수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

응시자 (14)

- 심사예식 전후로 이벤트를 통해 태권도의 주요 역사 및 연혁 등을 소개할 수 있었으면 한다.
- 심사위원의 복식은 통일된 복장을 착용하도록 지정하는 것이 좋다고 보인다.
- 채점 방식은 한마당대회에서의 채점방식처럼 컴퓨터 채점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제시합니다.

응시자 (15)

- 심사는 응심자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 및 관람자들에게도 큰 행사이다. 이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 및 이벤트가 필요하다.

응시자 (16)

- 지역의 승품단시 응심자 학생들이 긴장하고 초조해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아이들의 긴장을 풀어주고, 마음을 정리 시켜 줄 수 있는 사전 이벤트가 있었으면 좋겠다.

응시자 (17)

- 예식의 복식은 무도의 격식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색깔, 문양, 원단 등을 조금 더 한국적인 스타일로 바꾸어졌으면 좋겠다.
- 음악은 우리나라 전통음악(아리랑) 같은 것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응시자 (18)

- 복식의 경우 심사위원들도 도복을 착용했으면 한다. 도복이 밋밋하다면 도복 위에 전통적인 가운을 도안해서 착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심사이전에 무예음악으로 정신을 가다듬고 명상을 했으면 한다. 내면의 정신수양, 정신통일이야말로 꼭 필요하다고 본다.
- 심사절차도 각시도의 경우 한꺼번에 많은 심사를 보게 되는데 이러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응시자 (19)

- 복장의 경우 심사위원의 복장은 휘장 혹은 리본을 착용했으면 합니다.
- 절차의 경우 개회식이 끝나고 바로 심사에 들어가지 않고, 명상시간 등이 있으면 좋겠다.
- 점진적이고, 체계적으로 변화시켜 나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응시자 (20)

- 국기원 뿐만 아니라 각 시·도 지방에서 승품단 심사시 예식이 필요하다.
- 복식은 심사위원의 권위와 위엄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복식 제작 필요.
- 국기원의 예식이 본보기가 되면 각 시도지방에서 질차가 이루어질 것이다.

응시자 (21)

- 각 시도의 승품단 심사 (1~5단)는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보기 때문에 심사의 어려움
- 심사장에는 가족 및 친구들이 많이 참석한다. 관람자들도 함께 공유 할 수 있는 이벤트가 필요함.

응시자 (22)

- 고단자 심사 합격자는 품단증의 가슴 휘장 또는 어깨 휘장을 만들어 증여.
- 개회식에서는 내빈소개를 줄이고, 몸 풀기 형식 및 음악 태권체도 등 단체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 심사 중간 휴식시간에는 각 시도대회에서 수상한 시범단의 시범 등 볼거리를 제공해야 한다.
- 심사위원 복장은 통일된 복식이 필요하다.
- 심사에서는 태권도 '찬가'를 함께 부르는 등 태권도의 위상 및 격식에 맞는 방식의 개발

응시자 (23)

- 고단자의 수여는 보다 격식있고 위엄있게 진행되었으면 한다. 원로 고단자 등이 참석하여, 띠, 도복, 단증을 수여하여, 최고단에 대한 권위를 높일 수 있었으면 한다.
- 음악 또한 고단자 수여에 걸 맞는 격식 있는 음악의 개발이 필요하다.

응시자 (24)

- 태권도 심사장에는 응시자 및 많은 학부모들이 참석한다. 그들을 위한 이벤트 개발이 필요하다. 시범이나 영상물 제작 등

응시자 (25)

- 경남 승품단 심사에서는 진행요원 및 심사위원들이 통일감을 주기 위해 단체복을 입고 활동하고 있다. 보기도 단정하며 품위가 있어서 좋다.
- 승품단 심사도 하나의 태권도 홍보라고 생각한다. 심사뿐만 아니라 시범단 공연이나 다양한 퍼포먼스를 통해 학부모들에게 태권도의 위상과 다양성을 보여 줄 수 있는 장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응시자 (26)

- 심사장에서 응심자 및 많은 학부모들이 눈으로 즐기고 몸으로 체험 할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으면 좋겠다.

응시자 (27)

- 승품단 심사는 태권도인들에게는 아주 의미 있는 행사이다. 이러한 행사가 형식이 아닌 보다 의미 있는 것으로 자리해야 한다.
- 공간 심사장의 공간의 격식을 갖출 필요가 있다.
- 9단 수여는 보다 격식 있는 행사로 진행되어야 한다.
- 복식의 경우, 심사위원 및 진행요원 등 통일된 복식 착용이 중요하다.

응시자 (28)

- 음악은 심사이전에 전체 함께 명상하고, 분위기를 정돈 할 수 있는 음악이 필요하다.
- 복장은 심사위원의 권위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응시자 (29)

- 각 시도협회에서 시행되는 것은 매우 단조롭고 형식적이다. 각 시도협회에 따라서 남, 여, 유아 및 성인 등 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시켜 심사 할 필요가 있다.
- 울산시 태권도협회의 승품단 심사의 경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심사예식이 있음
· ‘고래’, ‘조선사업’, ‘자동차’ 등의 지역로고를 개발하여 상징화하고, 각 지역별 응심자 별로 자랑거리를 홍보하고 알리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심사장이 ‘파티’ 혹은 ‘축제의 장’으로서 발전될 수 있었으면 한다.

응시자 (30)

- 한국적 독창성을 가지고 예식규칙과 절차를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 복식의 경우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통해 걸에 입을 수 있는 도포형태의 개발
- 심사위원에 대한 예의로 ‘큰절’을 하는 형태로 변화 할 필요 있음

응시자 (31)

- 복식의 경우 심사위원, 진행요원은 통일된 복식을 착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음악은 태권도 찬가나 태권도 음악에 맞추어 예식의 시작
- 승품단 심사에는 아이들이 많이 참여하고, 학부모들도 많이 참석한다. 따라서 그들을 위한 다양한 볼거리 제공이 필요하다.

응시자 (32)

- 태권도 예식은 예의를 중요시 하는 의식 행사가 되어야 한다.
- 음악과 함께 조명의 사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 학부모나 수련생들에게 응모권 및 경품 행사와 같은 심사 참여자를 위한 이벤트가 필요

요

응시자 (33)

- 복식의 경우 태권도인의 단에 따라 다른 색이나 차별화 있는 도복이 개발되어 착용되었으면 좋겠다.
- 음악의 경우 국악이나 고전음악 기반의 음악이 필요하다. 음악의 필요성은 절실하다.
- 의식절차의 경우 태권도 의식만의 독특한 절차가 개발되어야 한다.
- 4단(품)이하의 수여행사는 각 도장에서 이루어지는데, 미국이나 타국의 경우에는 사범님들에게 촛불을 켜고 승단 승품 합격시 띠를 수여 받고, 큰 절을 하는 경우가 많다.
- 답안을 작성자의 도장에서는 수여식을 다음과 같이 거행함.
“유단자로서 선서!, 000위 0명은 태권도 유품 유단자로서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며 관장 · 사범님 말씀에 절대 복종하며 체육관의 명예와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매사에 솔선수범하겠습니다.” 그리고 큰절을 하며 띠를 수여 받는다.
- 국기원에서 시행하는 승품단 심사 후 단증인 2개월 후에 지방으로 배포되는데, 이러한 과정에 변화가 있었으면 한다.

응시자 (34)

- 복식의 경우 심사위원들도 도복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됨.
- 심사의 질서 유지를 위해 기본적인 매뉴얼화 된 절차가 필요하다고 봄.
- 음악의 경우 우리민족의 전통 아리랑, 민요 등 한국적 정서에 맞는 음악으로 제작

응시자 (35)

- 복식은 통일된 것이 필요함
- 심사에 원로들의 시범 등 이벤트가 필요함

응시자 (36)

- 예식은 최대한 축제의 분위기를 조성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개회 및 폐회는 음악을 이용해 분위기를 만들어주어야 한다.
- 9단 수여식은 각종 시상, 수여가 선 · 후배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예를 갖추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응시자 (37)

- 태권도는 예시에종으로 예로 시작하여 예로 끝나는 무도이다.
- 복식은 고유한 한복과 양복과 양복의 복장을 개량하여 통일화시킬 필요가 있음
- 각 시도협회의 심사는 보다 학부모 및 관람자 배려의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응시자 (38)

- 심사의 공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 고단자 심사 및 수여예식은 예우에 맞는 행사로 진행되어야 한다.

응시자 (39)

- 국기원 뿐만 아니라 각 시도구에서 시행하는 심사는 매우 많다. 때문에 먼저 국기원에서 먼저 시행하고, 그에 따른 예시를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응시자 (40)

- 심사예식은 저단자 심사예식 개발이 더 시급하다. 태권도에 입문하여 수련하는 아이들에게 태권도의 가치와 수련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현재 시행되는 예식은 너무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심사를 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의식을 갖기 힘들다. 조금 더 세분화하여 심사 할 필요가 있다.

응시자 (41)

- 복식의 경우 대학교의 수여복식과 같은 것으로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다.
- 심사예식 절차 및 심사의 기준 및 내용에 대해 설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응시자 (42)

- 심사에서는 원로 태권도인 혹은 지도자를 초청하여 후배들의 본보기로서 격식이 세워짐
- 복식의 경우 심사위원에 맞는 차별화 된 복식 이 있었으면 한다. 심사위원은 보통 6~9단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단수에 맞는 복식이 만들어 졌으면 좋겠다.
- 체육관 및 각 시도지부의 승품단 심사에서도 심사위원의 복식을 차별화하여 심사위원의 자격을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 모든 심사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음악이 있었으면 좋겠다.

응시자 (43)

- 국기원의 공간 재정립 필요
 - 국기원 차량 이외의 차량 출입금지
 - 통일성 있는 공간 디자인
 - 각 종행사시 통일성 있는 현수막, 포스터 및 공간 세팅
 - 기념품 매장 시설 및 뮤지엄 공간 확보
- 태권도 예식
 - 통일된 복식 착용
 - 예식 절차의 일관성 및 격식 있는 과정 필요

응시자 (44)

- 복식의 경우, 행사에 참여한 내빈의 경우 별도의 복식 개발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심사위원은 위엄과 공정성, 도덕성에 맞는 복식이 필요하고, 행사진행요원의 경우 도복의 이미지를 변화하고 한국 전통복식을 변형한 형태로 만들어졌으면 한다.
- 음악의 경우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내빈입장, 애국가, 태권도 창가, 시범음악 등 절차에 필요한 여러 음악이 만들어져야 하며, 이러한 음악은 한국적이면서 웅장하고 대중을 압도할 수 있어야 한다.
- 한국적 음악의 필요성 사례
 “ 2007년 중국에서 개최된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식전행사로 타이거즈 시범단의 시범에서 장내 아나운서가 태권도가 중국에서 유래된 것으로 소개, 그러나 타이거즈의 시범음악이 ‘아리랑’으로 사용됐다. 사전에 음악으로 아리랑 사용을 금하였으나, 타이거즈 시범단측이 강력하게 주장함 ”
- 9단자 수여예식은 공개적으로 거행되었으면 한다.

응시자 (45)

- 각 체육관 및 시도구에서 시행하는 예식은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함.
- 지역주민 및 가족들 모두가 참여하는 승품단 심사이외에 참석자들이 걱정하지 않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필요함.
- 복식의 경우 심사위원들도 도복차림으로 수련생들이 일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

응시자 (46)

- 체육관 및 각 시도구에서 시행하는 심사에서는 응심자들이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자신의 기량을 보이고 싶어한다. 때문에 이러한 응심자들의 마음이 잘 반영된 예식으로 개발되었으면 좋겠다.
- 심사위원들도 양복보다는 도복이나 별도의 복식이 필요하다.

응시자 (47)

- 복식의 경우 단에 따른 구분이 필요하다고 본다. 미국 ATA의 경우 정장 자켓에 단을 표시하는 배지를 부착하여 고단자를 예우하고 있다.
- 음악의 경우 예식 전에 응심자 및 모든 참가자들이 명상자세에서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명상’음악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응시자 (48)

- 태권도 예식의 경우 우리민족의 정서가 담겨 있어야 한다.
- 태권도는 선배와 후배에 대한 존경과 공경이 기반이 되어야 하며, 단순한 권위보다는 한국의 전통무도의 축제장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 음악의 경우 전 세계가 공감하고, 한국의 이미지가 물씬 풍기는 민요 등을 사용한다.

- 행사는 응심자 이외의 가족과 관람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및 이벤트가 만들어져야 한다.

응심자 (49)

- 각 시도구의 승품단의 경우 너무 많은 응심자들이 심사를 보기 때문에 예식을 제대로 갖추기 힘들다. 때문에 승품단 참여 응심자들의 인원관리가 필요하다.
- 응심자들의 인원이 조정된다면 절도 있고 품위있는 예식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응심자 (50)

- 예식에서 사용되는 복장은 어떤 복장으로 하든 '하얀색'으로 만들어졌으면 한다.
- 음악의 경우 심사 전에 '명상'음악으로 시작하고, 끝맺음도 명상음악으로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다.

응심자 (51)

- 승품단 심사는 6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각 체육관에서 시행되었던 것이 대한태권도협회 창립과 더불어 지금과 같은 제도로 변화함.
- 각 시도협회에서 시행되면서 많은 응심자들이 한꺼번에 보기 때문에 응심자나 동행한 가족들이 지루함을 느낀다. 때문에 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내비소개 및 인사 등 형식적인 절차 보다는 태권도와 관련된 다양한 행사프로그램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음.

응심자 (52)

- 시도협회에서 보는 심사예식의 경우 국민의례, 내빈소개, 협회장인사말 등으로 구성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각 체육관의 관장과 협회 임원들도 자리에 착석하여 응심자들이 예를 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
- 개회식이 끝나고 심사전에 응심자들이 명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 심사장에 참여한 부모 및 가족들에게 태권도의 가치 및 격식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

응심자 (53)

- 심사의 격식을 갖추되, 심사장에 참여한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필요함.

응심자 (54)

- 현재 00도에서 진행되는 승단심사의 경우 심사가 매우 형식적이고 격식 없이 치루어져 학부모형이나 사범들의 불만이 많다.
- 심사 전후로 시범단 공연, 혹은 모든 응심자들이 동일 품새나 동작을 시행하는 등의 참여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 심사의 횟수를 늘리더라도 응심자의 인원을 줄여야 한다.

응시자 (55)

- 심사예식의 격식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 심사에서도 '한마당대회'와같이 학부모나 관람자들이 태권도를 체험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심사이전에 국민체조와 같은 태권도인들이 함께 따라 할 수 있는 체조를 공식화 함.
- 심사 경기장에는 경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제거해야 한다. 각 예식에 맞는 장소가 만들어져야 한다.
- 복장의 경우 국기원에서 정하여 마크, 그림, 글자 등 통일된 양식에 맞게 개발되어야 함.
- 음악은 심사 및 예식이 엄숙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함. 음악은 일선도장에서 명상시간에 자주 쓰는 그런 음악이 좋겠다.

응시자 (56)

- 복식의 경우 고단자채점위원과 일반채점위원의 복식을 달리해야 한다.
- 태권도 예식 및 심사에 정치적인 요소는 배제되어야 한다.

응시자 (57)

- 복식의 경우 심사위원의 경우 도복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별 제작하여 권위를 상징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공인된 도복으로 글씨나 마크가 통일된 심사용 복식을 착용해야 한다.

응시자 (58)

- 태권도가 한국의 무도로서 그 가치를 잘 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
- 복장의 경우 심사위원은 양복보다는 도복, 혹은 한복 또는 새로 제작한 복장이면 좋을 것 같다. 심사위원의 권위에 맞는 복식이 필요하다.
- 음악은 사전에 국악 음악이든, 명상음악을 비롯해 분위기를 고조 시켰으면 한다.
- 심사장의 문제는 장소의 전체 변경이 어렵더라도 현수막 및 소품 조명 등을 활용하여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응시자 (59)

- 복장의 경우 심사위원의 경우 한복이나 도복의 변화를 검토해야한다.

응시자 (60)

- 통일된 예식체계 속에서 수련자 그리고 그 가족 및 일반인들이 국기 태권도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도록 해야 한다.

- 수련자들에게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고, 가족들에게는 즐거운 축제의 장이 되어, 태권도 홍보 및 보급의 장으로 활용 할 필요가 있다.
- 음악의 경우 국민의례이후 태권도 찬가를 불렀으면 한다.
- 복식의 경우 심사위원은 통일된 복식(양복)을 착용해야 한다.
- 심사 전후로 시범단의 시범 및 관람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응시자 (61)

- 심사위원들은 심사장에서 스스로의 권위에 맞는 자세나 태도가 중요하다.
- 현재 각시도구에서 보는 심사방식은 너무 많은 인원을 심사하기 때문에 예식을 갖추기 어렵다.

응시자 (62)

- 사범으로서 승품단시험이 급급하게 이루어져 참여한 응심자들 및 부모님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든다.
- 심사를 품위있고 권위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 태권도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태권도 시범 등의 행사가 필요하다.
-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심사를 보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거나 지루함을 제거해야한다.

응시자 (63)

- 미국 태권도의 대부로 불리는 '이행웅 사범'의 경우 경기 및 심사전에 음악, 복장, 화려한 무대조명 등을 사용한다.
- 국기원 응심자들도 특별한 복식을 갖추출 필요가 있다.
- 음악의 경우 웅장하고, 분위기 있는 곡의 개발이 필요하다.
- 예식 전에 음악이 울리고, 고단자 및 심사위원들이 입장하면, 큰절을 하고, 학부모들에게도 큰절을 올리는 등의 예를 갖추었으면 한다.

응시자 (64)

- 심사의전보다는 '8·9단'의 수여예식이 국기원에서 명예롭게 진행되어, 태권도인으로서의 영광과 자부심을 느끼고, 많은 태권도인들의 존경과 축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심사의식은 초등부는 꿈과 희망을 주는 분위기의 의식을, 중고등부는 태권도의 맛을 보고 실현하는 의식을 일반 및 성은 무도적인 중후한 분위기 의식이 행해지면 좋을 것 같다.
- 의식의 전반적인 절차는 인사말 등 소개 등을 줄이고 축제의 분위기가 되었으면 한다.

태권도예식 개발을 위한 자문 요청서

2009년도 국기원에서는 태권도 위상에 맞는 태권도 표준 예식 체계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세계 태권도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태권도의 상징의전을 통한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태권도예식은 심사예식, 수여예식, 입문예식으로 구분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 예식의 현황과 문제점 및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지 자문위원 선생님들의 의견을 듣고자합니다.

구체적인 자문내용은 다음 다섯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각 분야별 연구 자료와 연구자 선생님들의 발표를 들으신 후 자문위원 선생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태권도예식의 절차 및 과정의 문제점 및 방향

둘째, 태권도예식에서 착용하는 복식의 문제점 및 방향

셋째, 태권도예식에서 사용되는 음악의 필요성 및 방향

넷째, 태권도예식의 공간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다섯째, 태권도예식의 내용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향

여섯째, 기타 예식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이벤트

바쁘신 중에 국기원의 태권도예식 개발에 관심 가져주시고 자문에 응해주셔서 감사사합니다.

2009년 9월

태권도 예식개발 연구책임자

심승구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3. 참고문헌

1) 단행본

- ‘97무주·전주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97 무주·전주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공식 보고서. 1997.
- A. 반 겐넵 저 ; 전경수 역. 통과의례. 을유문화사. 2000.
- ASEM준비기획단. 제3차 ASEM 정상회의 준비 및 운영 보고서. 제1-2권. ASEM준비기획단. 2000.
- Culture and power : Tuscany and its universities 1537-1609 / by Jonathan Davies Brill 2009.
- Robert L. . Anthropology and religion : what we know. think. and question. Winzeler AltaMira Press. 2008.
- 高英津 저. 조선중기 예학사상사 : 예의 시행. 예설의 변화. 예학의 성립. 한길사. 1995.
- 국가인권위원회.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 포럼 연례회의 참가보고서 : 별책부록. 제10차. 국가인권위원회. 2005.
- 국립민속박물관 [편]. 러시아 사할린·연해주 한인동포의 생활문화. 국립민속박물관. 2001.
- 국립민속박물관 편. 한국무예사료총서. 8 : 조선시대 의례·지리·총서. 국립민속박물관. 2006.
- 국립민속박물관. 가자흐스탄 한인동포의 생활문화. 국립민속박물관. 2000.
- 국립민속박물관. 우즈베크스탄 한인동포의 생활문화. 국립민속박물관. 1999.
- 국립민속박물관. 중국 길림성 한인동포의 생활문화. 국립민속박물관. 1996.
- 국립민속박물관. 중국 요녕성 한인동포의 생활문화. 국립민속박물관. 1997
- 國土統一院. 올림픽憲章. 調查研究室 國土統一院. 1986.
- 국회사무처 국제국. 국회의전편람. 국회사무처. 1996.
- 국회사무처 국제국. 국회의전편람. 국회사무처. 2004.
- 軍部衛問 著. 陸軍禮式. [발행처불명] . 1900.
- 권삼문 ; 김영순 공저. 향촌의 유교 의례와 문화. 민속원. 2003
- 금장태 저. 유교의 사상과 의례. 예문서원. 2000.
- 노르베르트 엘리아스 저; 박미애 역. 문명화 과정. 한길사. 1996.
- 다카시 후지타니 저 ; 한석정 역. 화려한 군주 : 근대일본의 권력과 국가의례. 이산. 2003.
-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공식보고서. 2004.
- 로저 L. 자넬리, 임돈희 공저. 김성철 역. 조상의례와 한국사회. 일조각. 2000.
- 루스 베네딕트, 이종인 옮김. 문화의 패턴. 연암서가. 2008.
- 루츠 무스너, 하이데마리 울. 문화학연구회 옮김. 문화학과 퍼포먼스. 2002.
- 마이클 이 지음. 세계의 축제 문화기행 : 삶은 축제이다 탄생에서 죽음까지. ‘통과의례’의 모든 것. 평단문화사. 2003.

- 문화관광부 문화관광부. 국가의전의 문화적 개선 방안 연구. 2006.
- 文化體育部. 올림픽헌장 = Olympic Charter. 文化體育部. 1993.
- 문화체육부. 한국종교의 의식과 예절. 문화체육부 중무실. 1995.
- 박종천 지음. 다산 정약용의 의례이론 . 신구문화사. 2008.
- 法制處 編. 올림픽憲章. 法制處. 1982.
-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 공식보고서. 2003.
- 빅토 터너 지음 ; 박근원 옮김. 의례의 과정.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5.
- 빌헬름 딜타이. 이한우 옮김. 체험 · 표현 · 이해. 책세상. 2002.
-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서울올림픽)물자지원단. 1988.
-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1989. 서울올림픽대회 공식보고서 1 : 대회준비 및 운영.
- 서울특별시. 의전실무 편람 : 맑고 매력있는 세계도시 서울. 2006.
- 成達濟 編著. 儀禮典書. 日光出版社. 1958.
- 심승구. 조선시대 궁성문 개폐 및 수문장 교대의식.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2.
- 심승구. 조선 세종조 궁중조희, 상참의 고증연구. 문화재청. 2003.
- 심승구. 조선무사영웅전. 한국국학진흥원. 2004.
- 심승구. 한국무예의 역사문화적 조명. 국립민속박물관. 2004.
- 심승구. 조선 숙종 인현왕후 가례의 고증연구. 문화재청. 2004.
- 심승구. 한국무예사료총서(삼국시대~근대, 13권). 국립민속박물관. 2003-2007.
- 심승구. 1892년 임진 진찬연 고증연구. 문화재청. 2005.
- 심승구. 수원 화성행궁 및 화령전 궁중유물 복원 · 전시 고증연구. 수원시 화성사업소. 2005.
- 심승구. 무술, 중국을 보는 또 하나의 창. 국립민속박물관. 2005.
- 심승구. 조선 영조대 대사례 고증연구. 문화재청. 2006.
- 심승구. 문화재 활용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연구. 문화재청. 2006.
- 심승구. 조선시대 국가의례의 재현의 현황과 과제. 한국궁중문화연구원. 2006.
- 심승구. 이충무공 독제 고증 연구. 문화관광부. 2007.
- 심승구. 국립묘지 국가의전의 현대화 방안연구. 국가보훈처. 2007.
- 심승구. 전통무예 태격의 정체성 확립을 통한 발전방안. 김제시. 2007.
- 심승구. 충남의 역사문화를 기반으로 한 문화콘텐츠 개발. 충청남도. 2008.
- 심승구. 한중일 궁중공연과 문화콘텐츠. 한국궁중문화연구원. 2008.
- 심승구. 제주목 관아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활성화 방안. 제주도. 2009.
- 심승구. 수원화성 궁중문화축제 고증연구. 화성운영재단. 2009.
- 심승구. 문화재의 공익적 경제적 가치분석 연구. 문화재청. 2009.
- 앨런 거트만 지음 ; 송형석 옮김. 근대스포츠의 본질 : 제례의에서 기록추구로. 나남. 2008.
- 梁承勛 著. 儀禮入門. 道義教育研究會出版部. 1960.
- 李在淑 外著. 조선조 궁중의례와 음악.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 이창식 저. 전통문화와 문화콘텐츠. 역락. 2008.
- 李昞應(朝鮮) 編著. 三班禮式. [發行處不明]. 1868.
- 전파연구소 ; 한국방송공학회 [공편]. ISM 대역에서의 전파간섭실험 및 분석 연구. 정보통신부 전파연구소. 2007.
- 丁淳佑 外編. 朝鮮時代 儀禮資料集成. I - V.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7.
- 鄭玄 ; 賈公彥 注疏 ; 吳江原 譯註. 儀禮 : 고대사회의 이상과 질서. 1-3. 청계출판사. 2000.
- 조너선 스미스 지음 ; 방원일 옮김. 자리잡기 : 의례 내의 이론을 찾아서. 이학사. 2009.
- 朝鮮總督府 編. 朝鮮法令輯覽. 1916. 精美堂活版所. 1916.
- 朝鮮總督府 編. 朝鮮法令輯覽. 1922. 帝國地方行政學會. 1922.
- 朝鮮總督府 編. 朝鮮法令輯覽. 1926. 帝國地方行政學會. 1926.
- 朝鮮總督府 編. 朝鮮法令輯覽. 1928. 帝國地方行政學會. 1928.
- 朝鮮總督府 編. 朝鮮法令輯覽. 1932. 帝國地方行政學會. 1932.
- 朝鮮總督府 編. 朝鮮法令輯覽. 朝鮮書籍. 1936.
- 朝鮮總督府 編. 朝鮮行政學會. 1940.
- 池載熙 ; 李止漢 解譯. 의례(儀禮) : 전통 예절의 법전. 자유문고. 2004.
- 철도청 [편]. 행사의전편람. 철도청. 2002.
- 체육부. 서울아시아 경기대회 백서 3 : 여건조성편. 1987.
- 최정화 외3인. 기능성 스포츠웨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초 연구 - 축구복, 태권도복, 수영복, 골프웨어, 에어로빅복, 땀복을 중심으로. 한국과학재단 특정기초연구보고서. 2004.
- 최종성 저. 조선조 무속 國行儀禮 연구. 일지사. 2002.
- 캐서린 벨 지음 ; 류성민 옮김. 의례의 이해 : 의례를 보는 관점들과 의례의 차원들. 한신대학교 출판부. 2007.
- 통일교육원 [편]. 북한문제 이해 : 실태와 변화 가능성. 통일교육원. 1999.
- 통일교육원 통일부. 북한문제 이해 : 실태와 변화 가능성. 통일교육원. 1999.
- 피터 페리클레스 트리포나스 지음, 최정우 옮김. 바르트와 기호의 제국. 이제이북스. 2003.
- 하워드 J. 웨슬러 지음, 임대희 옮김. 비단같은 주옥같은 정치 : 의례와 상징으로 본 唐代의 정치사. 고즈원. 2005.
- 한국국제협력단 협력정책팀. 국제협력용어집. 2001. 한국국제협력단 협력정책팀. 2001.
- 한국종교민속연구회 지음. 종교와 의례공간. 민속원. 2007.
- 한스 요아힘 파프르트 지음 ; 강정원 옮김. 통구스족의 꿈 의례. 태학사. 2007.
- 한영우 지음. 조선왕조 의궤(儀軌) : 국가의례와 그 기록. 일지사. 2005.
-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3권 : 제2분과. 중·근대사 일본편.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2005.
- 홍순석 외저. 전통문화와 상징. 1. 강남대학교 출판부. 2001.
- 황경숙 저. 한국의 벽사의례와 연희문화. 月印. 2000.

황규선 지음. 소중한 날의 상처림. 교문사. 2007.

2) 논문

- J. G. A. Pocock 著 ;김연광 譯. 의식. 언어. 권력 :고대 중국 철학의 정치적 의미에 대한 논의. 역사와 사회 통권 제29집 (2002. 12) pp.181-206 국제문화학회. 2002.
- Kim Ji-young. Politics of royal rituals and banchado illustrations of uigwe in the late Joseon. 2008 Korea journal. vol. 48 no. 2 (Summer. 2008). pp.73-110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UNESCO/05 J6. 2008.
- Matthew Schultz. Ritual storytelling :confessional rhetoric in Synge. Joyce. and Yeats. 제임스조이스저널. 제14권 제2호 (2008년 12월). pp.185-204 한국제임스조이스학회. 2008.
- 가지카와 아키히로. 조선시대 의례공간의 구성체제와 예제건축의 형식. 서울대 대학원. 2004.
- 강진숙. 예식시설 실내설계의 현황과 과제. 충북대 산업대학원. 2008.
- 강호기. 가족스포츠 참여실태와 생활만족도.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 2007.
- 강희경. 유니폼 계획 및 디자인 방법에 관한 연구 - GAMES OF THE XXIVTH OLYMPIAD SEOUL 1988에서의 이미지 프로그램 사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 고동수. 교회 역사 안에서의 전례와 악기의 관계성 고찰 : 파이프 오르간을 중심으로. 인 천가톨릭대 대학원. 2005.
- 공미선, 채금석. 세계시장을 위한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개발. 복식,54(2),1-9. 2004.
- 구태은. 현대조각에 나타나는 원시미술의 반영 : 인물 조각을 중심으로. 홍익대 대학원. 2007.
- 구효선. 신라의 境界와 제사. 先史와 古代. 통권 제28호 (2008년 6월). pp.321-342 韓國古代學會. 2008.
- 권은숙. 한일 언어행동의 대조사회언어학적 연구 . 중앙대 대학원. 2006.
- 권형수. 태권도화 기능성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김 철. 현대의 주술(呪術) :상징과 의례 통한 국가에 대한 충성의 내면화. 사람이사람에게. 통권15호 (2002. 6) pp.22-26 국제민주연대. 2002.
- 김경순. '88 서울올림픽 유니폼을 위한 연구 - 한국선수단 및 각 부서별 요원의 유니폼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2.
- 金啓童. 한국주거에서의 의례행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釜山大 大學院. 1998.
- 金光億. 성인식 ; 의례적 구조와 문화적 의미. 精神健康研究 7('88.8) pp.19-54 漢陽大學校 精神健康研究所. 1988.
- 김광익. 저항문화와 무속의례;현대한국의 정치적 맥락. 한국문화인류학 23('91.12)

- pp.131-172 한국문화인류학회. 1991.
- 김민자, 박주희. 한국적 이미지의 축구유니폼 디자인개발에 관한 연구. 복식, 52(4), 125-139. 2002.
- 김민자. 한국적 패션 디자인의 제다움 찾기 : 전통미와 현대적 활용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09.
- 김보인. 한·일 의례성 인사말의 대조 사회언어학적 연구. 중앙대 대학원. 2007.
- 김성기. 루마니아 통과례와 나무의 상징성. 동유럽연구. 제19권. pp.151-169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동유럽발칸연구소. 2007.
- 김수인. 상처림에 대한 의식조사와 현대화 방안. 조선대 대학원. 2007.
- 김양주. 의례와 지역사회의 상호작용에 대한 고찰 :시만토강 유역사회에 대한 민족지적 연구를 중심으로. 社會科學研究. 제26집 (2005년 6월). pp.237-256 培材大學校社會科學研究所. 2005.
- 金榮官. 百濟遺民 예寔進 墓誌 소개. 신라사학보. Vol.10 (2007. 8). pp.365-380 신라사학회. 2007.
- 김영기. 출애굽기 19-24장에 나타난 예배의 원리. 합동신학대학원대. 2005.
- 김영자. 한국 부적의 역사와 기능. 고려대 대학원. 2007.
- 김영주. Ritual Service Marketing에 관한 연구 : 혼례 Service를 중심으로. 서울大 大學院. 1994.
- 김영주. Ritual Service Marketing에 관한 연구 : 혼례 Service를 중심으로. 서울大 大學院. 1994.
- 김영훈. 의례의 상품화 : 미국 라스베가스 혼인 의례 연구. 한국문화인류학 30.1('97.5) pp.81-122 한국문화인류학회. 1997.
- 김은정. 대통령 연설에 나타난 대통령의 수사적 역할 : 신뢰성과 행위주체를 중심으로. 경희대 대학원. 2005.
- 김의숙. 민속신앙의례와 속신의 음양관. 민속학연구 제4호 (1997. 10) pp.151-166 국립민속박물관. 1997.
- 김재연. 국제회의 의전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기초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2006.
- 金在瑱. 불교의례에 있어서 梵唄의 기능·구성 : 제의식을 중심으로. 東國大 佛教大學院. 1994.
- 김정수. John H. Westerhoff III의 종교의식 교육 모델 연구. 協成大 神學大學院. 1999.
- 김정현 외6인. '86아시안게임 및 '88올림픽 행사시 자원봉사단 유니폼 디자인에 관한 연구. 婦學, 제19집. 1986.
- 김진숙. 한국 전통 불교 꽃장식의 특징과 재연. 삼육대 대학원. 2007.
- 김창호. 한국 무의 타계관 연구. 한양대 대학원. 2002.
- 김현경. 공적 공간에서의 무사와 모욕의 의미에 대하여. 사회와역사. 통권75호 (2007년 가을). pp.253-283 한국사회사학회. 2007.
- 김현기. 유교 祭祀의 한국교회 예식화 방안 연구. 韓神大 神學大學院. 1997.

- 김현선. 현대 한국사회 국가의례의 상징화와 의미분석.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2004.
- 나수임. 한국의례복식의 기호학적 분석.II :조선시대 상례복식을 중심으로. 服飾文化研究. 28(2000.10). pp.648-659 服飾文化學會. 2000
- 남재경, 금기숙. 한국적 이미지를 응용한 패션문화상품의 현황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복식학회 학술발표논문집, 352-353. 2004.
- 남재일. 한국신문의 객관주의 아비투스 : 형식적 사실주의의 전략적 의례를 중심으로. 고려대 대학원. 2004.
- 문명옥 외3인. 글로벌 마켓을 위한 한국적 이미지의 제품 디자인 개발 방안. 한복문화, 10(3). 2007.
- 박관희. 의례화의 결정요인과 결과에 관한 연구. 忠南大 大學院. 1999.
- 朴光得. 순자의 예와 그 기원에 관한 연구. 嶺南政治學會報. 3. pp.125-149 嶺南政治學會. 1993.
- 박광수. 한국 신종교(천도교·증산교·원불교)에 나타난 신화·상징·의례 체계의 상관성에 관한 비교 연구. 宗教研究 제26집 (2002. 3) pp.89-114 韓國宗教學會. 2002.
- 박기준. 바람직한 儀禮文化의 정착. 나라경제 53('95.4) pp.79-81 국민경제교육연구소. 1995.
- 박남주. 한국 활쏘기의 체육사적 연구.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 2003.
- 박미경. Confucian Symbolism in the Court Ritual Music of Korea. 藝術文化 제13집 (2001. 12) pp.33-41 啓明大學校藝術文化研究所. 2001.
- 박상언. 몸과 치유 그리고 의례의 힘. 新宗教研究. 제11집 (2004. 12). pp.25-59 韓國新宗教學會. 2004.
- 박상언. 퍼포먼스로서의 의례 읽기. 그 지점과 가능성. 종교문화연구. 제9호 (2007년). pp.1-21 한신인문학연구소. 2007.
- 박선웅. 뒤르켐주의 문화사회학 : 분류체계와 의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2.4('98.12) pp.905-931 한국사회학회. 1998.
- 박선웅. 문화.의례와 정치변동 : 한국의 민주적 전환. 한국사회학 32.1('98.3) pp.29-61 한국사회학회. 1998.
- 朴愛陽. 한·중 칭찬화행의 문화 대조 분석 :의례성 칭찬을 중심으로. 中國學研究. 제45집. pp.67-90 中國學研究會. 2008.
- 박원길. 코틀라칸의 즉위의례에 나타나는 神木繞旋儀式에 대하여. 中央史論 10·11('98.12) pp.369-398 중앙 사학연구회. 1998.
- 박재환. 의례의 사회학적 의미. 社會科學論叢 제21권 통권29호 (2002. 12) pp.51-73 釜山大學校社會科學大學. 2002.
- 박종천. 다산 정약용의 의레이론에 대한 연구 : 종교문화체계로서의 예 분석을 중심으로 . 서울대 대학원. 2007.
- 배성한. 문화교차적 측면에서 바라본 한국 무대공간 변천사 연구. 국민대 대학원. 2007.

- 서마리아. Ritual Music in Hanyang Kut :Focusing on Musical Practices of Shaman Rituals Originating in Seoul. 韓國音樂史學報 제29집 (2002. 12) pp.757-787 韓國音樂史學會. 2002.
- 송도영. 의례공간 소비의 '키치'화 : 예식장. 한국문화인류학 28('95.12) pp.319-350 한국문화인류학회. 1995.
- 송도영. 의례공간 소비의 '키치'화 : 예식장. 한국문화인류학 28('95.12) pp.319-350 한국문화인류학회. 1995.
- 송번수, 전수정. ritual과 현대 퍼포먼스와의 소통 :아프리카 '원시제의'에서 나타난 리얼리티 및 그 현대적변용. 人文科學. 제15집 (2007년). pp.61-85 弘益大學校 人文科學研究所. 2008.
- 송세현. 한국 상장의례의 의식과 개선점. 동국대 불교문화대학원. 2004.
- 宋宰鏞. 구한말 서양인이 본 한국 의례 일고찰. 東洋學 제36집 (2004. 8) pp.45-74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2004.
- 송지원. 조선시대 일식·월식을 구(救)하는 의례. 문헌과 해석. 통권40호 (2007년 가을). pp.120-134 문헌과해석사. 2007.
- 신문승. 세례의 이해와 실천적 적용. 그리스도神學大 神學大學院. 1998.
- 신수현. 혼인 의례의 변화에 따른 예식 시설 실내설계에 관한 연구. 홍익대 건축도시대학원. 2007.
- 신현수. 우리나라의 예식문화 이대로 좋은가. 도시문제 363('99.2) pp.55-59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999.
- 심승구. 한국 무예의 역사와 특성. 군사 43. 1997.
- 심승구. 조선시대 궁중의례 복원·재현의 현황과 과제. 궁중문화연구원창립기념발표회. 2006.
- 심승구. 조선시대 왕실혼례의 역사와 특성. 조선시대사학보 41. 2007.
- 심승구. 디지털 시대의 역사학의 소통과 전망. 제1회 CT 포럼 발표문. 문화관광부. 2007.
- 심승구. 태권도의 정체성과 문명사적의의. 제1회 태권도 국제학술심포지움. UC버클리대학. 2007.
- 심승구. 한국의 문화원형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전략. 한중일 전통문화 콘텐츠전략 국제학술대회. 2007.
- 심승구. 조선시대 외국인 관광의 사례와 특성. 옛 사람들의 관광과 여행의 문화사. 2007.
- 심승구. 여성 해방과 도핑 -동독스포츠 성장과 명암. 한국체육사학회 13. 2008.
- 심승구. 군사사를 활용한 문화콘텐츠의 사례와 전망. 군사학연구. 대전대학교. 2008.
- 심승구. 한국무예의 가치와 미래전망 -역사철학적 관점에서 본 한국무예와 세계스포츠-. 한국전통무예단체협의회 창립4주년 학술대회. 2009.
- 심승구. 전북 운봉의 역사문화자원과 문화콘텐츠 개발 전략. 운봉고원의 역사문화자원 및 자연환경 개발 학술세미나. 한국역사민속학회. 2009.
- 심승구. 조선시대 대사례의 시행과 정치사회적 의미. 한국학논총 32집. 2009.

- 심재관. 고대인도의 王權(rajya)과 asvamedha 儀禮의 상징성. 2006 역사민속학. 제23호 (2006년 12월). pp.285-304 민속원. 2006.
- 안미정. 제주 잠수의 어로와 의례에 관한 문화인류학적 연구 :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문화전략을 중심으로. 한양대 대학원. 2007.
- 안용규. 태권도 도복의 철학적 의미. 한국체육학회 학술대회발표. 1999.
- 안용규. 태권도 띠의 색채 의미. 세계태권도연맹 학술대회발표. 2000.
- 안호숙. 전통 돌 의례의 의미와 현대적 제안. 성신여대 문화산업대학원. 2004.
- 梁權錫. 成年儀禮와 身體變工 研究. 國民倫理研究. 제37호 (1997. 12). pp.527-544 韓國國民倫理學會. 1997.
- 오재환. 권력지배의 정당화와 국가의례. 사회조사연구 제17권 (2002. 12) pp.49-70 釜山大學校社會調查研究所. 2002.
- 오재환. 의례의 사회학적 의미. 사회조사연구 12.1('97.12) pp.167-187 부산대학교사회조사연구소. 1997.
- 오재환. 한국의 '근대화'의례 연구 : 박정희 시대를 중심으로. 부산대 대학원. 2001.
- 오지현. 통과의례를 통해 본 각 사회의 문화비교 : 한국. 아랍.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 대학원. 2003.
- 유권재. 원시스포츠의 발달과정에 관한 연구. 中央大 大學院. 1997.
- 유승엽. 한국인의 문화심리 특성요인과 의례소비.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8권 2호 (2007. 8). pp.205-233 한국소비자·광고심리학회. 2007.
- 유승엽. 한국인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의례성의 심리과정과 그 기능. 中央大 大學院. 1996.
- 尹德仁. 儀禮飲食으로서의 떡에 관한 考察 및 떡의 利用에 관한 實態 研究. 論文集 : 15('87.2) pp.75-96 關東大學校. 1987.
- 윤상화, 권관배. 태권도 수련복의 변천과정에 관한 고찰. 용인대학교 논문집, 16, 163-173. 1998.
- 尹錫柱. 儀禮에 나타난 禁忌研究: 通過 儀禮를 중심으로. 淸州大 大學院. 1986.
- 윤여정. 디지털 매체 시대의 사이버스페이스 추모 문화에 관한 연구. 홍익대 광고홍보대학원. 2005.
- 윤혜신. 한국신화의 입사의례적 탄생담 연구. 연세대 대학원. 2002.
- 이광우 ;정문현. 국제스포츠대회와 의전. Korea sport research. 제17권 제6호 통권99호 (2006년 12월)-social science 1. 2. pp.189-199 한국스포츠리서치. 2006.
- 이근주. 의례적 행위와 일상적 사회질서의 상호의존: 한 산촌의 동제를 중심으로. 서울대 대학원. 1986.
- 이노미. 문화 간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인지능력 평가에 관한 비교 문화적 연구 : 한국과 아시아 지역 "손짓언어" 를 중심으로. 성균관대 대학원. 2006.
- 이송학 외2인. 태권도 정체성 확립을 위한 태권도복 연구. 한국스포츠리서치, 15(6), 861-876. 2004.

- 이영인. 우리나라 전통의례 음식과 그 의식에 관한 연구 : 경축일을 중심으로. 世宗大 大學院. 1993.
- 이영임. 조선시대 의례복식에 나타난 상징성 연구. 중앙대 대학원. 2005.
- 이예승. 하이퍼 미디어(Hypermedia)를 이용한 커뮤니케이션 공간 디자인에 관한 연구 : 하이퍼 미디어 공간에서 의례(ritual)커뮤니케이션 행위의 인터랙션을 중심으로 . 홍익대 대학원. 2005.
- 이윤경, 김민자.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한국적 이미지 패션 디자인 개발 - Maya(Qualoth) 프로그램을 활용한 3차원 모델링. 복식.58(6),42-53. 2008.
- 이윤정. 관례의 절차·복식에 내재된 의미. 성균관대 생활과학대학원. 2002.
- 이창익. 몸의 테크닉과 희생제의 :스포츠에 대한 의례학적 탐구. 2003 종교문화비평 제3호 (2003. 6) pp.29-59 한국종교문화연구소. 2003.
- 이황직. 민간 의례로서 '불은악마 현상'. 사회이론 통권 제21호 (2002 봄·여름) pp.268-298 한국사회이론학회. 2002.
- 이희연. '사회적 시간'(Social Time)의 '기계적 차원'과 '순환적 차원'에 대하여 : 종교적'상징'과 '의례'(ritual). 그리고 '축제'를 중심으로. 서강대 대학원. 2002.
- 이희연. '사회적 시간'(Social Time)의 '기계적 차원'과 '순환적 차원'에 대하여 : 종교적'상징'과 '의례'(ritual). 그리고 '축제'를 중심으로. 서강대 대학원. 2002.
- 이희재. 유교의례에서의 술. 2009 宗教研究. 제54집. pp.131-147 韓國宗教學會. 2009.
- 任敦姬. 한국조상의 두 얼굴 :조상덕과 조상탄 :유교와 무속의 조상의례의 비교. 韓國民俗學. 21('88.9). pp.133-171 民俗學會. 1988.
- 任敏赫. 『三班禮式』의 편찬과 자료의 성격. 漢城史學 제13집 (2001. 9) pp.81-123 漢城史學會. 2001.
- 임부연. 유교 의례화의 정치학 :만동묘와 대보단을 중심으로 . 종교문화비평. 제15호. pp.159-182 청년사. 2009.
- 임종원, 박 철. 소비의 의례화와 Relationship Marketing에 관한 研究. 經營論集 33.3('99.8) pp.341-365 서울大學校經營大學經營研究所. 1999.
- 임지숙. 국가 이미지가 표현된 올림픽 선수 유니폼 디자인 연구 - 2004년 아테네 올림픽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장석만. 한국 의례 담론의 형성 :유교 허례허식의 비판과 근대성. 종교문화비평 제1호 (2002. 4) pp.26-49 청년사. 2002.
- 장인우. 한국 현대패션에서의 한국적 디자인 전개과정 분석과 세계화를 위한 제안. 복식.48(5),5-24. 1999.
- 張貞嬉, 金英淑. 생활 속의 꽃 문화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생활문화학회지. 3.2(2000.12). pp.177-193 한국전통생활문화학회. 2000.
- 장철수. 동서양의 생활의례 비교를 통해 본 윤리풍속도. 外 多寶 15('95.9) pp.33-56 대한불교진흥원. 1995.
- 장혜경. 한성시기 백제왕의 즉위의례. 성균관대 대학원. 2008.

- 전명주. Maria Harris 영성교육론의 한국적 적용. 이화여대 대학원. 2000.
- 全成坤. '야스쿠니신사(靖國神社)'와 문화 이데올로기 습합의 문제 :예대제(例大祭). 제식(祭式). 친배(親拜)를 중심으로. 日本文化研究. 제30집 (2009. 4). pp.385-402 동아시아일본학회. 2009.
- 전수경. 컴퓨터 그래픽스를 활용한 패션디자인 연구 - 캐포츠 신상품개발 과정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 전영자. 한국 샤머니즘 의례에서의 전통색의 역할 : 청·적·황·백·흑색 중심으로. 가톨릭대 문화영성대학원. 2008.
- 鄭景柱. 인간관계의 단절과 고립의 극복을 위한 대안 :儒家儀禮의 人間關係論. 淡水 제33집 (2004) pp.58-82 淡水會. 2004.
- 鄭文永. 광주 '5월 행사'의 사회적 기원 : 의례를 통한 지방의 역사 읽기. 서울大 大學院. 1999.
- 정승모. 의례에서 나타나는 의미 의 상징적 표현 과정 에 관한 연구. 서울大. 1980.
- 정유하. 5·18 의례음악의 특성과 변화의 양상. 지역사회연구. 제12권 제1호 (2004. 6) pp.23-47 한국지역사회학회. 2004.
- 정현정. 한국적 이미지의 태권도복 디자인 개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정혜성. 도교의례에서의 희생제사 금지. 서강대 대학원. 2008.
- 조성일. 베살리우스의 해부극장과 손의 이미지 : 『파브리카』의 도상과 서문에 나타난 해부 의례의 변화를 중심으로. 연세대 대학원. 2008.
- 조현범. 의례 논쟁을 다시 생각함. 헤테로독시아와 헤테로글로시아 사이에서. 敎會史研究. 제32집, pp.209-274 한국교회사연구소. 2009.
- 조현범. 의례의 문화사를 통해서 본 한국 종교의 흐름. 2004 한신인문학연구. 제5집 (2004). pp.313-341 한신대학교 학술원 인문학연구소. 2004.
- 조희욱. 석문의범과 사례편람의 상장의례에 관한 비교 고찰. 동국대 불교문화대학원. 2008.
- 趙熙眞. 첫돌 복식의 착용양상과 통과의례적 의미. 安東大 大學院. 1999.
- 지두환. 서울의 유교적 문화 환경과 의례 실천. 鄉土서울. 제70호 (2007년 10월). pp.271-281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2007.
- 최경희, 김민자. 한국적 이미지의 경기용 수영복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I). 복식, 53(2), 35-55. 2003.
- 최경희, 엄준희, 김민자. 한국적 이미지의 경기용 수영복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II). 복식, 53(4), 49-69. 2003.
- 최명림. 문(門)을 둘러싼 의례와 신앙. 南道民俗研究. 제16집 (2008년 6월). pp.255-283 南道民俗學會. 2008.
- 崔仁香. 가부키의 제의성(祭儀性)에 관한 소고(小考) :농촌가부키의 사례를 중심으로. 日本研究. 제26집 (2009년 2월). pp.371-388 中央大學校 日本研究所. 2009.
- 최호림. 근대화라는 이름의 전통 재창조. 베트남의 체제 변화와 전통의례. (문화·관광)너

- 을. vol. 202. pp.22-26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8.
- 최호림. 베트남의 문화정책 담론 :전통의례와 '민족화'. 亞細亞研究. 제50권 제3호 통권129호 (2007년 9월). pp.64-92. 227 高麗大學校亞細亞問題研究所. 2007.
- 최호림. 베트남의 문화정책 담론 :전통의례와 '민족화'. 亞細亞研究. 제50권 제3호 통권129호 (2007년 9월). pp.64-92. 227 高麗大學校亞細亞問題研究所. 2007.
- 최호림. 베트남의 의례활성화와 국가-사회 관계: 하노이의 한 프엉(坊)을 중심으로. 서울대 대학원. 2003.
- 표영삼. 의례 제도의 정착. 新人間 통권649호 (2004. 9) pp.32-37 新人間社. 2004.
- 하병엄. 「정」자명과 고대사회의 의례. 경북대 교육대학원. 2008.
- 한경국. 세례와 타종교 의식의 비교연구. 장로회신학대 대학원. 2004.
- 한경순. 한국전통 떡의 관광상품화 방안에 대한 연구. 초당대 산업대학원. 2007.
- 한분도. 성찬 전례 안에 나타난 인간구원의 신비. 광주가톨릭대 대학원. 2000.
- 한상준, 박기동. 한국 고대 제천의례의 스포츠과학적 고찰. 體育科學研究所論文集 16('91.12) pp.41-55 江原大學校附設體育科學研究所. 1991.
- 허연실. 한국종교의 의례와 술. 漢陽大 大學院. 1996.
- 허홍무. 국가유공자 등 사후관리 연구. 명지대 사회교육대학원. 2008.
- 현혜경. 제주4·3사건 기념의례의 형성과 구조. 전남대 대학원. 2008.
- 홍석주, 이은정. 조선조 궁궐의 월대에 관한 연구. 地域社會發展學會論文集. 제32집 3호 통권67호 (2007년 12월). pp.43-56 韓國地域社會發展學會. 2007.
- 홍석준. 전통의례에서 관광 이벤트로 : 말레이시아의 와양꾸릿(wayang kulit)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31.2('98.11) pp.481-517 한국문화인류학회. 1998.
- 홍훈기. 한국 전통 꽃예술의 변천과 특징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대학원. 2006.
- 황루시. 공동체문화와 공동체문학 :놀이 및 의례를 중심으로. 口碑文學研究. 제19집 (2004. 12). pp.191-214 한국구비문학학회. 2004.
- 황명현. 예전의 역사 연구를 통한 한국 개신교회의 예배 예식서 제안. 한세대 목회대학원. 2005.
- 황혜진, 김재연. 국제회의 의전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기초연구. 비서학 논총. 제15권 제2호 통권24호 (2006년 12월). pp.31-49 한국비서학회. 2006.

3) 웹사이트 주소

▣ 태권도(국내)

<http://tvpot.daum.net/clip/ClipView.do?clipid=16776638&q=%B1%B9%B1%E2%BF%F8%2C+%BD%C9%BB%E7>

<http://tvpot.daum.net/clip/ClipView.do?clipid=16776592&q=%B1%B9%B1%E2%BF%F8%2C+%BD%C9%BB%E7>

<http://tvpot.daum.net/clip/ClipView.do?clipid=14296021&q=%B1%B9%B1%E2%BF%F8%2C+%BD%C9%BB%E7%2C%C7%B0%BB%F5>

<http://tvpot.daum.net/clip/ClipView.do?clipid=17758997&q=%B1%B9%B1%E2%BF%F8%2C+%BD%C9%BB%E7>

<http://video.naver.com/2009022120395753575>

<http://video.naver.com/2009050511162590204>

<http://tvpot.daum.net/clip/ClipView.do?clipid=14997838&q=%BD%C9%BB%E7%2C+%B0%DD%C6%C4>

<http://tvpot.daum.net/clip/ClipView.do?clipid=15289533&q=%BD%C9%BB%E7%2C+%B0%DD%C6%C4>

<http://tvpot.daum.net/clip/ClipView.do?clipid=2449989&q=%BD%C9%BB%E7%2C+%B0%DD%C6%C4>

<http://tvpot.daum.net/clip/ClipView.do?clipid=2450031&q=%BD%C9%BB%E7%2C+%B0%DD%C6%C4>

<http://tvpot.daum.net/clip/ClipView.do?clipid=8546387&q=%BD%C9%BB%E7%2C+%B4%DC>

■ 태권도(해외)

99th Promotion Test Awards Ceremony, White to Yellow Belt

<http://www.youtube.com/watch?v=LBknJ9YBUYo>

■ 십팔기

대한십팔기협회 2009년 전반기 영남지역 승단심사

<http://www.youtube.com/watch?v=FmHOFI88jdM>

대한십팔기협회 2009년 사사학교 승단심사

<http://www.youtube.com/watch?v=611XRFdTLnE>

■ 아이키도(合氣道)

<http://www.youtube.com/watch?v=uC-8QY97Khc>

■ 무예도

Cindy's 4th Degree Black Belt Test in MOO YEA DO

http://www.youtube.com/watch?v=fjie7Nz0Uyk&feature=PlayList&p=1AA65E172D3842BE&playnext=1&playnext_from=PL&index=91

■ 가라테

Mahika's Karate Test

<http://www.youtube.com/watch?v=VGaYjFlg50>

Ulises - Sho Dan Test Opening Ceremony

<http://www.youtube.com/watch?v=h6Z-pmg-o2Q>

Kamryn's Orange Belt Test Ceremony

<http://www.youtube.com/watch?v=pfCE7VjLgPA>

■ 국술

Gene Gause #15 - Kuk Sool Won Black Belt Testing

<http://www.youtube.com/watch?v=mD0y5IgL3NA>

■ 쿵푸

http://www.youtube.com/watch?v=JTeG3_c7jnc&feature=fvsv

<http://www.youtube.com/watch?v=IEX4mxDAzdE&feature=related>

■ 검도

<http://video.mgoon.com/745082>

4) 비디오 자료

■ 예절과 품새: 도장에서의 예절

제작자: 국가대표시범단 단장 이규형

제작년도: 2000년 전후

내용: 도장에 입장해서 선배 및 동료에 대한 예의방법

■ 아메리칸 태권도, 태권도용병전쟁

제작자: itv 해외특별기획팀

제작년도: 2002

내용: ATA의 각종 예식

■ Born to be Happy: The Speech at the United Nations

제작자: Jhoon Lee

제작년도: 2007년 4월 10일

내용: 준리도장의 예식

■ 태권왕 이행웅

제작자: MBC 성공시대

제작년도: 불명(2000년 이후?)

내용: ATA 각종 행사예식

■ 다큐멘터리 태권도 1, 2, 3

제작자: KBS

제작년도: 1990년 전후

내용: 해외도장의 행사예식

■ SBS 특집다큐: 세계는 지금

제작자: SBS

제작년도: 2000년 전후

내용: ATA 이행웅의 태권도예식

5) 해외 동영상 자료

■ TALIUM Black Belt Test Nov. 2004

내용: 4분 가량의 유단자 승단심사

특성: 기도, 주문 등 종교적 색채, 지도자복장이 개량한복임

■ Bally Total Fitness TMA 2007년 승품 및 승단심사

내용: 1시간 가량의 승급 및 승단심사

특성: 지도자의 수련복색상, 부모의 동참

연구진

구분	성명	소속/지위	역할
책임 연구원	심승구	한국체육대학교 교양학부교수 한국무예연구소장	예식 및 총괄
공동 연구원	권준원	동아방송대학교 연예산업과 교수	이벤트
	박가영	한국궁중문화연구원 선임연구원	복식
	박필제	가천의과대학교 산업디자인과 교수	디자인
	송형석	계명대학교 태권도학과 교수	현황 분석
	원일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음악과 교수	음악
보조 연구원	김민옥	한국외국어대 문화콘텐츠학과 박사수료	연구지원
	김중수	한국체육대학교 체육학과 석사	조사/교열
	이상훈	한국외국어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석사	조사/교열
	최여미	한국체육대학교 체육학과 석사	행정/편집
자문 위원	이봉	국기원 연구소장	태권도
	오대영	국기원 연수처장	〃
	이규형	계명대학교 태권도학과 교수	〃
	이고범	태권도 기술전문위원	〃
	류호윤	대한태권도협회 기획부장	〃
	이진수	한양대학교 체육학과 교수	철학
	윤여빈	경기문화재단 전문위원	예식
	김민자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복식
	이진원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교수	음악
	이형록	(주)한울 이사	공간
연구 지원	최상환	국기원 기획팀장	연구지원
	최치선	국기원 전임연구원	〃

태권도 예식개발 연구

2009년 12월 발 행

발 행 처 : 국 기 원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32 국기원 태권도연구소
홈 페이지 : <http://research.kukkiwon.or.kr>
전 화 : 02) 553-5651
F A X : 02) 3469-0189
E - m a i l : research@kukkiwon.or.kr

이 연구보고서의 저작권은 국기원에 있으며, 국기원의 승인 없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무단복제나 도용은 저작권법(제7조5항)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